

현대조선문학선집 6

계몽기시가집

편찬 김학길

문예출판사

1990

Reconstructed from S01.str record id=16784

Works linked from the embedded TOC table: 255

차례

해제	1
1 구전가요 및 의병가요	19
1 꿈을 깨라	19
2 강습의 노래	19
3 학도가	20
4 학도가(1)	20
5 학도가(2)	20
6 학도가	21
7 문맹퇴치가	21
8 문맹타파가	22
9 국문가	23
10 할일이로다	25
11 신산념불	26
12 새벽종소리	27
13 신이팔청춘가	27
14 너자의 설음	28
15 부녀해방가	29
16 철모르는 신랑자	30
17 금주가	30
18 《회야회야 일진회야》	31
19 도적이 들어와 호응	32
20 개꼬리	32
21 평양은 내곳	32
22 폐말뚝	33
23 토지조사반대의 노래	33

24	농부타령	34
25	원쭈로다	34
26	섬도적	34
27	왜놈종자야	35
28	검자동아	35
29	십진가	36
30	동도타령	36
31	수자풀이	37
32	아동십진가	37
33	수자풀이 십진가	38
34	애국심	38
35	독립가	38
36	단심가	39
37	승냥이	39
38	이무기	40
39	금 닭	40
40	안중근의 노래	41
41	행보가	42
42	병정가	42
43	독립가	44
44	독립군가	44
45	독립군사발가	44
46	길군악 (1)	45
47	길군악 (2)	47
48	길군악 (3)	47
49	길군악 (4)	47
50	길군악 (5)	48
51	짚은 길군악	49
52	출진가	50
53	의병가	50
54	의병가	50
55	의병대가	50
56	바람	51
57	군바바	51

58	용진가	54
59	작대가	55

2 시조 56

1	애국심	56
2	조선반도	57
3	화채비결	57
4	학생지남	58
5	조요경	58
6	통소력	59
7	보강결	59
8	권소년	60
9	단체력	61
10	권농부	61
11	면금수	62
12	군자절	62
13	영춘	63
14	신정신	64
15	고수력	64
16	대장부	65
17	일이사	65
18	설중매	66
19	소생단	66
20	운페일	67
21	소천금	68
22	탕자계	68
23	배양력	69
24	막방토	69
25	가련명	70
26	승의리	70
27	이목 총명한들	71
28	도연	71
29	재완인	72
30	상사곡	73

31	국사밖에	73
32	하심장	74
33	동포야	74
34	일진광풍	75
35	대청결	75
36	적어도	76
37	감중련	76
38	희마랍	77
39	하마 올듯	77
40	고연리	78
41	더욱 바빠	79
42	바빠 걸어	79
43	지사야	80
44	남천안	80
45	래영웅	81
46	염라부	81
47	인간공도	82
48	저렇듯	82
49	서천우	83
50	사생간에	83
51	석불	84
52	불여귀	84
53	막우유	85
54	영웅 찾아	86
55	영웅혈	86
56	룡총마	87
57	감춘	87
58	원조	88
59	파춘면	88
60	대사업을	89
61	나를 반겨	89
62	조선혼아	90
63	늙기전에	90
64	때 좋다	91

65	전가	91
66	찌꼬리	92
67	봄은 가는데	93
68	행락	93
69	관포교	94
70	한치의 사람마음	94
71	귀거래	95
72	홍타령	95

3 가사 (1) 97

1	전정화	97
2	또다시 한번 권고하노라	109
3	충고가	111
4	초수오산	114
5	수심가	123
6	평양 모란봉가	128
7	농가	131
8	상봉유사	132
9	제목없이	133
10	회개세례	134
11	금옥가	135
12	신춘의 가	136
13	축《신문계》잡지가	137
14	《신문계》는 우리의 벗	138
15	영웅의 모범	139
16	격석일성	141
17	노력하세	142
18	허랑가	144
19	우리의 집	146

4 가사 (2) 149

1	신문가	149
2	소년조선	152
3	한탄세계	153

5	가사 (3)	156
1	부랑자경고가	156
2	득의천지	174
3	송병준아	176
4	개꼬리 3년	179
5	병문수작	181
6	춘성유람	183
7	필하단평	186
8	괴뢰세계	189
9	망량세계	192
6	가사 (4)	194
1	언문풀이노래	194
2	평화	197
3	정의	198
4	회개	199
5	우리의 동포	200
6	한	200
7	각성하라	201
8	지기를 지호, 부지호	202
9	도화일지 취하기를	203
10	망향가	205
11	석두면	206
12	교목의 봉춘	207
13	제목없이	208
14	고는 락의 종	209
15	비관하는 그대여	210
16	청년의 주의	211
17	나의 소원	213
7	창가 (1)	215
1	대조선 자주독립 애국가	215
2	애국가	216
3	동심가	217
4	애국가	218

5	애국가	219
6	애민가	220
7	애국가	220
8	애국독립가	221
9	애국가	222
10	운동가	224
11	추도가	226
12	독립가	227
13	사상팔변가	228
14	생육사영가	229
15	단연동맹가	230
16	제야공송매일보	234
17	신년송축가	236
18	심주가	237
19	한양가	238
20	혈죽가	239
21	가곡	239
22	그 무엇이 부족하야	240
23	소년모험맹진가	241
24	아동십진가	242
25	조선반도	242

8 창가(2) 245

1	서우사범학교 학도가	245
2	각 학교 운동가	247
3	권면가	249
4	권학가	249
5	청년학우회가	251
6	청년학우회 행보가	252
7	학도가	253
8	식송	255
9	공부	255
10	나아가	256
11	학문가	256

12	사절가	257
13	소년의 여름	258
14	사시경	259
15	춘조	260
16	권학가	262
17	농부가	263
18	수학려행	264
19	공덕가	265
20	운동가	267
21	졸업식	269
22	갈지라도	269
23	친의 은	270
24	사의 은	270
25	선우	271
26	표의	272
27	달	273
28	지연과 팽이	273
29	시계	274
30	토와 구	275
31	접	276
32	이양	276

9 신체시 278

1	해에게서 소년에게	278
2	우리의 운동장	280
3	별	281
4	농부가	282
5	신조선 소년	283
6	제목없이	285
7	꽃두고	286
8	제목없이	287
9	맑은 물	288
10	조선소년행	289
11	우리님	290

12	삼면환해지국	292
13	태백산부	294
14	태백산가	295
15	청년학우 하기휴학가	296
16	여름의 자연	297
17	비야	298
18	피와 땀	299
19	사람의 운명	300

해제

《현대조선문학선집》 제6권 《계몽기시가집》에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창작발표된 국문시가작품들을 구전가요, 의병가요, 시조, 가사, 창가, 신체시 등 형태별로 수록하였다. 그중의 많은 작품들은 지난날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고 문학사에서조차 취급되지 않았던것으로서 편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새롭게 발굴정리됨으로써 이 시기 문학발전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밝혀낼수 있게 되었다. 류린석, 최익현, 김택영을 비롯한 반일의병장들과 애국시인들의 한자시들은 이 시기에 창작된것이라도 이 선집에 실지 않고 《조선고전문학선집》에 수록하였다. 그것은 그 시작품들이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당시 조선사람들의 애국적감정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을 반대하는 문명개화에로의 근대적 지향과 결합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형식이 민족적인것이 못되고 인민들에게 잘 리해될수 없는것이기때문이다.

시가의 주요한 특성은 현실생활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체험한 생활정서를 토로하는 서정의 문학이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제때에 기동적으로 반영하면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투쟁으로 힘있게 부르는 선동성과 전투성이 강한 문학이라는데 있다.

조성된 국내외정세로 하여 인민들을 나라의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를 위한 투쟁에 불리일으키기 위한 애국문화계몽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나라의 력사적현실은 바로 이러한 전투적형식의 시가문학창작을 추동하였다.

참으로 이 시기는 일제를 비롯한 외래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로 남게 되는가,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는가의 갈림길에 서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만큼 정세는 준엄하였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을 깨우쳐 애국투쟁으로 불리일으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가 구미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도 무능하고 고루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와 인민을 돌보지 않고 개인의 권세와 향락만 탐내어

당쟁을 일삼았으나 우리 인민들은 쿨함없이 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의 침략책동으로 나라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여있던 이런 엄혹한 시기에 애국의 기치밑에 전국 각지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거세찬 기세로 전개된것이 농민들의 반일의 병투쟁과 애국적지식인들의 애국문화계몽운동이다. 반일의병투쟁이 무력에 의하여 원수들을 조국강토에서 쳐물리치고 자주독립을 수호하려고 하였다면 애국문화계몽운동은 《나수의학》의 구호밑에 인민들을 깨우쳐 안으로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밖으로 외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실현할것을 목적하였다. 이 운동들에는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이 망라되었다.

지난 시기 실학사상가들이 《실사구시, 리용후생》의 구호를 들고 주로 지배계급출신의 상층인물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하였다면 이 시기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일반 민중을 계몽함으로써 나라의 문명개화를 이룩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자주독립을 고수하려고 하였으며 자본주의적사회제도를 세우려는 구체적인 구상과 전망을 가지고있었다. 다시말하면 이 시기에 와서는 계몽대상이 바뀌었고 운동은 더욱 대중적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조직화되었다. 이 시기에 계몽운동단체들이 수많이 조직되고 많은 교육기관이 창설되었으며 출판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1906년에 《대한자강회》가 창설된것을 위시로 《대한협회》, 《서우학회》, 《서북학회》, 《기호학회》, 《교남학회》 등이 속속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의 목적과 활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인민을 깨우치고 국력을 배양하는 길이 오로지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우선 안으로 애국심을 배양하고 밖으로 선진문명과 학술을 흡수하여 주저함이 없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국권을 회복할》(《자강회》창립취지서)것을 목적하였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목적밑에 각각 기관지를 발간하여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단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낡은 사회의 이러저러한 병폐를 신랄히 폭로비판하고 그 개혁의 필연성을 력설하였으며 다른 나라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경험과 새로운 과학문화를 널리 소개하였

다. 근대적인 인쇄기술의 도입은 이 시기 대중적출판활동을 보장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되었다.

이미 19세기말엽에 와서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봉건적신분제도의 쇠사슬은 끊어졌고 경인간(서울~인천—1899년) 및 경부간(서울~부산—1904년)에 철도가 개설되어 기차가 달리고 서울장안에 전차가 통하여 과학문명의 위력을 사람들이 직접 눈앞에 볼수 있었던 그만큼 계몽운동의 대상으로 되는 인민대중도 훨씬 각성되어있었다.

이러한 주객관적요인에 의하여 이 시기 사회정치단체들의 기관지들은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위력한 무기로, 신문화보급의 주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1883년에 창간된 《한성춘보》를 비롯하여 1896년의 창간인 독립협회 기관지 《독립신문》과 기타 《제국신문》(1898년), 《황성신문》(1898년), 《대한매일신보》(1905년), 《만세보》(1906년) 등이 모두 그러하였다. 이와 함께 각 학회들의 기관지인 《서우》, 《대한학회월보》, 《태국학보》, 《기호학회월보》들과 《조양보》, 《야뢰》, 《소년한반도》 등 정치문화의 종합잡지와 《수물학잡지》, 《상학계》, 《법률학계》와 같은 전문잡지들이 간행되어 계몽적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출판물들은 인민들의 깊이 든 잠을 깨우치는 《야뢰—밤의 우뢰》로서 힘있게 솟아오르는 《조양—아침해》로서, 또는 광활한 포부와 빛나는 희망을 품고 래일의 휘황한 발전을 기약하고있는 《소년조선》으로서 자처하였다. 이 신문, 잡지들에는 호마다 열렬한 애국적정론들과 계몽적성격의 해설론문들과 문예작품들이 게재되었는데 여기서 시가작품들도 계몽운동의 기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이 《계몽시가지집》에 수록한 작품들의 대부분(구전가요와 의병가요를 제외한)이 이 시기 신문, 잡지들에서 추린것이다. 이 시가작품들은 그 형태가 서로 다르고 주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열렬한 애국적감정과 문명개화에로의 지향을 반영한 공통성을 보여주고있으며 계승과 혁신의 합법칙적과정을 증시하고있다.

이 시기 산문작품들이 많은 경우에 애국적인 계몽사상가들의 손으로 씌여진것처럼 시가도 주로 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창작보급되었으나 산문과는 달리 시가창작에는 보다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것은 시가의 형태상특성과 관련되어있다.

시가는 현실에 대한 느낌과 체험세계를 그대로 토로하며 짧은 형식으로 완결된 사상을 담을수 있는것만큼 지식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사람들도 지을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속에서 불려지면서 집체적지혜에 의하여 보태여지고 다듬어져 사상에술적으로 더욱 원숙한것으로 완성될수도 있다. 인민창작인 민요들과 의병가요들은 말할것도 없고 신문, 잡지에 실린 많은 시가작품들이 작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시기 문학분야에 나서고있던 시대적과업에 의하여 계몽기시가의 내용과 형식에서는 거대한 변화발전을 가져왔다.

말하자면 중세기를 고별하고 근대사회의 새 아침을 맞으려고 몸부림치고있던 때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책동으로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처하였던 당시 진보적문학앞에는 인민들을 자주독립과 민권옹호사상으로 교양하며 문명개화를 위한 투쟁으로 호소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었던것이다.

이러한 시대적과업에 의하여 시가문학의 주제사상이 규정되고 그 형식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이 시기 시가문학은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새 아침을 고하는 우렁찬 진군나팔, 시대의 메아리로 온 나라에 울려 퍼졌으며 침략자와 그 주구배들을 단죄하고 그 가슴팍을 노리는 서슬푸른 창검으로 되었다.

계몽기시가문학의 기본주제는 크게 나라의 자주독립과 문명개화, 일제의 침략책동과 친일파들의 매국행위에 대한 단죄로 나누어볼수 있으며 매개 작품들은 이러한 주제사상을 구체적인 생활자료와 체험세계에 기초하여 특색있는 시형상으로 실현하였다.

《구전가요》와 의병가요는 그 작자와 출처가 알려져있지 않은 인민창작을 묶은것이다. 의병가요는 의병투쟁에 떨쳐나서 손에 무장을 든 농민들—의병전사들의 노래라면 여기 《구전가요》부류에 묶어진 가요작품들은 보다 광범한 계층들에 의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불려진 노래들이다. 《꿈을 깨라》, 《학도가》, (1), (2), (3), 《강습의 노래》, 《문맹퇴치가》, 《문맹타파가》, 《국문가》, 《신산념 불》, 《신이팔청춘가》, 《새벽종소리》, 《녀자의 설음》, 《부녀해방가》, 《금주가》 등은 그 제목과 주제사상 및 시형식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애국문화계몽운동에 망라된 지방의 선각자들과 청년들에 의하여 창작되어 불려진

창가들이라면 《회야 회야 일진회야》, 《도적이 들어와 호응》으로부터 《패말뚝》, 《토지조사반대의 노래》, 《농부타령》, 《원썬로다》, 《왜놈 종자야》, 《검자둥아》, 《십진가》, 《동도타령》 등은 전통적인 민요조로 불려진 농민들의 노래이다.

앞부분의 창가조의 노래들이 봉건을 반대하고 문명개화어로 호소한 계몽적성격이 주정을 이루고 있다면 뒤부분의 민요조의 노래들은 일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풍자조소하는 예리한 비판이 주정을 이루고있다.

이 작품들이 민간에서 불려지던것을 수집하였고 작자와 출처를 알수 없다는데서 《구전가요》로 취급하였지만 종래의 민요들에 비하여 사상적지향이 명백하고 시가형식도 훨씬 정제되어있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동방의 붉은 해빛 명랑한곳에
갱생의 큰 종소리 요란하지만
눈멀고 귀먹으면 어찌 알리오
눈뜨고 귀밝히자 우리 동무야
낮에는 전가근력 농사 힘쓰고
밤에는 일심전력 공부하여서
농촌을 일취월장 갱생시키고
아름다운 우리 조선 건설해보세
동리에 해는 지고 황혼이 올 때
요란히 들려오는 야학종소리
귀하다 은혜로운 계몽운동은
방방곡곡 온 천하에 불붙듯하네
문맹은 이 세상의 락후자이요
학문은 문명이니 자랑이로다
깊이 든 잠 어서 깨어 힘써 배워서
명랑한 문화조선 건설해보세

이것은 《문맹퇴치가》의 전문인데 가사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절가 형식의 정제성에 있어서 전형적인 창가라고 할수 있으며 그것도 이 선집의 창가편에 수록된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구전가요편에 실은 이런 창가조의 작품들중에는 이

미 출판물에 발표되어 인민들속에서 불리워오다가 수집된것도 있을수 있으나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일일이 고증하지는 못하였다.

의병대오에서 불려진 군가로 볼수 있는 《행보가》, 《의병대가》, 《군바바》, 《병정가》, 《독립가》, 《길군악》 등 의병가요들은 농민들이 그 기본성원을 이루고있던 의병들의 애국적기개와 생활정서를 반영하고있다.

무쇠팔격 돌근육 청년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청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이렇게 시작되는 《행보가》는 의병대가 대오를 지어 행군하면서 발맞추어 부르던 새로운 서양식행진곡조의 군가라고 한다면 《의병대가》, 《병정가》, 여러 변종의 《길군악》 등은 농민청년들의 생활감정을 전통적인 민요조로 부른 의병들의 노래이다.

5련발 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승대 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에헤야 에헤야 에헿에헿 에헤요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의병대가》제1절)
거동봐라 거동봐라
임종현이 거동봐라
서산나귀 손질하여
순금안장 지어타고
해주성내 둘러싸고
우지끈지끈 총소리낼 때
해주감사가 앞발루 뚫다
어화둥둥 어화둥둥
에헤 어미타불
만관 멋으루 달려간다
시화년풍 돌아온다
(《병정가》제1절)

보는바와 같이 군대의 노래이면서 민요조로 불려지게 된것은 당시 의병들이 농민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조직되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 시기 출판물에 발표된 애국적시가로서는 시조, 가사, 창가, 신체시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작품들이 있다.

시조와 가사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민족시가형식인데 계몽사상가들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호소하는 열렬한 애국사상을 이 형식들에 담아 노래하였다.

이 《계몽기시가집》에는 《대한매일신보》(1908년 12월 1일호)에 발표된 《애국집》을 위시하여 거의 매호에 한수씩 련속 게재된 50여수의 시조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이 작품들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에 따르는 인식교양적의의뿐만아니라 문학발전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계승과 혁신의 합법칙성을 리해하는데서도 의의가 있다.

이 시조들은 이 시기 애국시가문학의 기본주제들을 다 다루고있지만 일제의 강박으로 1905년의 《을사5조약》, 1907년의 《정미7조약》이 날조된 이후시기의 창작인것으로 하여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하여 작성하고 분발할것을 고취한 작품들이 압도적다수를 이루고 있다.

황종이 우는곳에
만물이 다 봄이라
화풍세우에
만산화류 새빛을 띠였어라
우리도
문명풍조에
새 정신을
(1909. 1. 5.)

《신정신》의 표제로 된 이 작품외에 《배양력》, 《이목 총명한들》과 같은 문명개화를 주제로 한 작품은 서너덧편에 지나지 않으며 그대신 자주독립에 관한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시적형상으로 노래되고있다. 시조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을, 《화채비결》은 애국선렬들의 위국충절을, 《단체력》은 국가홍복의 중한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일심단결할것을, 《송의리》는 뜰가에 푸르른 저 송죽처럼 국민의무 굳게 지켜 의리를 자랑할것을 뜨거운 서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차호라 조선동포들아
이내 말삼 들어보소
삼천리는 금수강산이오
이천만은 금수대우로다
어찌타
금수강산 생긴 몸이
금수대우
(1908. 12. 29.)

시조 《면금수》는 이렇게 삼천리 조국강토는 금수강산으로 이름높지만 이 강토에 태어나 생을 누리는 이천만동포는 외래침략자들의 강점하에서 금수—김승대우를 받고있으니 될말이냐고 겨레의 심장에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시조들중에는 이러한 열렬한 애국심으로부터 일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들을 만신의 증오를 담아 날카롭게 단죄하고있는 작품들도 있다.

날타 길타 호응
네 어디 갈소냐 흥
요놈의 난장아
네 명이로다 아
어리화 호응
네 가련하구나 흥
(1909. 3. 4.)

시조 《가련명》은 이렇게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될 가련한 운명에 있는것으로 은유적수법에 의하여 단죄한 작품이고, 《조요경》, 《대청결》, 《저렇듯》 등은 부귀영화를 탐하여 나라와 겨레를 팔았으나 인민들의 규탄앞에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면서도 온갖 간악한짓을 다하는 매국역적들의 추악한 정체를 폭로규탄하고있다.

남산의 늙은 여우
언덕밑에 은신하여
일시방심 제 못하고

피흉추길 애만 쓴다
아마도
부간부폐 간신배는
여우 후신
(1908. 12. 13.)

이 시조 《조요경》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썬들을 단죄하는 작품들은 모두 비유와 상징적수법을 쓰고있다. 그것은 1908년—1909년에는 일제가 내정과 외교의 모든 국가권력을 손아귀에 거머쥐었으며 그 그늘밑에서 친일파, 매국역적들이 추악한 꼭두각시놀음을 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포악한 탄압을 함부로 하고있던 사정과 관련된다. 또 이 주제의 작품이 량적으로 많지 않은것도 이때문이다.

이 작품들은 시조의 창조자들이 초장, 중장, 종장의 단시형식인 시조의 기본률조를 따르면서도 그 주제사상적내용에 상응한 새로운률조를 찾아내기 위하여 진지한 창조적탐구를 기울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시조는 우선 시조 본래의 3행시형식을 7행으로 나누어 표기한데서, 《막방도》, 《가련명》과 같이 5행 또는 6행으로 나누고 민요조의 《어리와 좋다 흐음/ 지아자 좋을시구 흥》이라든가 《어리와 흐음》과 같은 조흥구를 붙여서 민족적정서를 더 한층 강화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리고 시조들중에는 《대장부》와 같이 사설시조형식을 취한 작품들도 있으며 《영춘》, 《일이서》, 《설중매》, 《운폐일》 등과 같이 옛시조의 초중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두고 종장만을 새로 지어넣은 작품들도 있다.

매화 옛등걸에
춘절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마다
봉울봉울 맺히도다
춘설이
제 아모리 차다한들
피는 꽃을
(《설중매》 1909. 1. 10)

이러한 작품들은 인민들속에서 잘 알려져 널리 불리워지고있던 시조들로서 여기에도 작가의 세심한 창작의도가 깔려있는것을 엿볼수 있다.

이 시기에 가사형식에 새로운 시대사상을 담은 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어 하나의 시가군을 이루고있다. 이 시기 가사작품의 주요한 특징은 일제의 침략행위와 그 앞잡이 매국역적들의 추악한 죄행을 예리한 풍자적필치로 폭로규탄하고있는것이다.

1909년 4월 25일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개꼬리 삼년》은 《삼삼오오 작당하여 경향 각지 출몰하여 도적질에 분주한》 일본인이 개명했다 자칭하나 하는것은 《짐승》이요 《야만》이라고 침략자의 정체를 폭로단죄하고있으며 《춘성유람》도 따듯한 봄날 한낮에 소풍하러 거리에 나갔다가 온 성안에 울음소리 랑자하여 통곡하는 아이들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일제침략자들이 여러 백년 전해오던 토지가옥과 남북전답 지어 산정별당 행랑까지 모두 차지하여 제것으로 만들자고 책동하고있는 엄혹한 현실을 까밝히면서 울고 앉아있지만 말고 《너이기리 정신차려/일심단합한 연후에/백절불굴 할량이면/제아모리 포악해도/범할수가 없느니라》고 고무하고있다.

시와는 달리 《득의천지》는 《나라권리 원통 주교 일시 세력 빌어얻어 자기 지위 높이고 《일순경 보호밑에 앞뒤에 인력거라 외인의 개가 된 각대신의 활개짓》, 《외인에게 목이 매워 제정신을 다 버리고 자위단을 조직하여 동포형제 잔인하는 일진회의 활개짓》 등 리완용류의 대신으로부터 일진회, 순검나리, 탐보군, 일본관인, 문군수, 보부상, 개화군 등 일제의 개가 되고 끄나불노릇을 하는 친일파, 매국역적들을 풍자적으로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가사 《필하단평》, 《송병준아》, 《피뢰세계》 등도 주제의 성격으로 볼 때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가사 《한탄세계》와 《병문수작》, 《농가》 등은 각계각층 모든 인민들이 못살게 된 당시 나라의 비참한 실정을 제시하면서 일제침략자들과 친일파, 매국노들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고발하고있다

가사들은 형식면에서 《한탄세계》나 《필하단평》과 같이 4·4조로서 분절되지 않은 작품들도 있으나 《병문수작》, 《춘성유람》, 《피뢰세계》 등은 절이 갈라지게 씌여져있다. 이것은 가사가 초기 창가형식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말해준다.

창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주로 계몽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한 운문시 가로서 당시에 새로 받아들인 서양음악에 맞추어 불려진 노래의 가사 부분을 말한다. 물론 그후에 오면서 창가의 주제영역은 확대되었고 창가의 개념자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으로 바뀌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출현한 당시에 《○○가》의 제목으로 출판물에 실린 시가작품들이 모두다 곡이 붙여져 노래로 불려진것은 아니며 다만 언제나 불려질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을뿐이다.

처음에는 애국자들, 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자주독립과 문명개화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을 종래의 민요, 가사 형식에다 담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리하여 음률상으로 3·4조, 4·4조가 압도적다수를 차지하였다.

1896년에 《독립신문》지상에 발표된 초기작품들인 《동심가》(5월 26일 리중원 작), 《신문가》(6월 2일 김교익 작), 《애국가》(7월 7일 리용우 작) 등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기본사상에 있어서나 형식면에서나 많은 공통성을 가진다. 《동심가》는 전체 인민이 마음을 같이하여 문명개화를 할 필요성을 력설하고 그러기 위하여 남의 힘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실천이 요구된다는 사상을 고취하였다면, 《신문가》는 초당에 깊이 든 잠을 깨워 문명개화를 이룩케 할 신문의 의의와 역할을 찬양하였고, 《애국가》는 상하가 모두 군사가 되어 조국을 지켜나가자는 노래인데 결국 이 노래들은 전체 조선인민이 단결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문명개화하고 부강하게 만들자는 사상에 있어서 동일하며 그리고 모두 4·4조가 기본률조로 되어있다.

잠을 깨세 잠을 깨세
사천년이 꿈속이라
만국이 회동하야
사해가 일가로다

(《동심가》의 앞부분)

초당에 깊이 든 잠

뉘라서 깨려는고
 구천을 바라보니
 미인옥루 어디메요
 창외에 더딘 날이
 삼간이 높아서라
 우연히 오는 말씀
 우리 조선 신문이라
 (《신문가》의 앞부분)
 대조선국 인민들아
 이사위한 애국하세
 충성으로 님군섬기
 평안시절 행복하세
 (《애국가》의 첫부분)

이러한 가사형식의 작품들은 후에 창가로 노래불러지면서 일정한 행수에 의하여 수개절로 구분되었다.

당시에 애국문화계몽운동이 더욱 대중적으로 전개되면서 청년들은 다투어 상투를 자르고 《신학문》을 배우려고 학교로 몰려갔다. 청년들은 오래인 잠에서 깨어나 광활한 포부와 희망을 안고 학습과 조련(군사훈련)에 열중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열렬한 정치청년이었고 웅변가였으며 우렁차게 노래창가를 부르며 발맞춰나가는 조국보위자였다. 종래의 시조나 가사를 그대로 읊는것은 힘차게 활개치며 전진하는 이들의 호흡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의 전진속도에 알맞는 노래로서 창가가 등장하게 되는것이다.

같은 해 1896년 《독립신문》에 실린 《독립가》(최병연)는 4·4조이면서 4행 1절로 분절되었을뿐아니라 4·4조 4행의 후렴구가 절마다 붙어있다.

천지만물 창조후에
 오주구역 천정이라
 아시아주 동양중에
 대조선국 분명하다
 (후렴)

독립기초 장구슬은
군민상에 제일이라
기쁜 날 기쁜 날
대조선국 독립한 날

그후 민족적자각을 고취하여 인민들을 문명개화의 길로 부르는 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작가들이 수많이 창작되면서 현실의 발전과 함께 구체적인 소재는 달라졌으며 현실을 보는 각도와 심도도 달라지고 그 룰조도 점차 변하여갔다.

널리 불려진 《권학가》(《서우》1907년 4호)나 《학도가》, 《상봉유사》(《대한매일신보》1906년) 등은 이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다. 《권학가》나 《학도가》의 기본사상도 또한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청년들이 힘써 배우자는것이다. 그런데 《생존경쟁 당차시대에, 국가흥망이 내게 달렸네》로 시작되는 《권학가》가 5·5조라면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패종을 들어보아라...》는 6(3·3) 5조이며 《상봉유사》는 기본적으로 4·5조이다.

이러한 시가룰조의 변화는 그 작품들의 사상정서의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권학가》나 《상봉유사》는 1905년 《을사5조약》에 의하여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 울분과 비장한 정조가 흐르고있으며 이에 따르는 새로운 룰조가 창조되어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반가운 듯이 은근한 중에
오늘날에 다시 만나니 나라 생각 더욱 끊었네
언제나 언제나 독립연에 다시 만날가
청년들아 참 분하고나 저 원썩를 다 몰아내고
저 원썩가 참 분하고나 소평천하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개선가를 높이 부를가

이렇게 시작된 3행시 5절의 《상봉유사》에는 초기의 작가들이 일반적호소로 문명개화하고 자주독립하자고 하던데 비하여 이미 침략자의 울가미가 씌워져 괴로움을 당하고있는 심각한 체험이 안받침되어있다.

시는 조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국가흥망의 책임이 오로지 청년들의 두어깨에 지워져있는만큼 락심말고 분발할것을 호소하면서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것이라는 다짐으로

끝나고있다.

《권학가》에서도 《노예희생의 치욕》을 씻기 위하여,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승냥이법칙이 좌우하는 《생존경쟁 당차시대에》 국권을 회복하고 동포를 구제하기 위하여 《혈루를 휘쇄하고 분발심으로》 학문일사에 헌신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이 노래들에는 원수들—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증오심, 어려운 현실적과업을 자각하고 한몸 바쳐 수행해나갈 비장한 각오와 결의가 표현되어있으며 형식은 후에 오는 신체시에 접근하고있다.

그러나 이 시기 창가작품들이 모두다 이러한 사회정치적의의가 있는 적극적인 주제를 다루고있는것은 아니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광분하면서 그러한 음흉한 목적실현에 제놈들의 직접적통제밑에 있던 학교교육을 악용하였으며 음악교육의 교재로 되는 《창가》에서도 사회정치적주제의 작품들을 거세말살하도록 강요하였다.

당시 피뢰정부《학부》에서 출판한 《보통교육 창가집》 제1집에 27편의 창가작품이 실렸는데 그것들은 《안—기리기》, 《월—달》, 《지연과 땡이》, 《시계》, 《토와 구—토기와 거부기》, 《접—나비》, 《이앙—모내기》 등등 자연풍경을 노래한것이 대부분이고 인간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회적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학문가》, 《친—아버이의 은》, 《사—스승의 은》, 《선우—착한 벗》 등이 있으나 그 주제사상적내용은 대부분이 사회계급적성격을 거세한 봉건적륜리도덕을 고취하는것이였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통적인 민족시가형식인 시조와 가사, 새롭게 형성발전한 창가에 이르기까지 《계몽기시가》는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많은 공통성을 가지며 애국문화계몽운동의 힘있는 수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의병가요와 시조, 가사는 말할것도 없고 새로 발생한 창가까지도 포함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서 일련의 제한성을 드러내였다. 우선 그 작품들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창작가자신들의 계급적제한성을 발로시켰다. 의병가요들이 봉건적충의사상에 기초한 애국 일반을 고취하고 문명개화의 근대적지향과 결합되지 못하였다면 애국문화계몽사상을 반영한 시가작품들은 반일의병투쟁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창가까지도 포함한 이 시기 애국적시가들은 부르쥬아민족주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를 주장하였으나 일제침략을 반대하고 봉건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형식면에서도 정형시의 틀에서 벗어져나오지 못하였고 일반인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투의 표현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1908년 최남선(1890~1957)에 의하여 발간된 잡지 《소년》에 게재된 그의 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신시—신체시 발생의 고고성으로 되었다.

티—근씩 티—근씩 쇠—아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태산같은 높은 뿔 집채같은 바위돌이다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처—근씩 처—근씩 튜르릉 콧

7행 6련의 이 시는 보는바와 같이 가사나 창가와는 달리 매 시행의 음수률이 서로 같지 않으며 시인의 사상정서를 표현하는데서 훨씬 자유로운것으로 되어있다. 《소년》 창간호에는 같은 시인이 창작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것 없소》로 시작되는 다른 또 한편의 시가 실렸는데 이 작품도 매 시행의 음수률이 서로 같지 않고 꽤 자유롭게 되어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것 없소
 칼이나 룩혈포나
 그러나 무서움 없네
 철장 같은 형세라도
 우리는 웃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것 짐을 지고
 큰길을 걸어가는 자일세
 우리는 아무것도 지닌것 없소
 비수나 화약이나
 그러나 두려움 없네

면류관의 힘이라도
우리는 웃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것 광이삼아
큰길을 다사리난 자일세
...

이 시들은 다 같이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광명한 미래에 대한 소년다운 포부와 신심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도 앞에서 본 가사나 창가들에 비하여 사상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것이 아니라 시인의 체험세계를 보다 정서화하여 표현하고있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이 시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던 당시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명확히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형식면에서도 매련의 해당 시행이 같은 시를을 반복하고있고 시적표현에 참가투가 일부 남아있다.

근대시로서의 이 시들의 이와 같은 미숙성은 당시 반봉건적인 사회정치력량의 취약성, 이미 일제가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거쳐 우리 나라의 내정과 외교권을 강탈하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있던 현실과 특히 작자인 최남선이 인민운동과 련결되지 못하고 사회정치적단련이 없으며 세계관이 확립되지 못한 18살의 소년이였다는 제반 사정을 반영하는것이였다고 보아진다.

《소년》지는 호를 거듭하면서 잡지의 주간이었던 최남선자신의 작품들(적지 않은 경우 공륙, 공륙식이라는 필명으로 발표)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쓴 《우리의 운동장》, 《농부가》, 《별》등 시작품들을 적지 않게 실었는데 운률과 시행 조직에서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들은 이렇게 현실에 대한 시적인식과 표현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유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시조나 가사의 정형률을 깨뜨리고 창가의 틀에서도 벗어나 우리 나라 시문학사에서 자유시에로의 길을 열어놓은 선구자적의의를 가지며 지난 시기 낡은 시형식과의 대비에서 새롭다는 의미로 신체시, 신시로 불리우게 되었다.

최남선은 소년들을 계몽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등 잡지들을 계속 간행하여 새 문화의 보급에 힘썼

으며 우리 나라에서 첫 종합잡지 《청춘》(1914년)을 간행하기도 하고 《신문관》, 《조선광문회》 등을 창립하여 나라의 귀중한 민족고전들을 널리 수집 보관하고 간행하는 사업도 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조선독립선언서》 작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 3년간 일제감옥에 갇혔다가 출옥한후에도 주간지 《동명》, 신문 《시대일보》를 발간하는 등으로 당대의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최남선은 일제의 탄압이 날로 더욱 강화됨에 따라 20년대 후반기에 와서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위원회》위원, 《중추원》 참의 등 칙령자의 벼슬을 받아물고 놈들의 식민지통치에 협력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나중에는 력사가로 행세하면서 상전이 쥐여준 각본에 따라 피뢰 《만주제국》의 관리를 양성하는 《건국대학 교수》가 되고 일본 신도 《간나가라노미찌》에 대한 라디오방송을 하여 조선청년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칙령전쟁에 내모는 순회강연을 하는 등 괴롭치한 반역행위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과를 저질렀다.

이 시기에 와서 사회정치적주제의 신시창작에서는 손을 떼고 정치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신변잡사와 《정신적고뇌》를 낫은 시조형식으로 읊조린 작품들을 묶은 시조집 《백팔번뇌》를 낸데서 그의 사상정치적 변질상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다 부서지는 때에 혼자 성키 바랄소나
 금이야 갔을망정 벼루는 벼루로다
 물은듯 단단한 속은 알이 알가 하노라

《꺼진 벼루의 명》이라는 제목의 이 시조는 민족적지조를 팔아버린 반역행위에 대한 구차스런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이런 따위의 작품들과 그의 이러저러한 추악한 친일행위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각성시키고 민족문화를 진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이 《계몽기시가지집》에는 1910년 일제강점이전에 간행된 《소년》지에서 그의 작품 7편을 포함한 신체시의 일부를 추려서 실었다. 그것은 근대적의미의 자유시를 창작하기 위한 시문학운동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애국문화계몽운동 시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 독자들에게 우리 나라 시문학발전의 로정을 정확히 리해하도록 도움을 주자는데 있다.

김하명

구전가요 및 의병가요

꿈을 깨라

꿈을 깨라 꿈을 깨라
4천년꿈 웬말이나
동창이 밝아온다
자리차고 일어나라
2천만 내 동포야
두다리라 큰종을
만민이 동결하면
큰산인들 못가를라

S01.str id=1745

강습의 노래

남산에 송림은 푸르러오고
두만강 굽이돌아 흘러가는곳
이품으로 일러놓은 수동동네

우리 녀성 강습회가 저기 있도다
나아가 배우자
물나니 월계가 우리에게 오도록

S01.str id=1746

학 도 가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패종을 들어보시오
한소래 두소래 가고 못오니
인생의 백년간이 주마갈도다
권하고 권하다 가는 광음은
일분과 일분이 직천금일세
문명의 좋은 사업 감당하려면
소년의 강장시가 마땅하도다

S01.str id=1747

학도가 (1)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우리는 덕을 닦고 지혜 닦아서
문명의 선도자가 되어봅시다

S01.str id=1748

학도가 (2)

신문화 벽두초에
선도자의 책임중요
사회진보 기대앞에
개량자된 의무 크다

학 도 가

학도야 학도야
 저기 청산을 바라보아라
 고목은 썩어지고
 영목(주해-1)은 솟아있네
 소년의 공부
 백수(주해-2)에 예비함이라

- 1 영목=새로 자라는 어린 나무.
- 2 백수=흰 머리카락, 흰 수염.

문맹퇴치가

+ 문 맹 퇴 치 가

동방에 붉은 해빛 명랑한곳에
 갱생의 큰 종소리 요란하지만
 눈멀고 귀먹으면 어찌 알리요
 눈뜨고 귀밝히자 우리 동무야
 낮에는 전가근력 농사 힘쓰고
 밤에는 일심전력 공부하여서
 농촌을 일취월장(주해-1) 갱생시키고
 아름다운 우리 조선 건설해보세
 동리에 해는 지고 황혼이 올 때
 요란히 들려오는 야학종소리
 귀하다 은혜로운 계몽운동은
 방방곡곡 온 천하에 불붙듯하네

문맹은 이 세상의 락후자이요
학문은 문명이니 자랑이로다
깊이 든잠 어서 깨어 힘써 배워서
명랑한 문화조선 건설해보세

S01.str id=1751

문맹라파가

+ 문 맹 라 파 가

귀있고도 못들으면 귀머거리요
입가지고 말 못하면 병어리지
눈뜨고도 못보는 글의 소경은
소경에도 귀머거리 또 병어리라
듣는 대신 보란 글을 보도 못하니
귀머거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말하듯이 써낼 글을 쓰도 못하니
병어리가 이 아니고 그 무엇이뇨
남과 같은 눈과 귀 입 다 가지고서
한평생 이 설음을 어찌 받으랴
알기 쉬운 우리 글을 맘만 있으면
아무리한 둔재라도 다 깨치더라
낫놓고도 ㄱ자를 누가 모르리
창애등 ㄴ은 절로 알리라
자 들고 세로 재면 丨자가 되고
홍두깨 가로 놓면 一자 되네
질맛가지 ㅅ에 ㅈ뚜레 ㅉ 지게다리 ㅊ자를
뒤집으면 ㅋ자
교무래 쥐고보니 ㆁ자가 되고
거꾸로 놓고보니 다시 ㄴ잘세
세발가진 쇠스랑을 ㄷ자라면
자루 빠진 연감개는 ㅈ되리라
크은 두발가진 모지랑갈퀴

허리동인 쪽집개는 ㅂ이로군
 팔다리 벌리고 선 ㅈ보아라
 뱀처럼 몸을 서린 ㄱ도 있네
 측량판 벌려놓니 ㅈ자로세
 동이우에 솔두께는 ㅎ아닌가
 꺾쇠는 ㄷ인데 모말은 ㅁ
 문고린가 가락진가 ㅇ자로세
 눈에 띄는 물건마다 글자로 보니
 아무리 잊으려도 잊히지 않네
 낮처럼 생긴 ㄱ 지게다리 ㅂ
 가로 맞춰 놓으면 가자도 되고
 모말같은 ㅁ을 그밑에 대면
 새빨간 먹기 좋은 감자가 된다
 꺾쇠같은 ㄷ과 광명두 ㄱ를
 우아래로 이어놓니 도자 아닌가
 창애등 ㄴ을 또 이어나라
 죽을놈도 살려내는 돈이란 자다
 이와같이 이리저리 둘러맞추면
 입으로 하는 말은 못쓸것 없네
 하루 한자 이를 두자 새새틈틈이
 이러구러 이천만의 대중 다 알리

S01.str id=1752

국문가

《ㄱ》자 하나 쓰고보니
 기억하세 기억하세 국가수치 기억하세
 우리 조선 독립하면 영원만세 무궁토록
 강구연월(주해-1) 태평가에 자유복락 누리련만
 금일 수치 생각하면 죽기전에 못잊겠네
 《가》자 한자 쓰고보니
 가련하다 우리 동포 국대척 (주해-2) ㅇ하는 모양

고향곳이 전혀 없네 무지불인(주해-3) 창귀
 (주해-4)는
 월급분에 탐이 나서 외인에게 침부하(주해-5)야
 자가형제 상잔하니 기가 막혀 못살겠네
 《나》자 한자 쓰고보니
 나라 파는 저 대관은 남산첩경(주해-6) 쫓아가서
 혼야결애(주해-7) 일만삼고 자가사는 불홀하니
 권고해도 불청이요 론박해도 무용이라
 답답할사 이내 심회 저 인물은 어찌할고
 《다》자 한자 쓰고보니
 달아나는 저 세월을 만류할자 누구 있나
 류수같이 펄펄 흘러 한번 가면 그만이라
 일본일초 허송 말고 국가사업 연구하야
 청년시기 몰실하고(주해-8) 주야용진하야보세
 《라》자 한자 쓰고보니
 라망사렐(주해-9) 이 세계에 솟아날곳 바이 없다
 아무쪼록 정신차려 고식지계(주해-10) 다 버리고
 모험사상 길러내어 회회망망(주해-11) 이 천지에
 저 그물을 걷어내고 자유행동 하야보세
 《마》자 한자 쓰고보니
 마옥(주해-12)중에 빠진 백성 두고서는 못죽겠네
 살아 생전 갈력하야 우리 동포 침해자를
 일호 구제 몰아내고 렬강국과 병가하야
 오양륙주 너른 대지 우리 국광 빛내보세

- 1 강구연월=큰거리에 흐르는 안온한 풍경.
- 2 국대=몸을 많이 굽힘.
- 3 무지불인=무식하여 어리석고 어질지 못함.
- 4 창귀=먹을것이 있는곳으로 범의 앞장에 서서 인도하여준다고 하는 나쁜 귀신, 남이 못된짓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에 비유.
- 5 침부=아침하여 그 사람에게 불음.
- 6 첩경=지름길.
- 7 혼야결애=깊은 밤 사람없는 틈을 타서 권세있는 사람에게 애걸함.
- 8 몰실하고=잃지 말고

- 9 라망사렐=그물이 사방에 쳐있음.
- 10 고식지계=당장에 편한것만 취하는 계책.
- 11 회회망망=넓고 아득함.
- 12 마옥=마귀의 소굴같은 지옥, 지옥을 말함.

S01.str id=1753

할일이로다

천하사를 경영할제
 지진두(주해-1)가 될지라도
 퇴보말고 립난인내(주해-2)하야
 사필귀정(주해-3)하란것도
 대장부의 할일이로다
 (후렴)

에헤루 상사디여
 천리준총(주해-4)채를 쳐서
 흉해(주해-5)가 험씩늘어서
 만고문장된 연후에
 도처마다 웅사건필(주해-6)
 경동일세(주해-7)하는것도
 대장부의 할일이로다
 (후렴)

에헤루 상사디여
 국내청년 몰아다가
 교육계에 집어넣어
 각종학문 교수하여
 인재양성 하는것도
 대장부의 할일이로다
 (후렴)

에헤루 상사디여

- 1 지진두가 될지라도=앞길이 막힐지라도.
- 2 립난인내=곤난을 참고서.

- 3 사필귀정=일을 반드시 바로잡는다.
- 4 천리준총=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좋은 말
- 5 흥해=가슴.
- 6 웅사건필=훌륭한 문장.
- 7 경동일세=한세상을 놀라게 한다

S01.str id=1754

신산념불

무정광음이 나를 위해
 지체할리 만무로다
 건곤(주해-1)은 불로월장재이나
 인생(주해-2)은 부득항소년이라
 작일청춘이 금일백발이니
 후회막급을 생각마오
 근자성심 학문을 배와
 문명의 지식을 확충해보세
 일보이보 삼사보라도
 말지 않으면 만리 가네
 정신일정(주해-3) 이르는곳에
 금석이라도 가투로다
 학문지식이 부고명하면
 만리전정이 무궁할세
 우리가 청춘에 량도(주해-4)를 말아야
 백수당년 쾌락일세
 백수쾌락은 제한물이니
 장래청춘을 지도하오
 우리 살면 천백년 사나
 살아생전을 허송을 말세
 유지하야(주해-5) 공유적이면
 명전천추에 광명이라
 무정광음이 약류파는

우리를 위하여 지체않네
내나누나요 나니난실나요
내나지에루 념불이로다

- 1 건곤은 불로월장재=자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
- 2 인생은 부득항소년=인간은 항상 젊어있을수 없다.
- 3 정신일정 이르는곳에 금석이라도 가투로다=열성만 있으면 쇠나 돌도 가히 깨꿨을수 있다.
- 4 량도=탕도 즉 허송.
- 5 유지하야 공유적이면=뜻이 있어 공을 쌓아올리면.

S01.str id=1755

새벽종소리

이른새벽 들려오는 저 종소리
우리 집 식구들 잠깨란 소리
두번째 들려오는 저 종소리
우리 동리 사람들 꿈깨란 소리
세번째 들려오는 저 종소리
우리 사회 우리 동무 꿈깨란 소리

S01.str id=1756

신이팔청춘가

이팔은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봄시다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고나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허송을 할가나

노지를 말어라 노지를 말어요
 젊어서 청춘에 노지를 말어라
 우리가 젊어서 노지를 말어야
 늙어서 행복이 자연히 이르네
 청춘에 할일이 무엇이 없어서
 주사와 청루(주해-1)로 종사를 하느냐
 바람이 맑아서 정신이 쾌커든
 좋은 글 보며는 지식이 늘고요
 월색이 명랑에 회포가 일거든
 옛일을 공부코 새일을 배우소
 근근코 자자이(주해-2) 공부를 하며는
 덕윤신(주해-3) 하고요 부윤옥(주해-4) 하리라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 사나요
 살아서 생전에 사업을 이루세
 정신을 깨치고 마음을 경계해
 이팔의 청춘을 허송치 말어라

- 1 주사와 청루=술집과 기생집.
- 2 근근코 자자이=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움.
- 3 덕윤신=덕있는 사람은 몸까지 윤택하다는 뜻.
- 4 부윤옥=집안이 부하고 윤택하다.

S01.str id=1757

여자의 설음

슬프도다 이내 몸은 여러해동안
 독수공방 랑군생각 간절했건만
 오늘날 비로소 랑군 만나니
 뜻밖에 리혼이라 떨쳐버리네
 여보시오 랑군님 내 말 들어보
 무슨 일로 나의 몸을 떨쳐버려요
 당신이 류학한후 혼자 있어서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셔왔지요
부모님께 불효함이 없지요마는
당신이 자초에 허물있어요
여보시오 나의 자체 허물인것은
공부 못한 이것이 허물이로다
공부한 녀자만 녀자가 되고
공부 못한 녀자는 녀자 아닌가
슬프도다 이내 몸은 무슨 일로서
공부 못해 이것이 허물되느냐
똑똑똑 떨어지는 나의 눈물은
애줄없이 옷자락만 적실뿐이라
청산의 무덤이 되고말을가
바다가의 고기밥이 되고말을가
한폭치마 쌓인 눈물 큰강물 되고
생각사륙 더욱더욱 눈물이 난다
동창에 비친 달이 더욱 썩고나
후원동산 심은 꽃이 슬퍼하노라

S01.str id=1758

부녀해방가

부모사랑 많이 받고 자란 이 몸은
어린이 수양때가 채 못되어서
많지 못한 례장돈에 팔려도 가고
당치 못한 데릴사위 대면케 한다
데릴사위 들자하는 봉건남자와
례장사고 매혼하는 인물도덕도
인도정의 화려한 밝은 시대에
인류사회 매혼법이 어데 있어요
이와같이 매혼문제 있기때문에
정이 없고 사랑없는 부부가 되어
인류사회 어지러운 리혼문제가
나날이 설새없이 생기게 된다

자식 팔아 살자하는 부모된이는
자식사랑 남녀간에 일반이건만
여자들은 쓸데없는 기생물처럼
우마같이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
자유없고 구속받던 여성동무들
눈물짓고 한숨으로 세월 보낸다
완고하신 남편에게 예속이 되어
고통으로 보내는자 그 얼마이나
사랑하는 부모님도 믿을수 없고
전제구속 철망속을 벗어나려면
어서 속히 글을 배워 내 눈을 떠서
나의 앞의 해방길을 찾아나아가자

S01.str id=1759

철모르는 신랑자

젓끝에서 떨어진지 사오년만에
그의 부모 며느리에 눈이 어두워
철모르는 신랑자를 장가들이니
새 신부도 기가 막혀 눈물이 나네
신랑자는 삼일만에 처가로 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스운 말로
새각신데 저런 아들 벌써 있구나
아니란다 그것은 새신랑자란다

S01.str id=1760

금 주 가

금수강산 동포들아
술을 입에 대지 마오
조선사회 보존키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후렴)
아 마시지 마오 그 술
아 보지도 마오 그 술
조선사회 보존키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패가망할 그 술은
빛도 내서 먹으면서
자녀교육 시키는데는
일전한푼 안쓰려네
(후렴)
아 마시지 마오 그 술
아 보지도 마오 그 술
조선사회 보존키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S01.str id=1761

《 회야회야 일진회야 》

회야회야 일진회야
회야회야 일진회야
시월지성 너 아니냐
보시(주해-1)벗어 코에 걸고
천리원주 네가 할제
상투생각 너 안나랴

1 보시=모자를 일어로 이르는 말

S01.str id=1762

도적이 들어와 흐응

도적이 들어와 흐응
내 가산 달라네 흥
제 암만 졸라도 막무가내로다
애구지구 흐응
제소득 없을걸 흥
이등을 잡아 우지 마라 아가야
아가아가 우지 마라
이등을 언제 잡겠니
잡아잡아 아가야 이등을
아가 아가야 우지 마라

S01.str id=1763

개 꼬 리

앉은고리 망고리
서는고리 문고리
뛰는고리 개고리
나는고리 찌꼬리
밧쌀고리 개고리
황동수캐 뒤불어
팔도고을 싸대는
친일분자 개꼬리

S01.str id=1764

평양은 내곳

질편한 장림벌 조상조압전
색다른 문패가 또 웬말이나

서기산 노던 새 울면서 가네
깃 잃고 먼데로 쫓기여가네
아서라 말어라 네 가지 말아
죽어도 평양은 내곳이란다

S01.str id=1765

패 말 뚝

뜬잠 자고 일떠나도
맹물 한술 먹으려도
술갈마저 훔친 세상
...

원썩로다 원썩로다
패말뚝이 원썩로다
농군 패말 사라지고
꼬부랑굴 검은 패말
매코처럼 뽕족하고
거말처럼 빨아먹는
부르독이 미친개지

S01.str id=1766

토지조사반대의 노래

인간두옥(주해-1)도 내것 못되고
심은 전토도 내것 아니다
...

한치 벌들도 몸을 다치면
네놈을 반드시 쏘고 죽는다

1 인간두옥=사람 사는 작은 집.

농 부 라 령

우리 농군들은 땀흘려 일해도
피죽도 못먹는데
일본놈개새끼는 환도칼만 차고서
이밥만 쳐먹네
...
우리 신세는 왜 이리 못사누
그 죽일놈의 왜놈때문이지

원 수 로 다

원썬로다 원썬로다 원썬로다
왜놈의 종자가 원썬로다
사람이 살자니 자유가 없고
오간데 뛰는것은 칼치뿐이니
한많은 동포야 일어나라
굴러온 돌이 배긴 돌 뺏다
을지장수 양장군 본을 받아
싸워서 조선땅 찾고 죽자

섬 도 적

섬도적 태동 보소
경향각처 출몰하여
검은 토지 도적키에

동양개명 입앞에 놓고
즘생 소생 하노나
이리 봐도 그 태동
저리 봐도 그 태동
암만 봐도 쪽발이는
즘생일세 야만일세

S01.str id=1770

왜놈종자야

동경대관에서 딸까닥딸까닥하던 왜놈종자야
급진문명하였다고 자랑 말라
물포앞바다에 비호같은 우리 거북선 등등 뜰 때
귀잡고 행복한놈들
네놈이 왜놈종자 아니냐

S01.str id=1771

검자둥아

군도차고 절뚝대는
박쥐놈의 허벅다리
물 어뜰자 캉캉캉캉
산간벽촌 화전민이
무슨 죄가 있다손들
생취같은 강도단아
누덕꿈지 몰아가노
막동이네 검자둥아
갹돌이네 검자둥아
어서 캉캉 달려들어
박쥐놈을 죽여주소

S01.str id=1772

십진가

일진회원 너희들아
이천만중 일본자로
삼절론에 미혹되어
사대강령 주창타가
오조약이 체결되니
륙대주의 괴물이라
칠적들의 노예되니
팔억민의 원수로다
구추상강(주해-1) 찬바람에
시월단풍 가련하다
백년부귀 구하다가
천세루언(주해-2) 되었고나
만세호창(주해-3) 하지 말아
억조창생 비웃는다

- 1 구추상강=늦가을에 내린 찬서리.
- 2 천세루언=천추에 남긴 더러운 말.
- 3 만세호창=요란스레 만세를 부른다.

S01.str id=1773

동도라령

일하니 일없는 일진회
이하니 이놈이 몸쓸놈
셋하니 세상에 왜 났느냐
사하니 사실만 남은
오하니 오색잡놈
륙하니 륙조에 넘나드니
칠하니 칠국의 거라지
팔하니 팔자가 망극하여

구하니 구구히 사졌더니
십하니 신벗어 팔에 걸고
천리강산 달아날 때
다 죽는건 일진회다

S01.str id=1774

수 자 풀 이

일지일지 조선일지
이지이지 병정이지
삼지삼지 싸을 삼지
사지사지 못다사지
오지오지 일병오지
륙지륙지 일본륙지
칠지칠지 조선칠지
팔지팔지 팔로(주해-1) 팔지
구지구지 누가 구지(주해-2)
십지십지 죽기 십지

1 팔로=조선팔도를 가리킨다.

2 구지=구원한다는 뜻.

S01.str id=1775

아 동 십 진 가

일 일본놈이 간교하여
이 이상타 마음먹었는데
삼 삼천리를 특탈하니
사 사실이 발각되어
오 오조약에 떨어지니

륙 대륙반도 이천만이 분통한다
칠 칠조약을 맺은 놈들
팔 팔도강산을 다 넘기니
구 국수 왜놈에 또한 오적이
십 십년을 하루같이 독립투쟁이 일어난다

S01.str id=1776

수자풀이 십진가

2w일 일본놈이 2w이 이등박문이란놈이 2w삼 삼천리강토를 삼키
려다가 2w사 사실이 발각되어 (사신에게 발각되어) 2w오 오살할놈
(오소리 같은놈) 2w륙 륙혈포에 얻어맞아 2w칠 칠십도 못된놈이
(치를 발발 떨다가) 2w팔 팔자가 기박하여 (팔이 떨어져서) 2w구 구
치 못하고 (구두끈도 못매고) 2w십 십자가에 걸렸다(십자로 죽었다)

S01.str id=1777

애 국 심

이 몸이 국민되야 국민의무 왜 모르리
부탕도화 할지라도 애국심을 잃지 마소
아마도 독립 기초난 애국 이자

S01.str id=1778

독 립 가

삼천리 강산이요
이천만 생명이라
찾아가세 찾아가세
독립이요 독립이요
우리 조선 량심이라

단 심 가

단심일세 단심일세
우리 마음 단심일세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우리우리 단심일세

향오*를 잃지 말아라
동서남북 열세집*에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자유독립 단심일세

(황남 해주시)

- ※ 향오=대오, 대렬
- ※ 열세집=조선 13도를 의미함

승냥이

승 냥 이

동서남북 사방에
승냥이무리 덤벼들어
백성을 못살게 구나
서울이라 찾아가니
서울 나리님들 늙었구나
이빠진데 골괘짝 엮고
머리흰데 먹칠하고
고대광실 높은집에

남녀노비 거느리고
아무걱정 호팔자에
호의호식 하는구나

(해제)

일제와 구미세력이 밀려들어 나라는
기울어지고있는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서울에 틀고앉아
호의호식하고있는 왕과 대신들을 풍자한 노래이다.

S01.str id=3116

이 무 기

갑진년(주해-1)에 갑진갑진 다 팔아먹고
을사년(주해-2)에 을사절사 정도 좋다
이무기(주해-3) 부시며 놀아나보세
1 t 1 갑진년=을사년의 전해. 이해에
《한일의정서》가 조인되어 일제의 간섭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1 t 2 을사년에 을사절사=매국적인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매국역적들이 매우
기뻐한다는 뜻. 1 t 3 이무기=을사오적을 비롯한
매국노들을 이무기에 비유한 말.

S01.str id=1780

금 닭

금 닭

1어덕같이 험한 세상
왜놈들의 복새통에

만백성은 눈물이요
산천초목 설음이라
먹장같이 싸인 어둠
2채로치듯 가셔내는
금닭이나 울어주소
계명산천 밝혀주소

어화세상 벗님네야
금닭찾아 떠나보세
3벼슬은 4보옥이요
꼬리날개 구슬이라
이 닭 한번 울고나면
만백성이 춤을 추네

금닭이 무어길레
만백성이 춤을 출가
우리 청춘 소년들이
동산우에 높이 올라
조선독립 만만세를
목청놓아 불러야만
삼천리가 밝아오네

1. 어덕같이... 언덕같이.
2. 채로 치듯...채찍으로 치듯.
3. 벼슬...닭의 벗.
4. 보옥이요...보배로운 옥이요.

S01.str id=3118

안중근의 노래

융희삼년 시월달 이십륙일에

할빈역에 우뚝 솟은 용사 안중근
한번 번쩍 우랑반기 우랑총소리
넓고넓은 만주천지 울려왔도다
나라 위해 공을 이룬 안중근이는
왜놈들의 못된 손에 잡혀갔도다
그 소식을 들으신 그의 엄마 하는 말씀
우리 나라 민족이면 당연사로다
죽으면서 영웅 중근 유언하기를
할빈역에서 이내 몸은 죽어를 가오
우리 나라 또다시 독립되거든
이내 령혼 금수강산 데려다주소

S01.str id=1781

행 보 가

무쇠골격 돌근육 청년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청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만인대적 연습하여 후일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번쩍번쩍 번개같이 번쩍
패하다 장검을 비껴들었네

S01.str id=1782

병정가

병 정 가

거동봐라 거동봐라
임종현이 거동봐라

서산나귀 손질하여
순금안장 지어타고
해주성내 둘러싸고
우지끈지끈 총소리낼 때
해주감사가 알발루 똥다

(후렴)

어화둥둥 어화둥둥
에헤어미 타불
만판멋으루 달려간다
시화년풍 돌아온다.

죽었다네 죽었다네
사찰관이 죽었다네
조선개화 그만두고
일본개화 시키려다가
모감뒤거리에서
감정콩알 먹었다네 (후렴)

사냥가세 사냥가세
장련오리포루
왜가리 사냥가세
총메고 탄알차고
장련오리포루
왜놈 사냥가세 (후렴)

(해제)

갑오농민전쟁때 봉기군에 호응한 인민들이 부르던 노래이다. 임종현은 농민봉기군의 화포장이었는데 의적과 내통한 반동관료배들을 많이 처단하였다.

이 노래는 황남도 장연군일대에서 많이 불리워졌다.

독립가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독립의 시대가 다달았네

...

독립가 울려라 두둥둥
독립가 울려라 두둥둥

...

삼천리강산이며 2천만생명이라
찾아가세 찾으세 조선독립 찾으세
독립이여 독립이여 우리 조선 양식이라
독립가 울려라 두둥둥
독립가 울려라 두둥둥

S01.str id=1783

독립군가

땡땡땡 종소리 창공에 울리고
쿵다쿵다 쿵다쿵 북소리
억압받던 동무들 어서 일어나
팔다리 걸고서 행진합시다
취군의 나팔소리에 발을 맞추어
두팔걸고 내달는 우리 독립군
억천만번 죽더라도 용진용진

S01.str id=1784

독립군사발가

백두산하 단목화에 무궁화를 심었거니
사천 삼백여년후에 독립열매 맺혔구나

에헤난다 디여라
 독립군영 환영하세
 백두산하 너른들에 독립군영 유지하고
 우리 장관 호령소리에 전진기호 일어난다
 에헤난다 디여라
 독립군영 환영하세
 부모동생 리별할 때 눈물이 철철 흐르더니
 독립군대 환영할 때 검무춤이 절로 난다
 에헤난다 디여라
 독립군영 환영하세

S01.str id=1785

길 군 악 (주해-1) (1)

오늘도 하 심심하니
 길군악이나 하여보세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나 니로나니
 로나이니 로나니로이
 너어나니 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 나노나
 노나니 나로 노나니나
 로나가소소소소 자내 가소
 자내 가면 내 못살가
 정방산성(주해-2) 북문밖에
 해 도라지고 달 돌아온다
 눈비찬비 이슬맞고
 홀로 섰난 로송낭기
 짝을 잃고서 홀로 섰네
 내 신세가 이리하다니
 그래도 살아야지
 아무렴 내 말을 들어보아라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나 니로나니
 로나이니 로나니로이
 너어나니 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 나노나
 노나니 나로 노나니나
 로나가소소소소 자내 가소
 자내 가면 내 못살가
 조고마한 상좌중이
 부도채 (주해-3)를 두루쳐메고
 만첩칭산을 째 들어가서
 크다란 교양남글
 이리로 째고 저리로 째어
 제홀로 째어내니(주해-4)
 내 신세 이러하다 사나못살나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나 니로나니
 로나이니 로나니로이
 너어나니 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 나노나
 노나니 나로 노나니나
 로나가소소소소 자내 가소
 자내 가면 내 못살가
 1 t 1 길군악-옛날 우리 나라 군대의 행진곡이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전해지면서 군가로서의 체모는
 다 없어지고 세태가요로 변하였다. 이 노래는
 1728년에 편찬한 《청구영언》에 들어있으나 19
 세기경에도 변형된 형태로 불리워졌다. 1 t 2
 정방산성=황해도 사리원 부근에 있는 산성. 1 t 3
 부도채=도끼자루. 1 t 4 째어내니=짜어내니.

길군악 (2)

2w길 군 악 (2)

2w시호시호(주해-1) 부재래라2w물살같이 빠른 세월2w아차 한번 허송하면2w다시 젊든 못하리라2w인생이 백년 살며 2w백년이면 족할소냐2w제근심만 하지 말고2wn라근심 먼저하게2w명사십리 해당화는2w꽃 진다고 서리하고2w우리같은 청춘들은2w해진다고 서리하네2w장부의 군은 절개2w칼날이면 꺾을소냐2w도수검산(주해-2) 험한 길도2w짓밟고 넘어가세2wn이나노 너니나로2wn오오 너니너로2wn나로나 너에나로다2w길군악에 발맞추세2

2 도수검산=많은 나무가 칼처럼 들어찬 산.

S01.str id=12295

길군악 (3)

2w길 군 악 (3)

2w우당탕 우당탕 길군악소리2w면산이 술렁 넘겨다본다2w어허 허리구절사 정 좋다2w가 갔으면 갔지 제2w제가 설마나 갈소냐2w 비야비야 뿌리질 말어라 2w륙날로 짠 신이 다 헤어진다2w어허 허리구절사 말말아라2w그 그러면 그렇지 제2w제가 설마나 울소냐2w바람이 불어서 비올줄 알면2w어데나 군정이 길군악 칠가2w어허 허리구절사 날봐라2w그 그동안 못봐서 제2w제가 설마나 갈소냐2w업동의 설한에 눈사태 나도2w너무재 고개길 맨발로 가자2w어허 허리구절사 말말아라2w가 가무재고개를 제2w제가 혼자야 넘느냐

S01.str id=17273

길군악 (4)

2w길 군 악 (4)

2w꽃은 피어서 화산이 되고 얼씨고요2w일 일은 피어서 처
 청산이 되었는데 에2w에헤에 에야2w가갔으면 갔지2w지가 설마나
 갈소냐2w환도 빼어서 거목을 치니 얼씨고요2w사 산이 울고요 가
 가마귀 나른다 에2w에헤에 에야2w가 갔으면 갔지2w지가 설마나
 갈소냐 2w앞산이 무너져 숫돌이 되니 얼씨고요2w네 네 칼도 같고
 요 내 내 칼도 같잔다 에2w에헤야 에야2w가 갔으면 갔지2w지가
 설마나 갈소냐2w오뉴월 왕가물 실비가 내려 얼씨고요2w마 마을의
 만백성2w고 고대를 하누나 에2w에헤에 에야2w가 갔으면 갔지2
 w지가 설마나 갈소냐

S01.str id=17274

길군악 (5)

2w길 군 악 (5)

2w추야공산 저문 날에 2w국화단풍이 다 늦는다2w(후렴) 2w
 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구경가세 구경가세2w
 강릉 경포대로 달구경 가세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노다가세 노다가세2w저 달이 지도록 노다가세2w지야지야
 지야지야 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 2w달은 밝고 명랑한데2w님의
 생각이 절로 난다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
 백일청천 뜬 기럭아2w님의 소식을 전코나 가렴2w지야지야 지야지
 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길군악소리를 잘만 하면2w청산록수가
 춤을 춘다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만백성을
 울리던 끝에2w우렁우렁 길군악소리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가던 구름도 멈춰서고2w오던 바람도 되돌아선
 다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2w꽃이 피여 화
 산이냐2w일이 피여 청산이냐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 2w금수강산 삼천리는2w골골마다 승지로다2w지야지야
 지야지야2w얼싸 좋다 좋은 경개

S01.str id=17275

잡은 길군악

갈모봉허리에 비 묻어옵니다
농장기 들고서 논밭에 나가소
에헤 에헤야 하아
논밭에 나가소
오도산꼭대기 실안개 돌머는
룡문산허리에 강물이 돌지요
에헤 에헤야 하아
강물이 돌지요
가야산막바지 중놈의 계집은
념불도 앓고서 놀고만 먹는다
에헤 에헤야 하아
놀고만 먹는다
복소리 울리고 징소리 나더니
어데야 농군이 비 마중가느냐
에헤 에헤야 하아
비마중 가느냐
사나이 대장부 죽으면 죽었지
요 팔시 받고는 정 못살겠구나
에헤 에헤야 하아
정 못살겠구나
앞산을 밀어다 뒤강을 막고요
흰여울 삼십리 낚시질 하잔다
에헤 에헤야 하아
낚시질 하잔다
바위가 굴러서 밤자갈 되어도
네놈의 원쑤는 갓교야 말게다
에헤 에헤야 하아
갓교야 말게다

출진가

총잡고 어깨걸고 칼 갈아 옆에 차고
철근철주 번듯 들고 백만대병 진격하너
기필코 천하대세 만회키는 이번 길에
...

번개가 친다 번개가 친다네
우리 의병들의 창검빛일세

S01.str id=1788

의병가

무쇠팔격 우리 진들 나라 찾고서
무궁화 꽃동산에 꽃피워보자
갑진 을사 량년간에 족발이놈들이
사랑하는 우리 강토 더럽혔도다

S01.str id=1789

의병가

용장은 칼 빼어 번뜩거리고
용사들 말을 타고 나아갈 때
왜놈악당 네놈들 어데 갔나
살살 쥐새끼와 같이 간사코나

S01.str id=1790

의병대가

오련발 탄환에는 군물이 들고

화승대 구십에는 내굴이 돈다
에헤야 에헤 에헤야 에헤
에헤 에헤 에헤야
왜적의 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대장 행군길에는 일월이 돌고
왜적 가는 길에는 눈가비 돈다
에헤야 에헤 에헤야 에헤
에헤 에헤 에헤야
왜적의 군대가 막 쓰러진다

S01.str id=1791

바 략

온다온다 몰아온다
앞산 갈봉에서 갈바람이 몰아온다
에헤라 갈바람이 아니로다
왜적의 군사 한숨이로다

온다온다 몰아온다
앞동산 갈봉에서 비바람이 몰아온다
에헤라 비바람이 아니로다
왜적의 군사 눈물이로다

S01.str id=1792

군바바

군 바 바

너너도 병정
나나도 병정
어화 튼튼히

총가목을 잡고서
섬나라 왜놈을
쳐부시러 나가자
앵허리구 군바바
짱허리구 군바바

승전승전 또 승전
맞서는 놈에겐
불벼락이다
군바바 군바바
군바 군바 군바

너너도 쏘고
나나도 쏘자
어화 우리네
금수나 강산을

쪽발 왜놈이
밟는단말이나
앵허리구 군바바
짱허리구 군바바

우렁우렁 또 우렁
산악을 울리는
북소리 발맞춰
군바야 군바야
군바 군바 군바

너너도 가고
나나도 가자
어화 우리네
조선의 군사야
일편단심에
한길로 나가자
앵허리구 군바바

쨩허리구 군바바

승전승전 또 승전
푸른 날창이
부르르 띠다
군바바 군바바
군바 군바 군바

너너도 잡고
나나도 잡자
어화 우리 땅
탐내어 기여든

쪽발이 목덜미
틀어나 잡잔다
앵허리구 군바바
쨩허리구 군바바

넘실넘실 또 넘실
바다 밑창에 처넣자
군바야 군바야
군바 군바 군바

(해제)

이 노래는 19세기경에 조선군인들이 부르던 노래로
곡이 명랑하고 흥겨운것이 특징이다. 지금도
평북도 일대에서는 《군바바》노래가 여러가지
형태로 전하여지고있으며 특히 《군바바 춤》이라는
무용이 이 노래의 가락에 의하여 추어지고있다.

용진가

1

2

3

…넓은 뜻을 쳐서 파하고
…토벌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과 리지란(주해-1)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썩쳐보세
나아가세 전쟁장으로 나아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주해-2)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한산도에 왜적을 쳐서 파하고
청천강수 수병백만(주해-3) 몰살하옵신
리순신과 을지공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썩쳐보세
나아가세 전쟁장으로 나아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배를 갈라 만국회에 피를 뿌리고
만군중에(주해-4) 류혈포로 원썩 씌죽인
리준씨와 안중근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썩쳐보세
나아가세 전쟁장으로 나아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1 리지란=리조초에 개국공신이 된 사람.

- 2 검수도산=가지, 잎, 꽃, 열매가 모두 칼로 되어있는 나무로
덜인 산.
- 3 수병백만=백만의 수나라군사.
- 4 만군중예=사람들이 가득한 속에.

S01.str id=1793

작 대 가

N

동포들아 일대되어 나아가자
우리 국권 회복할 날 오늘 아닌가
활발하고 용감한 우리들앞에 독립의 기발은
휘날린다
만세만세 함께 부르고 독립독립 노래하자
피를 흘려 우리 국권 되찾기 위해
기발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빛나는 기발을 펄펄 날리며
용감하게 자유종을 팡팡 울려라
초연탄우 무릅쓰고
나가는곳에 독립의 국권이 있나니라
뜨거운 피가 끓고 정성이 묻힌곳 끝까지
쉬지 않고 나아갈 때 자유의 복락은 오고말리라

S01.str id=1794

2

시조

애국심

(작자미상)

이 몸이 국민되야
국민의무 왜 모르리
부탕도화(주해-1) 할지라도
애국심을 잃지 마소
아마도
독립기초
애국 두자

《대한매일신보》 1908. 12. 1.

※출처가 같은것은 다음부터 년호만 밝힘. 1 t 1 부탕도화=끓는 물에도 뜨거운 불에도 가리지 않고 뛰여든다는 뜻으로 《아주 힘 들고 어려운 고역이나 수난을 견디어냄》을 이르는 말.

조 선 반 도

(작자미상)

조선반도 금수강산
레의지방 분명하다
신성하신 단군께서
세웠어라 이 나라를
뉘라서
감히 침범하리
당당 제국

1908. 12. 2.

S01.str id=1796

화채비결

화 채 비 결 (주해-1)

(작자미상)

론개는 우리 조상
계월향은 우리 선조
살신보국(주해-2) 저 충절은
천만년에 빛나도다
우리도
저를 모범하야
시사여귀(주해-3)

1908.12.4.

2. 살신보국=자기 한몸을 던져 나라에 이바지함.
3. 시사여귀=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뜻함.

S01.str id=1797

학생지남

학 생 지 남 (주해-1)

(작자미상)

학도야 학도들아
학도책임 무엇인고
일어 산술 안다하고
졸업생을 자처마소
진실로
학도의 저 책임은
위국사상(주해-2)

1908. 12. 9.

2 위국사상=나라를 위하는 사상.

S01.str id=1798

조요경

조 요 경 (주해-1)

(작자미상)

남산의 늑은 여우
언덕밑에 은신하여
일시방심 제 못하고
피흉추길(주해-2) 애만 쓴다
아마도
부간부폐간신배(주해-3)는
여우후신

1908.12.13.

2. 피흉추길=흉함을 피하고 좋은데만 좇다.
3. 부간부폐간신배=간에 붙었다 폐에 붙었다 하는 간신배.

S01.str id=1799

통소력

통 소 력 (주해-1)

(작자미상)

력발산초폐왕(주해-2)은
 천하영웅이더라
 계명산상(주해-3) 통소소리
 8천정병 간곳 없다
 아모리
 제 영웅인들
 포악코야

1908. 12. 16.

2. 력발산초폐왕=산을 뿌리뺌다는 힘장사 초폐왕(중국 초나라 항우).
3. 계명산상통소소리=전투중 계명산에서 부는 통소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고향생각이 간절하여 장수의 통제를 벗어나 흩어져갔다는 고사.

S01.str id=1800

보강결

보 강 결 (주해-1)

(작자미상)

이 강산을 살펴보니
남줄곳이 전혀 없다
높은터는 집을 짓고
낮은곳은 전답 풀세
모조록
일심으로 땅을 지켜
억만세를

1908. 12. 20.

S01.str id=1801

권소년

권 소 년 (주해-1)

(작자미상)

이팔청춘 소년들아
오유장(주해-2)에 투족마소
황금같은 이 세월을
일각인들 허송하리
아마도
국민의 힘쓸것은
사농공상(주해-3)

1908. 12. 22.

2. 오유장에 투족=오락장에 발을 들여놓다.
3. 사농공상=선비, 농부, 장인바치, 상인, 모든 계급계층.

S01.str id=1802

단체력

(작자미상)

백발(주해-1)이 반숙하니
다시 끓던 참 못하네
국가홍복(주해-2) 중한 직책
청년담부(주해-3) 이 아닌가
진실로
독립부강하는 기초
일십단체(주해-4)

1908. 12. 23.

- 1 백발이 반숙하니=백발이 절반에 이르렀으니.
- 2 홍복=다시 흥하다.
- 3 담부=등에 짊어지다.
- 4 일십단체=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침.

S01.str id=1803

권농부

권 농 부 (주해-1)

(작자미상)

동창에 해돋었다
어서 바빠 일어나소
남전북답(주해-2) 좋은 전장
대홍수에 푹 터지네
하사이다
우리 농부들아
일십수축(주해-3)

1908. 12. 25

- 2 남전북답=남쪽의 밭과 북쪽의 논.
- 3 일심수축=한마음으로 허물어진곳을 고쳐 쌓음.

S01.str id=1804

면금수

면 금 수(주해-1)

(작자미상)

차호라(주해-2) 조선동포들아
이내 말삼 들어보소
삼천리는 금수강산이오
이천만은 금수대우(주해-3)로다
어찌타
금수강산 생긴 몸이
금수대우

1908. 12. 29.

- 2 차호=슬프다.
- 3 금수대우=새나 짐승처럼 대우함.

S01.str id=1805

군자절

군 자 절(주해-1)

(작자미상)

초목이 매물(주해-2)한데

총죽(주해-3)만 푸르렀다
풍상이 석거치되
네 성질은 불변이라
아마도
군자의 높은 절개
너뿐인가

1908. 12. 31.

- 2 매물=인정이나 불임성이 없이 쌀쌀함.
3 총죽=떨기 대나무.

S01.str id=1806

영춘

영춘(주해-1)

(작자미상)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주해-2)을 다 녹이네
사면에 돌린 청산
옛얼굴이 완연하다
우리도
저와 같이
국권회복

1909. 1. 1.

2. 적설=쌓인 눈.

S01.str id=1807

신정신

신 정 신 (주해-1)

(작자미상)

황종(주해-2)이 우는곳에
만물이 다 봄이라
화풍세우(주해-3)에
만산화류(주해-4) 새빛을 띄였어라
우리도
문명풍조에
새 정신을

1909. 1. 5.

- 2 황종=조선고대음악의 12률의 하나인 양률. 대금(저대의 한가지)의 첫째 구멍과 넷째 구멍을 열고 나머지 구멍을 모두 막고 낮게 불 때 나는 소리.
- 3 화풍세우=화창한 바람과 보슬비.
- 4 만산화류=온 산에 가득한 꽃과 버들.

S01.str id=1808

고수력

고 수 력 (주해-1)

(작자미상)

득실이(주해-2) 재수라 하나
사람에게 있나니라
한번 잃은후는
다시 찾기 어렵도다
아마도

잃지 아니라면
지킬밖에

1909. 1. 6.

2 득실=얻음과 잃음, 이익과 손해, 성공과 실패.

S01.str id=1809

대 장 부

(작자미상)

대장부 생겨나서
하울 일이 허다컨만
차라리 다 떨치고
신기병법 외워내어
번뜻번뜻 대장검을 보기 좋게 빼어들고
금안(주해-1)에 높이 얹어
천병만마를 지휘간에 넣어두고
자작진퇴함이 그아니 꽤할손가
가소롭다
심장적귀(주해-2)하는 썩은 선비야
부러우리

1909. 1. 7.

1 금안=황금빛나는 말안장.
2 심장적귀=옛사람의 글귀를 여기저기서 찾아 따옴.

S01.str id=1810

일이서

일 이 서 (주해-1)

(작자미상)

동창이 밝었느냐
노고저리 우는고나
잠자는 일군들아
어서 바빠 일어나소
저너머
사래 긴 저 밭부터
매여보세

1909. 1. 9.

S01.str id=1811

설중매

설 중 매 (주해-1)

(작자미상)

매화 옛등걸에
춘절이 돌아오니
옛피던 가지마다
봉울봉울 맺히도다
춘설이
제 아모리 차다 한들
피는 꽃을

1909. 1. 10.

S01.str id=1812

소 생 단 (주해=1)

(작자미상)

내 가슴 쓰러만저보소
살 한점이 없네그려
굶뜬이니 하여도
자연 그리하여
아마도
우리 국권 회복하면
이 몸 소생

1909. 1. 16.

1 소생단=소생시키는 약이름.

S01.str id=1813

운페일

운 페 일 (주해-1)

(작자미상)

구름을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주해-2)하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굳태여
광명한 날 빛을
따라가며

1909. 1. 17.

2 허랑-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S01.str id=1814

소천금

소 천 금 (주해-1)

(작자미상)

양춘이 돌아오니
종다리가 높이 뜬다
지일지일 비상천(주해-2)은
국가형편 아뢰는듯
네 비록
미물일망정
천의(주해-3) 응당

1909. 1. 26.

- 2 비상천=하늘높이 난다.
- 3 천의=하늘의 뜻.

S01.str id=1815

탕자계

탕 자 계 (주해-1)

(작자미상)

청루(주해-2)에 노는 손들
너도 동포 일본자라
국세위급 이 시대에
풍류로만 노단말가
진실로
회과자책(주해-3) 하량이면
국민자격

1909. 1. 28.

- 2 청루에 노는 손들=주색에 빠져 화류계를 찾아 노니는 자들.
- 3 회과자책=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가 책망함.

S01.str id=1816

배양력

배 양 력 (주해-1)

(작자미상)

가빈(주해-2)에 사현처오(주해-3)
 국난(주해-4)에 사랑상이라
 현처량상 없고보니
 국가빈난(주해-5) 어찌하리
 모조록
 학교를 광설하여
 인재양성

1909. 1. 29.

- 2 가빈=집이 가난함.
- 3 사현처=어진 안해를 생각함.
- 4 국난에 사랑상=나라가 어렵게 되니 어진 재상을 생각함.
- 5 국가빈난=나라 사정이 빈곤하고 어렵다.

S01.str id=1817

막방토

막 방 토 (주해-1)

(작자미상)

삼천리 강토를 흐응
나 못놓겠다 흥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놓아 아
어리화 좋다 흐응
지아자 좋을시구 흥

1909. 2. 2.

S01.str id=1818

가 련 명

(작자미상)

날타길타 흐응
네 어디 갈소냐 흥
요놈의 난장아
네 명이로다 아
어리화 흐응
네 가련하구나 흥

1909. 3. 4.

S01.str id=1819

송의리

송 의 리 (주해-1)

(작자미상)

N

뜰가의 저 송죽(주해-2)은
사시에 푸르렸고
춘풍에 도리화(주해-3)는
고은 빛을 자랑한다

우리는
국민의무 굳게 지켜
의리 자랑

1909. 4. 1.

- 2 송죽=소나무와 참나무, 굳은 절개를 상징함.
- 3 도리화=복숭아꽃과 오얏꽃.

S01.str id=1820

이목 총명한들

(작자미상)

퇴성이 진동해도
귀먹으면 못들으며
백일이 중천해도
소경이면 못보나니
슬프다
이목 총명한들
시국에 눈 어둡고
귀먹으면
쓸데 무슨

1909. 10. 14.

S01.str id=1821

도언

도 언 (주해-1)

(작자미상)

애달다 세상사람

입들만 성하여서
이러니저러니 말만 하고
실지 사업 전혀 없네
어찌타
급업(주해-2)한 이런 때에
말만 하노

1909. 11. 17.

2 급업=위태롭다. 산이 위태롭게 높은 모양.

S01.str id=1822

재완인

재 완 인 (주해-1)

(작자미상)

이목(주해-2)도 남과 같고
수족(주해-3)도 온전컨만
어이없슨 굴레 쓰고
전신불수(주해-4)되단말가
급급히
굴레 벗고
완인되여

1909. 12. 14.

- 2 이목=눈과 귀
- 3 수족=손과 발.
- 4 전신불수=전신을 잘 쓰지 못하는 증상.

S01.str id=1823

상사곡

(작자미상)

우뢰같이 소래난 지사
번개같이 얼핏 맞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지니
홍중에
바람같은 한숨은
안개피듯

1910. 1. 18.

S01.str id=1824

국사밖에

(작자미상)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퇴정(주해-1)도 겁 안다고
부월(주해-2)도 가소롭다
결단코
일신관계는 내 몰라라
국사밖에

1910. 1. 19.

1 퇴정=천동과 벼락.

2 부월=임금이 군사전권을 맡기는 표식으로 내리는 도끼. 여기서는 도끼를 이룸.

S01.str id=1825

하심장

하 심 장 (주해-1)

(작자미상)

렬사의 굳은 절개
누가 아니 감복하며
보관(주해-2)에 우는 붓대
경직함(주해-3)도 짝 없건만
어이한
란적배(주해-4)의 심장은
고칠줄을

1910. 1. 20.

- 2 보관=《매일신보사》청사를 의미함.
- 3 경직=뜻이 굳고 곧음.
- 4 란적배=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무리.

S01.str id=1826

동포야

(작자미상)

일신의 당한 관계
제각기 알건마는
전국생령(주해-1) 큰 관계는
어이 전혀 모르는교
동포야
동포라 하는 뜻을
깊이 생각

1910. 1. 21.

1 전국생령=전국의 백성들.

S01.str id=1827

일진광풍

일진광풍 (주해-1)

(작자미상)

정합방(주해-2)인지 흐응
가합방(주해-3)인지 흥
일진광풍에
집 떠나가겠네 에
애고대고 흐응
2천만 동포야 흥

1910. 1. 23.

- 2 정합방=정확한 합방 (나라가 합침). 진짜 합방.
- 3 가합방=림시적인 합방. 가짜합방.

S01.str id=1828

대청결

(작자미상)

우마피 백만장으로
크나큰 부대 지어
흉한 창자 추한 물건
모다 쓸어 한데 넣어
석탄수(주해-1)

깊은곳에 풍덩실 더져
청결시행

1910. 1. 27.

1 석탄수=소독제, 방부제로 쓰는 석탄산수를 이르는 말

S01.str id=1829

적 어 도

(작자미상)

별이 비록 적다하되
누가 아니 좃겨가며
소가 비록 크다하되
누가 끌지 못할소냐
아마도
크고적은걸로는
관계없어

1910. 1. 28.

S01.str id=1830

감중련

감 중 련 (주해-1)

(작자미상)

밤중에 우는 닭은
영웅을 환기하고
굴레벗고 단는 말은
장사(주해-2)를 고대컨만

어찌타
혈성있는(주해-3) 부여민족
감중련만

1910. 1. 29.

- 2 장사=기개와 체격이 아주 굳센 사람.
- 3 혈성있는 부여민족=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이 큰 조선민족.

S01.str id=1831

희 마 략

(작자미상)

희마랍산(주해-1) 상상봉을
한손으로 검쳐쥐고
팔만여리 지구성을
마두르듯 못할망정
소소한
장애물 처치키야
무슨 녀려

1910. 1. 30.

- 1 희마랍산 상상봉=히말라야산 상상봉

S01.str id=1832

하마 올듯

(작자미상)

설월(주해-1)이 만정(주해-2)한테

바람아 부지말아
동지자(주해-3)를 기다릴제
발자취가 의심이라
동자야
야삼경 적무인(주해-4)하니
하마 올듯

1910. 2. 1. A

- 1 설월=눈과 달. 여기서는 눈과 달빛
- 2 만정=뜰안에 가득차 넘치다.
- 8 동지자=뜻이 통하는자.
- 4 적무인=사람이 없어 고요함.

S01.str id=1833

고연리

고 연 리 (주해-1)

(작자미상)

조수가 창일(주해-2) 한들
산을 어이 넘어가며
상설(주해-3)이 엄혹한들
송죽이야 어찌하리
계놓아라
여천지무궁(주해-4) 우리 강토
누가 감히

1910. 2. 2.

- 2 창일=물이 넘쳐나다.
- 3 상설=눈과 서리.
- 4 여천지무궁=하늘땅과 더불어 한이 없다는 뜻으로 길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

S01.str id=1834

더욱 바빠

(작자미상)

일신을 생각 말고
국가사만 힘써 하소
나라이 없어지면
제일신은 어대 두리
지금에
위급존망지추(주해-1)를 당한 우리들은
더욱 바빠

1910. 2. 3.

- 1 위급존망지추=국가 존망의 위급한 시기.

S01.str id=1835

바빠 걸어

(작자미상)

어제는 비 오더니
오늘은 바람 분다
천리만리길에
풍우는 무삼일고
암커나
불피풍우(주해-1) 바빠 걸어
목적지로

1910. 2. 4.

- 1 불피풍우-바람과 비를 무릅쓰고

S01.str id=1836

지 사 야

(작자미상)

지사라 하는분네
애달기도 그지없다
어국어민에(주해-1)
무삼 일을 하였는가
아마도
제 생각 저하여도
부끄러워

1910. 2. 5.

1 어국어민에=나라와 백성 앞에. 나라와 백성 위하여.

S01.str id=1837

남천안

남 천 안 (주해-1)

(작자미상)

남천에 뜬 기러기
천하사를 네 알리라
륙대주 너른 들에
어대어대 요란터냐
우리도
칠척장검 높이 들고
그곳으로

1910. 2. 6.

S01.str id=1838

래영웅

래 영 웅 (주해-1)

(작자미상)

수회(주해=2)를 풀치고저
거문고를 비껴 안고
한곡조를 희롱하니
그 소래가 청아(주해=3)하다
문밖기
어이한 영웅 와서
요청하노

1910. 3. 5.

- 2 수회=근심스러운 회포.
- 3 청아=아름답고 맑다.

S01.str id=1839

염라부

염 라 부 (주해-1)

(작자미상)

염라부에 대사내려
허다죄인 특사할제
목맨 철사 글리놓아
영토교통 할지라도
그중의
병국준민두령배(주해-2)는
분괄쇠신

1910. 3. 6.

2 병국준민두령배=병든 나라의 착취받고 힘없는 백성의 두령들.

S01.str id=1840

인간공도

인 간 공 도 (주해-1)

(작자미상)

세월이 무사정하니
오는 백발 뉘 금하리
인간공도 이리하여
천리가 소연(주해-2) 타건만
어찌타
복선화음(주해-3)은
이와 달라

1910. 3. 8.

2 소연=밝은 모양.

3 복선화음=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줌.

S01.str id=1841

저 령 듯

(작자미상)

인심은 동연하야(주해-1)
시비선악(주해-2) 다 알건만
매국적의 저 심장은
어찌 그리 꺾여박혀

갈사록
하는 일이 저렇듯
우심한가

1910. 3. 9.

- 1 동연=한가지. 똑같이 그리함. 서로 마찬가지로.
- 2 시비선악=옳고 그름과 선과 악.

S01.str id=1842

서천우

서 천 우 (주해-1)

(작자미상)

고철(주해-2)에 든 부어(주해-3)야
물없다고 한을 마라
일시고난 하지마는
어이 매양 그리하리
서천에
구름인다
대우(주해-4) 올듯

1910. 3. 10.

- 2 고철=수레바퀴 지나간 자리가 말라붙은곳.
- 3 부어=붕어.
- 4 대우=큰비.

S01.str id=1843

사 생 간 에

(작자미상)

죽어서 잊어야 하랴
살아서 하여야 하랴
죽은들 어이 잊히며
살고서야 아니할가
아마도
사생간에 아니치 못할것은
나라일을

1910. 3. 11.

S01.str id=1844

석불

석 불 (주해-1)

(작자미상)

술아래 앉은 석불
너 앉은제 몇천년고
산골길 험하더냐
갈길을 잊었느냐
앉아서
기동치 못하는 정은
네나 내나

1910. 3. 12.

S01.str id=1845

불여귀

불 여 귀 (주해-1)

(작자미상)

불여귀 불여귀하니
너는 알고 울건마는
어이없는 망량(주해-2) 들은
도라갈줄 웨 모르노
만일에
벽력화(주해-3) 번뜻하면
후회막급

1910. 3. 17.

2 망량=도깨비.

3 벽력화=무자, 기축의 납음(륙십갑자를 궁, 상, 각, 처, 우)의
오음으로 분배하여 십이률에 각각 5음이 있으므로 이를 60갑자에
배정하여 오행 즉 금, 목, 수, 화, 토로 나타낸것임. 례컨대
갑자, 을축은 《금》으로 나타내어 《해중금》이라 함.

S01.str id=1846

막우유

막 우 유 (주해-1)

(작자미상)

삼만륙천일(주해-2)이
거 얼마나 되단말가
발분망식(주해-3) 일을 해도
못다 할일 많겠거날
어찌타
못당할 일 당하고도
우유도일(주해-4)

1910. 3. 19.

2 삼만륙천일=백년을 의미하는것으로 사람의 일생을 두고 한 말.

3 발분망식=끼니를 잇고 분발하다.

4 우유도일=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다

영웅 찾아

(작자미상)

락동강 세우(주해-1)중에
삿갓 쓴 저 로인아
적은 배 홀로 저어
그 어대로 향하는다
지금에
세사(주해-2)를 의논코저
영웅 찾아

1910. 3. 20.

- 1 세우=보슬비
- 2 세사=세상일

영웅혈

영웅혈 (주해-1)

(작자미상)

영웅의 흘린 피가
점점이 썩지 않고
황금산의 비가 되며
백두산의 구름 되어
원한을
꽤히 씻을 때까지

오락가락

1910. 3. 29.

S01.str id=1849

룡총마

룡 총 마 (주해-1)

(작자미상)

록초청강상(주해-2)에
굴레 벗은 룡총마가
북향하여 머리 들고
시시로 우는 뜻은
저 건너
대륙공리에
횡행코저

1910. 3. 30.

2 록초청강상=록음이 푸른 강우에.

S01.str id=1850

감춘

감 춘 (주해-1)

(작자미상)

세월이 여류하야
돌아간 봄 다시 오니

만산화류는
때를 알아 피건마는
어찌타
비참중에 있는 인생
아모란줄

1910. 3. 31.

S01.str id=1851

원조

원 조 (주해-1)

(작자미상)

한양성 봄바람에
란간을 의지하고
원근을 바라보니
옛물색이 전혀 없다
강산아
네 얼굴을 회복하기
언제런가

1910. 4. 1.

S01.str id=1852

파춘면

파 춘 면 (주해-1)

(작자미상)

신무대 (주해-2) 봄바람은
대부무수 (주해-3) 휘날리고

태평양 봄물결은
남아 회포 일으킨다
깨여라
신조선의 소년들아
봄조름을

1910. 4. 7.

2 신무대=새로운 무대 (새로운 사회).

3 대부무수=춤추는 대장부의 소매자락

S01.str id=1853

대 사 업 을

(작자미상)

한양성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 무덤아
영웅은 몇몇이며
호걸은 누구누구
우리도
저모양 되기전에
대사업을

1910. 4. 8.

S01.str id=1854

나를 반겨

(작자미상)

청구산하(주해-1) 저문 봄에
모험령을 얼른 넘어

문명화를 꺾어들고
독립대에 올라가니
그곳에
무수한 영웅들이
나를 반겨

1910. 4. 26.

- 1 청구산하=청구산 아래. 청구는 우리 나라를 일러 말함.

S01.str id=1855

조 선 훈 아

(작자미상)

우는것은 뼈꼭이나
푸른것은 버들숲가
목멩산(주해-1) 저문 날에
한량없는 회포로다
언제나
이내 마음 쾌활할고
조선훈아

1910. 4. 27.

- 1 목멩산=서울의 남산

S01.str id=1856

늑 기 전 에

(작자미상)

벽상에 걸린 종은
가는 소리뿐이로다

백년이 먼듯하나
백발이 잠간이라
청년아
우리의 큰 사업을
늦기전에

1910. 4. 28.

S01.str id=1857

때 좋다

(작자미상)

만산화류들은
일년봄색 자랑하고
세계의 렬강국은
현대문명 자랑한다
때 좋다
우리도 활동하야
국광(주해-1)자랑

1910. 4. 30.

1 국광=나라의 영광, 나라의 위력.

S01.str id=1858

전가

전 가 (주해-1)

동초생

막막수전(주해-2)에 비백로(주해-3)오
음음하목(주해-4)에 전황리(주해-5)라
농부는 논을 갈고
촌아는 뽕을 탄다
아마도
태평한 백성은 전가인가

《신문계》1913. 제3호

- 2 수전=논.
- 8 비백로=날아가는 백로.
- 4 하목=여름의 나무.
- 5 전황리=찌꼬리의 울음소리

S01.str id=1859

찌 꼬 리

성암생

초록장(주해-1) 드린곳에
환우성(주해-2)이 개개로다
춘풍자맥(주해-3)에 금의공자(주해-4) 자랑마소
어찌타
상름설한(주해-5) 할제 넌들 짐작 못할리

1913. 제3호

- 1 초록장=초록색 장막.
- 2 환우성=벗을 부르는 소리.
- 3 춘풍자맥=언덕우에 부는 봄바람
- 4 금의공자=비단옷 입은 귀공자.
- 5 상름설한=찬서리 찬눈.

S01.str id=1860

봄은 가는데

성암생

락화무어원동풍할제 (주해-1)
봄은 가노라 하직한다
네야 순환지리 (주해-2)로 간다마는
문장의 련한 (주해-3)이야 가실줄 있으랴
지금에
록음방초 승화시 (주해-4)라...

1913. 제3호

- 1 락화무어원동풍=꽃이 소리없이 떨어지며 동풍을 원망할제.
- 2 순환지리=순환하는 리치.
- 3 련한=그리움을 풀지 못하는 원한.
- 4 승화시=꽃이 번성하는 시절.

S01.str id=1861

행 락

(작자미상)

봄가고 여름되니
록음방초 승화시라
막언춘도방비진 (주해-1)하라 별유중류채지하
(주해-2)를
아마도
우리 행락할 호시절은 무궁무진

1913. 제3호

- 1 막언춘도방비진=봄이 지나 꽃향기가 다 사라짐을 말하지 말라.
- 2 별유중류채지하=물에 있는 마름뿌리를 캐면 그속에 특별한것이 있음.

관포교

관 포 교 (주해-1)

(작자미상)

천고지기(주해-2)가 누구누구 손꼽아 헤여보니
고산류수(주해-3)간에 종자(주해-4) 백아뿐이로다
지금에
관포지교는 내 몰래라

1913. 제4호.

- 2 천고지기=예로부터 알려진 지기.(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
- 3 고산류수간=높은 산 흐르는 물사이.
- 4 종자백아=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종자기와 백아. (백아는 거문고를 잘 타고 종자기는 그 거문고소리를 잘 알아들었다고 함.)

한치의 사람마음

(작자미상)

산이 높아 만척이로대
측량하면 그 고를 알고
물이 깊어 천길이로대
측량하면 그 심을 알리로대
어찌타
일촌에 불과한 인심은 측량키 어려

1913. 제4호

귀거래

귀 거래 (주해-1)

(작자미상)

전원장무혜(주해-2)여 가리로다 고향으로
 백한(주해-3)은 운소(주해-4)에 날아가고
 벽상에 무현금(주해-5)은 적막하다
 지금에
 동리변국(주해-6)하니 백의송주(주해-7)

1913. 제4호

- 2 전원장무혜=논밭이 장차 거칠어진다는 뜻.
- 3 백한=모양이 썩과 비슷한 아름다운 새의 한가지.
- 4 운소=하늘의 구름.
- 5 무현금=줄없는 거문고. 즉 마음속의 울림.
- 6 변국=평상과 다른 국면. 변이 있는 국면.
- 7 백의송주=벼슬없는 몸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읽어올림.

흥라령

(작자미상)

강산풍경은 정 좋다지마는
 임자가 없어서 못논다드라
 아이고데고 흥
 성화로구나
 영웅호걸이 종자 있느냐

분발만 하면 우리 되리라
아이교데교 흥
경사로구나

1913.

S01.str id=1866

3

가사 (1)

전정화

전 정 화 (주해-1)

음화맹

지각없는 상부(주해-2)들은
후정화만(주해-3) 화답하니
우리 나라 오날날에
꽃은 어이 피었으며

...

조선천지(주해-4) 백성들은
기장 어이 심었는가
전전반축(주해-5) 잠 못이뤄
뜰에 내려 배회(주해-6)하니
인적조차 고요한데
두견새만 슬피 운다
동자(주해-7)야 술부어라
화김에 한잔 먹자

한잔 두잔 대취(주해-8) 하니
 슬픈마음 절로 난다
 구만장천(주해-9) 높은 하늘
 룩주렬방(주해-10) 널은곳에
 적고적은 우리 몸은
 용납할곳 전혀 없네
 요지일월순지건곤(주해-11)
 의구분명(주해-12) 하것마는
 구름같은 우리 서름
 잊을날이 바이 없다
 패가망신 분타하나
 개인간에 혹 있으며
 부상모상(주해-13) 설다하나
 맹아룡벽(주해-14) 불상하나
 신체상만 병신이요
 환파고독(주해-15) 가련하나
 자기 한때 잠간이라
 이심저심 근심중에
 망국지한(주해-16) 우뜸이오
 이신저신 병신중에
 무국지민(주해-17) 제일이라
 개미같은 억조창생(주해-18)
 쇠털같은 허구세월
 입 있어도 병어린듯
 눈 있어도 장님인듯
 죽자하니 청춘이오
 사자하니 구박이라
 생각하면 눈물이오
 말하자면 목이 멘다
 우리들은 죄나 지어
 그러하다 하려니와
 청백무하(주해-19) 우리 자손
 무삼 죄로 또 당하노
 마구간에 매든 말도

굴레벗고 뛰어나며
 철책중(주해-20)에 갇힌 범도
 때를 타서 달아난다
 짐생 아닌 우리들이
 압제구박 좋아할가
 좋아하지 않건마는
 자작지열(주해-21) 어찌하리
 아모조록 벗어나서
 청천백일 다시 보세
 그럭저럭 그만두면
 자포자기 이 아닌가
 압제구박 면불면은(주해-22)
 우리들의 열심이라
 우리 만일 아니하면
 뉘가 와서 하여줄가
 우리 동포 2천만이
 동심합력 분발하야
 와신상담(주해-23) 이를 갈고
 발분망식(주해-24) 맘을 썩여
 학문연구 주야없이
 인재배양 상하없이
 십년양취(주해-25) 하야놓고
 첩피상토(주해-26) 경영하세
 하여보세 하여보세
 우리 열심 하여보세
 하로라도 잊어서는
 국권회복 기약없다
 혼자 할수 없다 말게
 사람마다 제일 아오
 차차한다 하지 말고
 무정세월 두남읍다
 월남사기(주해-27) 읽어보니
 광감지회(주해-28) 새로워라
 관사소위 하는 일은

아해들도 아니할것
 동퇴서경(주해-29) 큰 사랑(주해-30)에
 백공천창(주해-31) 벌집이라
 내것 내어 남을 주니
 송양지인(주해-32) 불쌍하고
 내밥 먹고 남의 일은
 로이무공(주해-33) 가소롭다
 집을 주고 전답 주니
 부모처자 어찌하며
 산림 주고 내천 주니
 하늘인들 남을소냐
 문구치레 찬란하고
 매관매작(주해-34) 수단종대
 박할민재(주해-35) 능란이요
 옹폐충명(주해-36) 충신일레
 고차사마전후옹위(주해-37)
 보는 사람 눈살새리
 금색황홀성수훈장(주해-38)
 배섬종게 잘도 찾다
 순검(주해-39) 체고 노름하기
 헌병시켜 집문파수(주해-40)
 퇴물받고 용사하기(주해-41)
 군대풀어 사역하기(주해-42)
 지방군인 허송상관(주해-43)
 학교교사(주해-44) 후주하기
 시위소찬(주해-45) 월권람직(주해-46)
 일구난설(주해-47) 어찌할가
 권리다툼 당파싸움
 제선악사(주해-48) 모다하데
 전국인민 대표기관
 이와 같이 문란하니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할이 뉘가 있나
 이리므로 다망하여

각국은감(주해-49) 되얏구나
 애급사기 읽어보니
 망국지철(주해-50) 고금 없다
 이회저회 많은중에
 삼각회의(주해-51) 하는 일은
 개구하면 창설(주해-52) 이오
 착수하면 귀행(주해-53) 이라
 망국기념 연회하기
 보호조약 찬성하기
 무정혹민득도하고(주해-54)
 무부무군(주해-55) 기탄없데
 성군작당(주해-56) 질문하기
 취모떡사(주해-57) 략탈하기
 위협관장굴총하기(주해-58)
 초치량민감금(주해-59) 한다
 어느 나라 어느때에
 간신적자 없을가만
 당시 애급나라같이
 여윤여우(주해-60) 처음이라
 송도말년(주해-61) 불가살은(주해-62)
 쇠나 먹고 마렸지만
 소위 시국3각회는
 사람 먹고 흠도 먹네
 단체명색 저리하니
 민심 어찌 귀일(주해-63) 하리
 이러므로 다망하야
 후세경계 되얏고나
 인도사를 읽어보니
 못된 발에 풀만 난다
 소위 사회 자탁(주해-64) 하는
 지사들의 거동보면
 해피망측 주착없고
 허무맹랑 공각(주해-65) 이라
 한패공(주해-66) 의 활달대도

사람마다 다 가진듯
 제갈량의 기계묘책
 사람마다 있는듯
 저박에는 영웅 없고
 나 아니면 호걸 닦가
 신문보고 세상평론
 염량(주해-67) 쫓아 추세하기
 모다앓어 항의(주해-68) 하기
 다니면서 협잡하기
 낮이며는 교제함네
 외인에게 아침하기
 밤이며는 가만가만
 대신보고 렫판운동(주해-69)
 선각자의 모든 행실
 청보구분(주해-70) 여차하니(주해-71)
 후진들의 어린 지식
 뉘게 배여 발달할가
 이리므로 다망하여
 회복할 길 전혀 없네
 파란사(주해-72)를 읽어보니
 망국지조(주해-73) 동서없다
 저의 소위 불평당은
 지각없는 동물이라
 시기여하 불찰(주해-74) 하니
 사지선후전도(주해-75)로다
 정신교육 힘 안쓰고
 백주발검(주해-76) 무엇하며
 인민단체 버려두고
 흑야송락(주해-77) 쓸데 있나
 피 흘러야 된단 말은
 고금시대 판이하고
 인중승천(주해-78)이란 말은
 야만두고 일름이라
 실부득부(주해-79) 한가지요

월산우산(주해-80) 천리로다
 동탁(주해-81) 치자 조조(주해-82) 불러
 무삼 리익 보았으며
 백보 웃는 오십보는
 무엇 그리 조찰하리
 인심소동모해장상(주해-83)
 국법상에 역시 죄라
 이리므로 다망하여
 력사상에 류취(주해-84) 했네
 돌니기사(주해-85) 읽어보니
 자별인별(주해-86) 분명하다
 소위 인민 형편보면
 한심 더욱 가이없네
 도리원중(주해-87) 긴 잠들어
 새벽돼도 꿈 못깨어
 벽력성(주해-88) 도 못듣는듯
 번개불도 못보는듯
 활육충복(주해-89) 리욕심은
 세태악(주해-90) 착 오오(주해-91) 하고
 차목확비대지혜(주해-92) 는
 인심호박(주해-93) 흥흥하다
 만복경영(주해-94) 의뢰심과
 동족방낙(주해-95) 구급책은
 거세도(주해-96) 도 개연하니(주해-97)
 엄엄기식(주해-98) 송구하다
 나라이란 무엇인지
 애국심도 추호없고
 백성이란 무엇인지
 봉상의무(주해-99) 부지로다(주해-100)
 탐관활리 통락중에
 잠소암삭(주해-101) 병이 들고
 쇠국양이(주해-102) 공상중에
 문명사상 간테없다
 정부원망 장천하되(주해-103)

자위신모(주해-104) 아니하니
 이러므로 다 망하여
 징악모범(주해-105) 되얏고나
 웃지 말게 웃지 말게
 우리 동포 웃지 말게
 내 일 부디 잊지말고
 남의 일을 웃지 마라
 우리 동포 글 읽었지
 남의 일이 내 일이라
 어찌하면 종단말가
 열심외에 별수 없네
 하여보세 하여보세
 우리 열심 하여보세
 열심하면 자강(주해-106) 하고
 자강하면 독립된다
 독립경영 있고보면
 열심 자연 나느니라
 청년학도 자자손손
 국가사상 점치(주해-107) 하고
 정부관리 동동축축(주해-108)
 인민보호 공손하며
 사농공상(주해-109) 분업하야
 대외경쟁 장려하고
 산림천택(주해-110) 수의하야
 임의개척(주해-111) 생산하며
 사회조직 단결하면
 의협심도 용출하고
 환난상구박애(주해-112) 하면
 공공심도 역생이라(주해-113)
 일국규모 여차한데
 뉘가 와서 침범하리
 자주독립 별것 없소
 청천백일 복조(주해-114) 로다
 하여보세 하여보세

- 2 상부들=저자거리의 부인들, 장사하는 녀인들.
- 3 후정화=악곡의 이름.
- 4 조선천지=조선의 하늘땅.
- 5 전전반축=누워서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다.
- 6 배회=일정한 목표없이 빙빙 돛.
- 7 동자=나이 어린 사내아이.
- 8 대취=술에 많이 취함.
- 9 구만장천=멀고도 아득히 높은 하늘.
- 10 룩주렬방=룩대주의 여러 나라.
- 11 요지일월순지건곤=요임금의 일월이요 순임금의 천지라 《가장 어질고 리상적인 임금》으로 일러오는 요순이 마련해주었다고 하는 자연계를 가리킴.
- 12 의구분명=분명히 예와 같음.
- 13 부상모상=부모의 상사.
- 14 맹아룡벽=소경과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를 이르는 말.
- 15 환과고독=홀아비, 홀어미, 고아, 늙고 자식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 16 망국지한=나라 망친 원한.
- 17 무국지민=나라 없는 백성.
- 18 억조창생=백성을 가리켜 이르는 말.
- 19 청백무하=티없이 맑고 깨끗함.
- 20 철책중=쇠로 만든 우리속.
- 21 자작지열=자기스스로가 초래케 한 재앙.
- 22 면불면은=면하고 면하지 못함은.
- 23 와신상담=설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딜에 비유한 말.
- 24 발분망식=분발하여 끼니까지 잊음.
- 25 양취=양성함.
- 26 첩피상토=교향땅, 또는 조국강토에서 침략자를 몰아내자는 뜻.
- 27 월남사기=월남의 력사기록.
- 28 광감지회=허황한 감회.
- 29 동퇴서경=동쪽이 허물어지고 서쪽이 기울어짐.
- 30 사랑=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곳.

- 31 백공천참=여러가지 폐단으로 엉망진창이 됨.
- 32 송양지인=쓸데 없는 인정을 베풀어 오히려 화를 입음.
- 33 로이무공=수고를 하였으나 공이 없음.
- 34 매관매작=관작을 돈받고 파는 행위.
- 35 박할민재=백성의 재물을 갈구리질함. 탐관오리가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것을 가리키는 말.
- 36 옹폐총명=총명을 가리움.
- 37 고차사마전후옹위=네마리 말이 끄는 높은 수레의 앞뒤를 끼고 호위함.
- 38 금색황홀성수훈장=금빛이 황홀한 별모양의 훈장.
- 39 순검=리조말 경무청에 속한 경관.
- 40 파수=경계하여 지킴. 또는 그 사람.
- 41 용사=개인의 사정을 보아줌.
- 42 사역하기=개인의 일을 시키기.
- 48 허송상관=서로 관계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냄.
- 44 학교교사후주하기=학교선생 술주정하기.
- 45 시위소찬=재덕 공로가 없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갓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룩을 받아먹는 일.
- 46 월권람직=권한밖의 행세를 하고 직업을 람용함. 직권람용.
- 47 일구난설=한입으로 다 말하기 어려움.
- 48 제선악사=착한것은 제쳐놓고 악한것을 함.
- 49 각국은감=여러 나라들이 거울삼아 경계하여야 할 전례.
- 50 망국지철=망국의 자욱. 망국의 력사.
- 51 삼각회의=세단체 또는 세 나라사이에 벌어지는 회의.
- 52 개구하면 창설=입을 열어 말하면 미친 말밖에 안나옴.
- 53 귀행=귀신의 행실.
- 54 무정혹민득도하고=옳음을 속이고 백성을 유혹하는데서 오묘한 수단을 부림.
- 55 무부무군기탄없데=아비도 임금도 몰라보는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더라.
- 56 성군작당=무리를 모아 폐거리를 무음.
- 57 취모먹사=털을 헤쳐가며 그속의 흙집을 찾음. 즉 남의 흙집을 꼬치꼬치 캐어서 찾아냄을 말함.
- 58 위협관장굴총하기=장관을 위협하고 무덤을 파내어 보물을 가짐.
- 59 초치량민감금=어진 백성을 불려다 가두다.
- 60 여윤여우=구름갈고 비갈다는 말로서 몹시 어둡고 어지러움을

의미함.

61 송도말년=송도는 송악산밑에 있는 서울이라는 뜻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일컫는 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고려말을 의미함.

62 불가살=불가사리.

63 귀일=하나로 돌아감. 통일됨을 뜻함.

64 자탁=다른 일을 들어 핑계함.

65 공간=빈 껍질. 빈 껍데기.

66 한패공의 활달대도=한 나라의 시조 류방의 활달한 큰 도량.

67 열량쫓아 추세=세력의 성함과 쇠함을 보다가 강성한쪽으로 쫓아감.

68 항의=항간에 돌아다니는 평판이나 소문.

69 령관운동=관직을 얻으려고 벌리는 운동.

70 청보구분=푸른 포대기에 개똥이라는 말로서 겉으로는 미끈한데 속은 너질하다는 뜻.

71 여차하니=이와 같으니.

72 파란사=싸움의 력사.

73 망국지조=나라가 망한 징조.

74 시기여하불찰=시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회 여하를 생각지 못함.

75 사지선후전도=일의 앞뒤가 뒤집히다.

76 백주발검=백주에 칼을 뽑아듬.

77 흑야송락=깜깜한 밤에 락을 보냄.

78 인중승천=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길수 있다는 말.

79 실부득부=도끼를 잃으나 얻으나.

80 월산우산천리로다=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것은 천지자연의 리치이다.

81 동탁=중국 후한말기때 사람 자는 중영. 사납고 권모에 능하였음. 황제때 우림량을 지내다 여러번 전공을 세웠고 령제때에는 전장군을 하였으며 령제가 죽자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가 상국이 되어 현제를 황위에 내세웠음. 후에 조조에게 패하였음.

82 조조=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의 왕. 자는 맹덕. 권모에 능하였고 시문을 잘하였음. 후한말기에 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을 주멸한후 실권을 장악. 216년에 왕위에 오름.

83 인심소동모해장상=인심을 소동시켜 나라의 장수와 재상들을 모해함.

84 류취=냄새를 풍김.

- 85 돌니기사=토이기의 력사.
- 86 자별인벌=자기의 공과 남의 공을 드러내놓고 자랑함.
- 87 도리원중=복숭아 오얏의 과수원속.
- 88 벽력성=벼락소리.
- 89 활육총복=고기를 비어먹고 배를 채움.
- 90 악착=도량이 아주 좁음. 잔인하고 껌찍스러움.
- 91 오오=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떠듬.
- 92 차목확비대지혜=눈을 가리우고 코를 후려치는 《큰지혜》.
- 93 효박=인정 또는 풍속이 어지럽고 아주 경박함.
- 94 만복경영의뢰심=마음속에 가득찬 경영을 의뢰하는 마음.
- 95 동족방니=언 말에 오줌 누기란 뜻으로 어떠한 사물이 한때의 도움이 될뿐 인차 효력이 없어짐을 이르는 말.
- 96 거세도도=온 세상이 말을 물흐르듯 거침없이 잘함.
- 97 개연하니=다 그러하니.
- 98 엄엄기식=숨이 당장 끊어지려는 상태.
- 99 봉상의무=바쳐야 할 의무.
- 100 부지로다=모르도다.
- 101 잠소삼삭=알지 못하는 사이에 쇠가 녹듯이 슬그머니 줄어 없어짐.
- 102 쇠국양이=쇠국정책으로 외국인을 배척함.
- 103 장천=하늘에 차 넘쳐흐르다.
- 104 자위신모 아니하니=자기 몸을 위한 껌를 스스로 하지 않으니.
- 105 징악모범=못된것을 징계하는데 본이 됨.
- 106 자강=스스로 강해짐.
- 107 점치=점점 불일듯하여.
- 108 동동축축=공경하고 삼가서 매우 조심스러움.
- 109 사농공상=선비, 농민, 장인바치, 상인.
- 110 산림천택수의하야=산림, 강하천의 형편에 적응하게.
- 111 임의개척=마음먹은대로 개척함.
- 112 환난상구박애=재앙이나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서로 구제하고 널리 사랑을 베풀다.
- 113 공공심도 역생이라=대중이 뜻을 함께 하려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
- 114 복조=다시 비치다.

또다시 한번 권고하노라

(작자미상)

민국부패 혁신합이
병자고질(주해-1) 치료합과
그 방법이 일반이라
병근(주해-2) 부터 뽑은후에
보양지제(주해-3) 복용(주해-4) 이요
폐습부터 고친후에
선량성적현출(주해-5) 키로
한인들의 악행위를
무한공격했거니와
선량성적 갈망하여
다시 권고함이로다
정당계의 관리들아
빈부강약 물론하고
로동으로 생활하라
로동자가 많으며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로동자가 적으며는
그 나라가 쇠패커늘
제군들로 말할진대
주동자가 이 아닌가
아무쪼록 분발하여
국가부강하여보소
사회상의 인사들아
인중치세(주해-6) 하는것이
재야군양(주해-7) 일반이라
지도자가 착하며는
그 군양이 안락하고
지도자가 그르며는
그 군양이 혼효어늘(주해-8)
제군들로 말할진대

지도자가 이 아닌가
 아무쪼록 분발하여
 인종안락 하여보소
 교육계의 청년들아
 생존경쟁하는것이
 지식우열(주해-9) 분등(주해-10)이라
 연구자가 열심하면
 그 지식이 우승하고
 연구자가 랭담하면
 그 지식이 렬패어늘
 제군들로 말할진대
 연구자가 이 아닌가
 아무쪼록 분발하여
 지식우승하여보소
 전국내의 인민들아
 렬강병립(주해-11) 하는것이
 단합진진 연후사라
 그 국민이 단합하면
 그 국력이 건전하고
 그 국민이 리산하면
 그 국민이 부패어늘
 제군들로 말할진대
 전국민족 이 아닌가
 아무쪼록 분발하여
 국력건전하여보소
 바라노라 한인들아
 그 나라가 부강하며
 그 인종이 안락하며
 그 지식이 우승하며
 그 국력이 건전하면
 누가 능히 룡육하며
 누가 감히 구속할가
 인순교식(주해-12) 지내다가
 무하지경(주해-13) 당해서는

후회막급 될터이니
조조오성(주해-14) 근력하소

《조선문학강독》1972년

- 1 병자고질=오래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병자의 병.
- 2 병근=병의 뿌리.
- 3 보양지제=양기들 돕는 약제.
- 4 복용=약을 먹음.
- 5 선량성적현출=좋은 성적이 드러남.
- 6 인중치세=배성이 사는 세상을 다스림.
- 7 재야군양=뜰에 있는 양떼.
- 8 혼효=혼란.
- 9 지식우렬=지식의 우수함과 렬등함.
- 10 분등=등급을 나눔.
- 11 렬강병립=렬강국들과 나란히 섬.
- 12 인순고식=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취의 기상이 없이 편안
만 취함.
- 13 무하지경=어떻게 수습할수 없는 경지.
- 14 조조오성 근력하소=조목조목 깨닫고 힘을 쓰소.

S01.str id=1868

총 고 가

(작자미상)

어아 우리 류학생들
총고가를 불러보세
만리창과 생면국(주해-1)에
천신만고 무릅쓰고
개명지식 발행함은
조국강토 보존코저
거국리친금기년고(주해-2)
일편단심 총애로다

대우존음(주해-3) 효칙하고
 부자삼절(주해-4) 본을 받아
 근근자자(주해-5) 힘을 써서
 문명공기 흡수하여
 호연가(주해-6)로 돌아와서
 계결성심(주해-7) 보좌하여
 주수구방(주해-8) 되었으나
 기명유신(주해-9) 알릴년가
 조국강산 삼천리와
 종묘사직(주해-10) 오백년에
 선리건곤(주해-11)
 국안반태(주해-12) 아니될가
 우리 성주(주해-13) 신명하사
 치국애민(주해-14) 하신것만
 오호(주해-15) 통재 근일 국세
 학식없는 리유로다
 가생통곡무용(주해-16) 이오
 애안하루(주해-17) 쓸대 없네
 타인에게 인난키(주해-18)는
 개명 못한 탓이로다
 이천만 우리 동포
 일심으로 단결되야
 철혈주(주해-19)의 잊지 말고
 지성으로 수업하세
 천하영재 교육키는
 학문외에 또 있는가
 어아 우리 류학생들
 철천지한(주해-20)상심 말고
 조익모습 근학(주해-21)하야
 만강열혈열충의(주해-22)로
 보국안민(주해-23)네 글자를
 나라국기에 높이 새겨
 금수산하 삼천리에
 나라국기를 높이 달고

검극(주해-24)도 두려말고
 수화(주해-25)도 피치말고
 단규(주해-26)같이 향일심(주해-27)과
 경초(주해-28)같이 향풍심(주해-29)에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독립길로 어서가세
 만세!!!

《공수학보》1907.

- 1 생면국=처음으로 대하는 낯선 나라.
- 2 거국리친금기년=나라와 겨레를 떠나 지금 몇년인가.
- 3 대우촌음효칙=우왕(중국 하왕조의 시조라고 하는 전설적인물)이 한치의 촌음(시간)도 아껴쓴 모범을 본받음.
- 4 부자삼절=공자가 주역을 너무 여러번 읽었기때문에 위편이 세차페나 떨어졌다는 교사에서 나온 말로서 학문을 열심히 함을 의미함.
- 5 근근자자=매우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움.
- 6 호연=크고도 넓은 모양.
- 7 계결성심보좌=입금을 깨우쳐 도와줌.
- 8 주수구방=주나라는 비록 옛적나라이기는하나.
- 9 기명유신=그 운명이 개혁되어 새롭게 됨.
- 10 종묘사직=왕실의 사당, 국가, 조정을 이르는 말.
- 11 선리건곤=선선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
- 12 국안반태=나라의 안녕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편안함.
- 13 성주=입금.
- 14 치국애민=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함.
- 15 오호통재=오—통분하도다.
- 16 가생통곡무용=한때의 통곡도 쓸데 없다.
- 17 애안하루=슬프게 눈물을 흘림.
- 18 인난=어려움에 연고함. 곤난의 원인을 찾음.
- 19 철혈주의=비스마르크가 1862년 독일의 국권을 연장시키는것은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니고 오로지 철과 피뿐이라고 의회에서 선언한데서 나온 사상으로서 병력위주의 침략사상을 말함. 여기서는 병력과 실력을 기르자는 뜻.
- 20 철천지한=하늘에 사무칠만큼 큰 원한.
- 21 조익모습근학=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배움.
- 22 만강열혈열충의=열정으로 끓는 피와 뜨거운 충성을 가슴가득

안음.

23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사랑함.

24 검극=칼과 창.

25 수화도 피치말고=물불을 가리지 말고. 물과 불도 피하지 말고.

26 단규=해바라기.

27 향일십=태양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바라기의 본성을 의미함.

28 경초=억센 풀.

29 향풍십=바람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억센 풀의 본성을 의미함.

S01.str id=1869

초 수 오 산

북악산인

우주에 비껴서서
고금사를 헤여보니
일월(주해-1)도 박식하고
산천도 변천커든
하물며 세상인사
성쇠흥망 없을소냐
남해풍파 일어나고
서산명월 떨어지니
흑동동칠야중에(주해-2)
차아동포(주해-3)이천만은
행화한식우분분에(주해-4)
사면으로 비가로다(주해-5)
제1장 해대군가(주해-6)
룡희이전(주해-7)군인일세
십여년 종군터니
일조해산(주해-8)하죄런고
군인의 생사명(주해-9)은

총과 칼에 달렸거니
 총과 군도 앓아가니
 중한 목숨 떨어졌다
 빈 영문만 바라보니
 불각감루종횡(주해-10)이라
 은사금(주해-11)이 다 진하니
 처처(주해-12)에 죽는소래
 순검주사(주해-13) 하자 하나
 일어불통(주해-14) 어이하며
 군수 세갑 하자한들
 정부에서 퇴각이라
 부장(주해-15) 지어 참위까지
 문(주해-16)패직(주해-17)함 쓸수 없고
 정교(주해-18) 지어 병졸까지
 삭발관탕(주해-19) 어이없다
 여간(주해-20) 남은 저 장교들
 복장행색 치량하다
 가아○인타소(주해-21)하니
 백주인로 행치 말고
 병정없는 저 군부에
 군복출입 하면목고(주해-22)
 연명생활(주해-23) 중컨마는
 명예를 돌아보소
 구구권고 애걸하야
 무삼 영화 보랴시오
 당일사망(주해-24) 저 장교들
 어언묘초성숙하니(주해-25)
 가련한 저 원혼(주해-26)들
 일배주(주해-27)나 위로하세
 군인없는 저 장총단(주해-28)
 충훈의백(주해-29) 적막하다
 군가곡조 끊어지니
 치뢰절차 누가 하랴
 제2장 무예별감(주해-30)

오백여년 역속(주해-31)으로
 지척천안(주해-32) 막엄지(주해-33)에
 불분주소(주해-34) 근시하야
 수다권구(주해-35) 허다친척
 천은(주해-36)으로 사랏더니
 일조태거(주해-37) 이 원일고
 집에 드니 꼭성이라
 불농불상(주해-38) 본성질이
 하울 사업 바이 없다
 여간 주신 은사금을
 심심장지낭중(주해-39)하고
 희희장탄(주해-40) 떼를 지어
 탁주가(주해-41)만 찾아가네
 제3장 내시(주해-42) 내인(주해-43)
 좋다좋다 예전시절
 매판매작 하울적에
 천금만금 장중(주해-44)이라
 팔도방백(주해-45) 수령들은
 봉물(주해-46) 선물 진진하고(주해-47)
 각부청의 경재상(주해-48)도
 우리 손을 다 빌더니
 일조에 숙청궁금(주해-49)
 문표(주해-50) 없어 어이할고
 일본과수 경찰관리
 이렇드시 매물(주해-51)한가
 할수 없는 이 세상에
 더욱 우리 무낭인(주해-52)들
 학문경제 소미(주해-53)하니
 일생신령 어이할고
 부부가진 사람들도
 람루(주해-54) 기한(주해-55) 불면(주해-56) 귀든
 짝 없는 궁중약질
 의탁할곳 바이 없다
 제4장 감액순검(주해-57)

팔구원에 목이 매여
 근십년 근무고생
 권임총순(주해-58) 바라더니
 그것은 교사하고
 팔구원도 떠나가네
 경무청(주해-59)이 경시되니
 현판(주해-60) 보기 내사 싫소
 기간박봉(주해-61) 살수 없어
 의(주해-62)상출채 하였더니
 짜장사 반찬가가
 날마다 외상재촉
 바삐주소 하는 소래
 염라부에 사자(주해-63) 갈소
 내 포승을 내 가지고
 염라부로 가나보다
 제5장 국생범가(주해-64)
 십삼년 해외종적
 백발쌍친 청년처자
 죽생존물 묘연하다
 만겁천겁(주해-65) 풍상중(주해-66)에
 일루잔명 보존하야
 춘풍담탕(주해-67) 도리화(주해-68)는
 이실땡혀 고국눈물
 추우삼삼(주해-69) 오동잎은
 떨어지니 고국눈물
 족관한정(주해-70) 신문지에
 주소열람(주해-71) 고국소식
 여천여해 황상은덕(주해-72)
 무고함(주해-73)을 통촉(주해-74)하사
 일조은명(주해-75) 나리시니
 생환고국(주해-76) 반갑도다
 생환고국 하여보니
 방병대종(주해-77) 형세로다
 끝수에 깊이 든 병

편작(주해-78)인들 어이할가
양복양화(주해-79) 무고출입(주해-80)
좌우침형(주해-81) 부끄럽다
차라리 이럴지면
불여불반(주해-82) 고국이 되
군신부모국(주해-83) 인고로
인치투생(주해-84) 구구하오
...

제9장 인력거군

빛을 내고 전당(주해-85) 내어
인력거를 사서놓고
봉두란발(주해-86) 적각(주해-87)으로
풍우한서(주해-88) 무릅쓰고
병문과수(주해-89) 하다싶이
불분주소(주해-90) 하오면서
푼푼이 벌어다가
행랑살이 협호살이(주해-91)
부모처자 살잖더니
전차 나고 마차나니
인력거가 세월없소

제10장 팔도농가

오백여년 요순세계(주해-92)
일출경일입식(주해-93)에
함포고복(주해-94) 하였더니
년래에 탐학관리(주해-95)
침어백성(주해-96) 어육(주해-97)이라
탐학관리배 오가니
의병일병(주해-98) 어이할고
여간량식(주해-99) 수간두옥
물○이소화(주해-100) 하고
옥석구(주해-101)분 하는중에
애매인명(주해-102) 다 죽었네
이러한중 정부대신
역둔토(주해-103)의 황무지를

외국인과 협약하야
 이민(주해-1-4) 식민(주해-105) 한다하니
 가궁타(주해-106) 이 백성은
 승천입지(주해-107) 하올손가
 여간 남은 저 전토(주해-108)는
 의병소요 도적란리
 경작할 길 망연하나
 황무지가 되리로다
 황무지가 되고보면
 외국인의 개량이라
 편토(주해-109)없는 팔로생명(주해-110)
 대해양에 떠나간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이천만이 떠나간다

w《대한매일신보》1908. 3. 22

- 1 일월도 박식하고=해와 달도 얇게 먹어들어가고.
- 2 흑동동칠야중에=옷을 칠한듯 깜깜하되 몹시 몸을 움직이기 조 심스러운 속에.
- 3 차아동포=슬픈 우리 동포.
- 4 행화한식우분분=살구꽃이 비바람에 분분히 날리는 한식날.
- 5 사면으로 비가로다=사방에서 슬픈 노래로다.
- 6 해대군가=대렬해산의 군가.
- 7 룡희이전=룡희(리조말 순종왕대의 년호)이전시기.
- 8 일조해산하죄련고=하루아침에 해산시키니 무슨 죄가 있어서인 고.
- 9 생사명=삶과 죽음. 목숨.
- 10 불각감루종횡=부지중에 감격의 눈물이 가로세로 흐름.
- 11 은사금이 다 진하니=입금이 내린 돈이 없어지니.
- 12 처처에=곳곳에, 여기저기에.
- 13 순검주사=순검은 리조말 내부 경무청에 속한 경찰의 하나. 주사는 리조말 각 관아의 판임벼슬.
- 14 일어불통=일본말이 통하지 못함.
- 15 부장지어참위까지=부대장으로부터 참위(리조말 무관장교급의 하나)까지.
- 16 문패=주소 또는 성명을 적어서 대문에 붙이는 작은 패.

- 17 직함=벼슬의 이름.
 18 정교=리조말기 무관급의 하나. 하사관급.
 19 삭발판탕=머리를 깎고 판과 탕건을 씌. (갓과 탕건은 원래 상투머리에 쓰는 것이었음)
 20 여간=조금. 어지간하게.
 21 가아○인타소=거리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침을 뱉고 웃음.
 22 하면목=무슨 면목.
 23 연명생활=목숨을 겨우 이어가는 생활.
 24 당일사망=당일에 죽음.
 25 어언묘초성숙=어언간에 묘의풀이 자리잡고 푸름.
 26 원혼=원한 품은 《혼령》.
 27 일배주=한잔 술.
 28 장충단=전사한 군인을 제사지내던 곳
 29 충호의백=충성스럽고 의로운 녀.
 30 무예별감=리조때 훈련도감. 군사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궁궐문 옆에서 수직하며 호위하던 무사, 무예청, 무감.
 31 액속=애정소속 즉 리조때 액정서에 딸린 하급벼슬아치.
 32 지척천안=임금의 얼굴을 지척에서 본다는 뜻으로 임금의 곁을 말함.
 33 막엄지=막엄지지. 막엄한곳. 곧 임금이 거처하는곳이나 임금의 곁을 뜻함.
 34 불분주소근시=밤낮을 가리지 않고 임금을 가까이 한다는 말.
 35 수다권구허다친척=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
 36 천은=임금의 《은혜》.
 37 일조태거=하루아침에 태거(죄과 있는 하급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함.
 38 불농불상=농사도 못하고 장사도 못함.
 39 십심장지낭중=주머니속 깊이깊이 간직함.
 40 회회장탄=긴 탄식을 함. 회회는 탄식소리를 뜻함.
 41 탁주가=탁주파는 집.
 42 내시=리조때 환관의 별칭.
 43 내인=녀인. 여기서는 궁중의 궁녀를 가리킴.
 44 장중=수중.
 45 팔도방백수령=조선 팔도의 도관찰사들과 각 군현의 원들의 총칭.
 46 봉물=선사로 봉하여 보내는 물건. 흔히 시골에서 서울벼슬아치에게 선사하는 물건에 대하여 쓰는 말.

- 47 진진=끊임없이 솟아나듯 많음.
 48 각부청의 경제상=각 마을의 재상들.
 49 숙청궁금=궁궐을 숙청함.
 50 문표=궁궐, 병영 등의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문을 출입함을 허락하는 표.
 51 매몰=인정이나 불임성이 없이 독하고 쌀쌀함.
 52 무낭인=돈 없는 사람.
 53 소미=생소함. 질박함.
 54 람루=흰 누더기. 옷같은것이 헤어져서 너절함.
 55 기한=끓주림과 추위.
 56 불면=면치 못함.
 57 감액=액수를 줄임.
 58 권임총순=권임은 순검의 우두머리. 총순은 리조말 경무청에 두었던 관임벼슬. 경무관 다음 자리로 중앙에 삼십명, 각도에 두명씩 두었었음.
 59. 경무청이 경시되니=경무청(리조말 한성부안에서 경찰과 감옥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을 1901년에 경시청이라고 개칭하게 되니.
 60 현판=글 또는 그림을 새겨서 문구에 다는 널조각.
 61 기간박봉 살수 없어=그동안 얼마안되는 봉급 가지고 살수가 없어.
 62 외상출채=외상은 값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먼저 가져가는것을 말하며 출채는 빚을 냄을 말함.
 63 사자=심부름꾼.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 간다는 심부름하는 귀신》을 이르는 말.
 64 국생범가=나라가 범인을 낸다는 노래.
 65 만겹천겹=아주 오랜 시간.
 66 풍상중=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속에.
 67 춘풍담탕=봄바람이 맑고 화창함.
 68 도리화=복숭아꽃과 오얏꽃.
 69 추우삽삽=가을 비바람소리.
 70 족관한정=겨레들이 머물러있는 숙소의 쓸쓸한 등잔불.
 71 주소열람=밤낮으로 열람함.
 72 여천여해황상은덕=하늘과 바다 같은 임금의 《은덕》.
 73 무고=아무 죄가 없음.
 74 통촉=밝게 살림.
 75 은명=입판.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명령.

- 76 생환고국=살아서 고국에 돌아옴.
 77 방병대종=바야흐로 큰 종기로 앓음.
 78 편작=성명을 진월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79 양복양화=양복입고 구두 신은 외인을 가리키는 말.
 80 무고출입=까닭없이 마구 출입함.
 81 좌우침형=좌우에서 그 모양을 봄. 가까이에서 형세를 봄.
 82 불여불반고국=고국에 차라리 돌아오지 아니함만 못함.
 83 군신부모국=임금과 신하관계에 놓여있는 부모의 나라라는 뜻으로 봉건시기 신하가 자기자신과 임금과 나라와의 관계를 두고 이르는 말.
 84 인치투생 구구하오=치욕을 참음과 마땅히 죽어야 할 때에 죽지 않고 욕되게 삶을 꾀함이 구구하오.
 85 전당=물품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주고 꾸어쓰는 일.
 86 봉두란발=쑥대강이 같이 흐트러진 머리털.
 87 직각=벌경게 드러낸 다리. 맨다리.
 88 풍우한서=비바람과 추위와 더위.
 89 병문과수=임금이 거동할 때 길 어귀를 지키던 군사.
 90 불분주소=밤낮을 가리지 않음.
 91 협호살이=결방살이.
 92 요순세계=중국 고대의 성천자(성덕이 높은 임금)라고 일러오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다는 《리상적인 시대》를 말함.
 98 일출경일일식=해가 뜨면 나가서 발같이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밥을 먹다.
 94 함포고복=잔뜩 먹고서 배를 두드리며 즐겁.
 95 탐학관리=욕심이 많고 포학한 관리.
 96 침어백성=백성들에게 침노하여 빼앗음.
 97 어육=생선과 짐승의 고기. 짓밟고 깨여 아주 결단을 냄을 비유한 말.
 98 의병일병=조선의병과 일본군대.
 99 여간량식수간두옥=조금의 량식과 간수가 몇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집.
 100 소화=불에 태움.
 101 옥석구분=옥과 돌이 함께 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함께 재앙을 당함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
 102 애매인명=아무 잘못이 없이 원통한 지경을 당하는 사람.
 103 역둔토=봉건시기 역참들에 내려준 부침땅.
 104 이민=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령토에 이주함.

- 105 식민=본국이외에 본국과 종속관계에 있는 땅에 자기 나라 백성이 영구히 살 목적으로 이주하여 경제적으로 개혁활동을 하는 일.
- 106 가공=불쌍하고 가련하다.
- 107 승천입지=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들어감.
- 108 전토=불임땅. 논밭.
- 109 편토=한쪽각의 땅.
- 110 팔로생령=조선 팔도의 백성들.

S01.str id=1870

수심가

수 심 가 (주해-1) (자창자화(주해-2))

(작자미상)

(자창)

2천만생령(주해-3) 우리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소
 죽자하니 가련하고
 살자하니 난처로다
 유원사이수소(주해-4) 하고
 유통십이수규(주해-5) 할고
 부휴모포(주해-6)에 헌보짐 싸서 메고
 피난가세 피난을 가세
 심심산골 무인처(주해-7)로
 피환(주해-8)이나 하여볼가
 앗다! 여보 3천리강산안에
 심산심골이 그어대냐
 금강산이나
 지이산이나
 금강산으로 가랴 하니
 시랑(주해-9)이 도립(주해-10)이라

생명이 가외(주해-11) 갈수 없고
 지이산으로 가랴하니
 장원한 전도(주해-12)는
 구견(주해-13)이 증중(주해-14)한대
 전후좌우에 침입하는 경태(주해-15)의 모욕이야
 아이구!
 차마 진정 설어 난 죽겠소
 일망(주해-16)으로 수진(주해-17)하였으니
 동산도 붕괴하고
 금수도 고갈이라
 인신은 본무익(주해-18)이라
 운경월조(주해-19)도 할수 없고
 대전(주해-20)이 좌후로다
 실소지조(주해-21)어대가며
 용달(주해-22)이 구추(주해-23)이라
 무공지어(주해-24)어대가며
 사야가 풍랑이라
 실서한(주해-25)사군이 피신할곳 전혀 없네
 초한(주해-26)시절에
 력발산기개세(주해-27)하든
 항장군(주해-28)도 로궁력진(주해-29)할수 없어
 오강수중(주해-30)에 세상 리별하였었고
 당세영웅 나파륜(주해-31)도 적수공권 할길 없어
 일고도(주해-32)에 비혼(주해-33)이 되었지
 아이구! 무식무려(주해-34)한 연연약골 우리
 인생이야
 어찌할고
 어찌할고
 사지를 욕심한들(주해-35)
 혈수 없는 이 시대로다
 (자화)
 춘이야 풍이야 화야 월이야
 춘풍화월(주해-36)돌아왔네
 북륙(주해-37)에 궁음이 이진하고

사방에 적설(주해-38)이 소진하였사니
 춘풍화월이 분명하지
 남산서원(주해-39) 연화방초(주해-40)는
 화시절을 환영하며
 매리행도 천만지(주해-41)에
 꽃
 몽울은 흥흥백백
 아이구 호시절
 화시절(주해-42)
 이아닌가
 망망한 우주간에
 료료적적여수면(주해-43) 하든 만산평야(주해-44)가
 부지전면지경(주해-45)에
 완전 화기천당을 장식하였지
 아이구 시수지공고(주해-46)
 춘신의 공인가
 산야의 공인가
 아니 아니라 다애다련다정다권(주해-47) 하신
 유일(주해-48)의 조물주 상제의 공이로다
 오호차호(주해-49) 오배인류(주해-50)야
 가련(주해-51) 가애 오배청년들아
 여차한 화기춘풍월로(주해-52)
 오인(주해-53)의 삼동간주업한 피고정신을 위로케
 하며
 다악한(주해-54) 심장을 일층 청결케
 하건만…아이구
 무지다우(주해-55)한 인류들아
 부지차절지의미(주해-56)하고
 안락불위(주해-57)에 유유허송하며
 회화유월(주해-58)에 오락악착하야(주해-59)
 반작대죄하니(주해-60)
 무지한 인류중에 청년배 더욱가식(주해-61)
 일후 그 죄가는 하야오(주해-62)
 사형이지…상제의 애정으로 일등(주해-63)을

약감하면

암암지옥에 무기도형이지

넘지사지어다(주해-64)

청년배(주해-65) 청년배여

《태극학보》1908. 제12호

- 2 자창자화=자기가 거문고를 타고 자기가 노래함.
- 3 생령=생명. 백성.
- 4 유원사이수소=원통한 일이 있으나 누가 호소하랴.
- 5 유통심이수규=아픈 마음 있던들 누가 말하랴.
- 6 부휴모포=아버지는 집을 들고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 7 무인척=사람이 없는곳.
- 8 피환=화란을 피함.
- 9 시량=승냥이와 이리.
- 10 도립=막아서다.
- 11 가시=가이 두렵다.
- 12 장원한전도=먼 앞길에는.
- 13 구견=구멍이.
- 14 중중=겹치고 겹침.
- 15 경태=강한 때림.
- 16 일망=한그물.
- 17 수진=다 거두다.
- 18 본무익=본래 날개가 없다.
- 19 운경월조=여기서는 구름에서 발갈고 달에서 낚시질한다는 뜻으로 허황함을 의미함.
- 20 대진=큰 새매.
- 21 실소지조=집 잃은 새.
- 22 용달=용감한 수달.
- 23 구추=뒤쫓아오다.
- 24 무공지어=공간이 없는 물고기.
- 25 실서한 사군=사는 굴을 잃은 뱀무리.
- 26 초한=초나라, 한나라시절.
- 27 력발산기개세=힘이 산을 뿔을듯하고 기운이 세상을 덮칠듯함.
- 28 향장군=향우를 가리킴.
- 29 로궁력진=막다른 길에서 힘이 진하다.
- 30 오강수중=중국 양자강지류의 하나인 오강의 물속.
- 31 나파륜=나폴레옹.

- 32 일고도=한 외딴섬.
 83 비혼=슬픈 녀.
 34 무식무려=아는것이 없고 헤아림이 없음.
 85 사지를 욕심한들=죽을 땅을 찾아가려 한들.
 36 춘풍화월=정서 짙은 화창한 봄을 일러 하는 말.
 37 북륙에 궁음이 이진 하교=북쪽 대륙에 깊고 으스스한 기운이 이미 없어지고.
 38 적설이 소진=쌓였던 눈이 다 녹아 없어짐.
 39 남산서원에=남쪽 산과 서쪽 동산에.
 40 연화방초=고운 꽃과 아릿답고 무성한 풀.
 41 매리행도천만지=매화, 배, 살구, 복숭아 나무들의 천만가지들.
 42 화시절=꽃시절.
 43 료료적적어수면=고요적적인 속에서 잠자는듯한.
 44 만산평야=많은 산들과 평야.
 45 부지전면지경=눈길을 옮기는 잠간사이를 말함.
 46 시수지공고=이 누구의 공인가.
 47 다에다련다정다권=사랑과 동정과 인정과 권력이 많음.
 48 유일의 조물주상제=오직 하나인 《조물주옥황상제》라는 뜻.
 49 오호차호=오호, 차호 모두 감탄사로서 슬픔을 나타낼 때 씀.
 50 오배인류=우리네 인류.
 51 가련가애=가련하고 불쌍함.
 52 여차한 화기춘풍월로=이와 같이 화기도는 봄정서로.
 53 오인의 삼동간주업한 피교정신=겨울동안 작업에 피곤한 나의 정신.
 54 다악한=악많은.
 55 무지다우=무지하고 몹시 어리석음.
 56 부지차절지의미=이 계절의 뜻을 아지 못함.
 57 안락불위=안락에 빠져 하는 일이 없음.
 58 회화유월=꽃놀이 달놀이.
 59 오락악착=그릇됨에 떨어져 악하게 됨.
 60 반작대죄=거슬러 큰 죄를 짓다.
 61 가석=아깝다. 가없다.
 62 죄가는 하야오=죄진 값은 어떻게 하려는가.
 63 일등을 약감하면=한 등급을 만약 감한다면
 64 넘지사지어다=생각하고 또 생각할지어다.
 65 청년배=청년들.

10

(작자미상)

금수산의 몽킨 령기(주해-1)
반공중에 우뚝 솟아
모란봉이 되였고나
활발한 기상이 솟아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평양성은
제일강산 명승지라
일등락원 이 아닌가
쾌활한 흥치가 생기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좌우편에
보통벌과 대동뜰이
광활하게 터졌고나
모색한(주해-2) 홍금(주해-3)이 열리는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언덕밑에
흘러가는 대동강물
거울같이 맑았세라
더러운 마음이 씻기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보통강수
대동강과 합류하야
황해수(주해-4)로 들어간다
무궁한 희망이 생기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먼 들밖에
크고적은 피봉들이
굉장하게 들렸고나
광대한 경륜이 생기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련한 맥에
을밀(주해-5) 만수(주해-6) 둥근대는
진주같이 놓였고나
유쾌한 정신이 생기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강가온대
릉라(주해-7) 반월(주해-8) 고은 섬은
비단자리 피어논듯
애련(주해-9)한 정회(주해-10)가 깊어진다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하 강물가에
층암절벽 길게 뻗쳐
청류벽이 되었고나
굉장한 기개를 떨치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화려하다 금수강산
황금인듯 백옥인듯
내 죽으면 바로 죽지
그대를 놓고는 못살리라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소년》 1909. 제5권.

- 1 령기=신령스럽게 느껴지는 기운.
- 2 모색=마음이 물욕에 가리어져 생각함이 어둡고 답답하다.
- 3 흉금=가슴속의 심정.
- 4 황해수=서해바다물.
- 5 을밀=을밀대를 말한다. 을밀대는 6세기중엽에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장대로 세워졌다. 그후 1714년에 축대와 루정을 고쳐 쌓았음.
- 6 만수=만수대.
- 7 룡라=룡라도.
- 8 반월=룡라도 한끝에 붙어있던 작은 섬.
- 9 애련=사랑하고 그리워함.
- 10 정회=정과 회포.

농 가

(작자미상)

오백여년 요순세계 (주해-1)
밭갈고 논일쿠어
제살림들 하였더니
년년세세 탐학관리 (주해-2)
백성들의 피를 뺏다
탐학관리 늘어나고
일병까지 덤벼드니
여간식량 수간두옥 (주해-3)
간데없이 사라지고
놈들의 불지랄에
생명까지 빼앗겼네
정부대신 도적들은
역둔토 (주해-4)와 황무지를
외국인과 협약하여
이민식민 (주해-5) 한다 하니
가공타 이 백성은
승천입지 (주해-6) 하올손가
여간나문 제도지도
관리소동 분분하고
도적놈들 등살밀에
경작할길 막연하여
황무지가 되리로다
황무지가 두고보면
외국인의 개간이라
편토 (주해-7) 없는 백성의 때
남부녀대 (주해-8) 바다이뤄
떠나간다 떠나간다
우리 동포 떠나간다

《가사집》 1985년

- 1 요순세계=태평스럽게 지냈다고 하는 세월.
- 2 탐학관리=탐욕스럽고 포악스러운 관리.
- 3 수간두옥=몇간의 초라한 작은 집.
- 4 역둔토=봉건사회에서 역에 붙은 땅.
- 5 이민식민=제나라 인민을 팔고 남의 나라 인민을 끌어들이는것.
- 6 승천입지=하늘에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감.
- 7 편토=쫓각 땅.
- 8 남부녀대=남자는 지고 녀자는 이고가는것.

S01.str id=1873

상 봉 유 사

(작자미상)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반가운듯이 은근한중
 오늘날에 서로 만나니 나라 생각 더욱 끓었네
 언제나 언제나 독립연에 다시 만날가
 청년들아 참 분하구나 저 원쑤 다 몰아내고
 저 원쑤가 참 분하구나 소평천하(주해-1)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개선가를 높이 부를가
 청년들아 참 괴롭구나 이 속박을 벗어버리고
 나의 속박 참 괴롭구나 국광선양(주해-2)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자유의 종을 크게 울릴가
 청년들아 참 슬프구나 국위진동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독립기를 높이 날릴가
 청년들이 조국 나라를 흥케함은 내 직분이라
 망케 함은 내 책임이요 락심말고 분발합시다
 소원을 소원을 성취할 날이 멀지 않네

《대한매일신보》 1909. 8. 13.

- 1 소평천하=세상의 너절한것을 쓸어버림.

2 국광선양=나라의 위력을 널리 떨치게 함.

S01.str id=1874

제 목 없 이

(작자미상)

동포들아 동포들아
순환하는 저 천도(주해-1)는
지성으로 불식(주해-2)하야
만천음기(주해-3) 싸인중에
양춘일맥(주해-4) 돌아온다
사천여재(주해-5) 구국에도
신명운(주해-6)이 불원하니
일심으로 진진하야(주해-7)
부강지역 울려보세
동포들아 동포들아
사지백채(주해-8) 장쾌하고
재해성(주해-9) 민활하야
신성민족 생긴 몸이
편시기반(주해-10) 못면하면
백대수치 이 아닌가
활발기상 분발하야
허다기침(주해-11) 쓸어내고
무궁복락 누리보세

《대한매일신보》

- 1 천도=천지자연의 도리.
- 2 불식=취지 않음.
- 3 만천음기=하늘 가득 음기가 참.
- 4 양춘일맥=한줄기의 양춘기운.
- 5 사천여재 구국에도=4천여년의 오랜 력사국에도.
- 6 신명운=새로운 운명.
- 7 진진하야=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 8 사지백체=모든 사람의 온몸이.
 9 재혜성=재주와 지혜의 바탕.
 10 편시기반=한때의 굴레 (굴레를 씌우듯 자유를 구속당함을 의미).
 11 허다기침=허다한 해무리. 수많은 장애를 의미함.

S01.str id=1875

회 개 세 례

(작자미상)

굽은것을 곧다 하고
 미운것을 곱다 하며
 국적을 찬송하고
 애국자를 공격하며
 망국함을 희망하고
 보국함을 불원하며
 외인보호 구가하고
 자국독립 포기하며
 마담귀설(주해-1) 장찬하야
 동포이목 현혹하는
 마보기자(주해-2) 머리우에
 회개하는 세례 주고

...

1910. 3. 1.

- 1 마담귀설 장찬하야=허물을 속이려고 요사스럽고 못된 말을 꾸며냄.
 2 마보기자는《악마의 신문사 기자》라는 형상구.

S01.str id=1876

4

자하산인

백옥도 쪼아야 광채가 명롱
황금도 붙어야 체질이 굳강
하물며 청년의 학문진취를
퇴탁(주해-1)이 아니면 될수가 있나

백옥을 쪼아도 불식지공(주해-2)
황금을 붙여도 불휴지력(주해-3)
하물며 청년의 학문근면을
석촌음(주해-4) 아니고 어찌하리오

백옥도 탁마치(주해-5) 아니면 조석(주해-6)
황금도 단련치(주해-7) 아니면 완철(주해-8)
하물며 청년의 학문 없으면
무륵한(주해-9) 금수와 마치 한가지

백옥의 광채는 만물의 기진(주해-10)
황금의 체질은 천고에 불변
하물며 청년의 학문 공효(주해-11)는
천하에 무가보(주해-12) 짝이 없도다

《신문계》1913. 제3호

- 1 퇴탁=망치로 옥을 다듬다.
- 2 불식지공=쉬지 않고 공들임.
- 3 불휴지력=줄어들줄 모르는 힘.
- 4 석촌음=짧은 시간도 아끼다는 뜻.
- 5 탁마=다듬고 갈음. 학문이나 기예따위를 익히는것을 닦고 가는 일에 비유하여 한 말.
- 6 조석=거친 돌.
- 7 단련=철을 연마한다.
- 8 완철=완악한 철.
- 9 무륵=륵리도덕이 없음.
- 10 기진=기이한 보물.

11 공효=공을 들인 보람.

12 무가보=값을 칠수 없으리만큼 매우 귀중한 보배.

S01.str id=1877

신춘의 가

신춘(주해-1)의 가

김인식

일월이 순환하여 시기를 어기지 않도다
광음(주해-2)은 물과 같이 우리의 앞을 지나
어언에 구년이 다 하고 신년이 왔으니
이 해를 맞는 때에 구감(주해-3)이 구름갈다
동천에 솟아오는 그날 빛 찬란하여
산이나 들에 모든 초목은 새 희망 가득하다
일년의 준비는 일월에 있나니
우리의 닦을 학업도 이때에 있도다
금일에 돋는 해가 래일도 그와 같이
금일이 래일을 맞고 금년이 래년을 이어
이처럼 지나는 광음 잠시도 지체없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공부에 간단이(주해-4) 없어야
하겠도다
산간에 흐르는 적은 물줄기를 보라
저의 흐르는 목적은 대해에 이르기까지니
우리도 그것처럼 공부를 근실히(주해-5) 하여
해의 빛 다 가기전에 사업을 성취하세

1914. 신년호

2 광음=시간.

3 구감=옛감회.

4 간단이 없이=끊임없이.

축<<신문계>>잡지가

최병한

축하하고 환영하세
잡지중에 신문계는
우리들의 량사우라(주해-1)
환영하고 축하하세
신문계의 빛난 일흠
선반도(주해-2)에 시생하니
그 시대 정2년(주해-3)이오
계축 4월 5일이라

학문계에 유명한이
지식발전 시키랴고
고심열성 연구하야
최성완고감몽(주해-4)이라
계중원조(주해-5) 신문계에
유아청년 학생들은
자나깨나 전심하야
영원불망하옵시다
월간잡지 허다컨만
나의 사랑 신문계는
우리 지식 양성대라
어화 우리 학도들아
보답하세 보답하세
소년역로불재래(주해-6)라
시령십오 성년전(주해-7)에
일심공부 해가주구

- 1 량사우=어진 스승과 벗
- 2 선반도에 시생하니=조선반도에 처음 나오니
- 3 정2년=대정2년을 말함
- 4 최성완고감몽=완고함을 억제하고 각성시키려는 꿈을 주다
- 5 계중원조=해당부문에서 원조상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출판 보도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치에 있다는 말
- 6 소년역로불재래=소년도 늙어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음
- 7 시령십오성년전=열다섯살까지의 성인나이 이전

S01.str id=1879

5

리상준

빛나도다 빛나도다
신문계가 빛나도다
우리 청년 귀한 마암
신문계로 빛내보세

무월침침(주해-1) 어둔 밤에
둥근 달이 빛냄 같이
우리 민족 캄캄한 맘
신문계로 밝혀보세

음우비비(주해-2) 흐린 날에
청천백일이 빛냄 같이
우리들의 미개한 맘
신문계로 열어보세

모든 사업 동히하고
한가한 때 있거들랑

신문잡지 좋은 친구
신문계로 벗을 삼아

신문계로 벗된 친구
이내 말삼 들어보소
오날 래일 금년래년
만년토록 벗을 삼세

1914. 제9호

- 1 무월 칙칙=달이 없어 어둡침침함
- 2 음우비비=젓곳은 비나 눈이 날리는 모양

S01.str id=1880

영웅의 모범

(작자미상)

계림의 계집이 될지라 해도
일본에 칭신(주해-1)은 못하겠노라
일사(주해-2)를 결심한 박제상의 충성
우리들은 모범으로 해야 되겠다
일본의 황제를 상노(주해-3)로 삼고
일본의 황후를 계집종 삼아
부리고 만다던 석우로(주해-4)의 맹세
우리들은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육군보다(주해-5) 신사라 한산적(주해-6) 칠 때
적수공권에 적병을 오살한 조중봉
그날의 칠백의사(주해-7) 큰 담략을
우리들은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한산도야 영등포 거북선 타고
일본배를 모조리 무찔러버린
리순신장군의 용명한 전략

우리들은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홍의천강대장군 좌충우돌 분신해(주해-8)
취새끼같은 왜적을 도처에서 친
곽재우의 씩씩한 그 용맹함을
우리들도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의병을 일으켜 싸움하다가
대마도로 잡혀가도 일속(주해-9)은 안먹고
마침내 아사한 최익현의 절개
우리들은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로적 이등박문을 로령서(주해-10) 습격
삼발삼중으로 쏘아서 죽이고
조선 만세 부르짖은 안중근의 의기
우리들은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개성한영서원》 1915년

- 1 칭신=신하라고 일컬음.
- 2 일사를 결심한=한몸 바쳐 죽을것을 결심한.
- 3 상노=밥상 나르는 종. 잔심부름꾼 아이.
- 4 석우로=신라의 유명한 장수로서 《왜놈의 국왕을 소금 굽는 종으로 만들고 왕비는 부엌데기로 삼겠다》고 한 말로 인하여 왜놈들이 그를 불태워죽였다. 그후 우로의 안해가 왜국 사신을 불태워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
- 5 육군 보다 신사라=임금을 욕되게 하느니 보다 차라리 신하로서 마땅히 죽으리라.
- 6 한산=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고을. 《한산모시》생산으로 유명한 곳. 여기서는 조헌이 최후결전을 한 금산을 일러 말하는 뜻.
- 7 칠백의사=임진조국전쟁때 의병장 조헌이 거느리는 700명의 의로운 용사들이 왜적과 최후결전을 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하나같이 최후를 마친후부터 그때의 용사들을 일컬어 칠백의사라 함.
- 8 분신=떨쳐일어나 재빨리.
- 9 일속=일본놈의 쌀.
- 10 로령=로씨야 령토. 할빈을 가리킴.

격 석 일 성

(작자미상)

교육가야 교육가야…
저 마장(주해-1)을 소멸차면
상담와신해야(주해-2) 하리
학생들아 학생들아…
저 교과(주해-3)를 성미차면
발분려정해야(주해-4) 하리
신문가야 신문가야
저 자유를 회복차면
열십장려해야 하리
농업가야 농업가야…
저 이쪽에 대항차면
륙력근면해야(주해-5) 하리

상업가야 상업가야
저 금융을 류통차면
민활경쟁해야 하리
공업가야 공업가야…
저 제조를 발명차면
분등개량해야(주해-6) 하리

《대한매일신보》

- 1 마장=어떠한 일에 장애가 생기는 일
- 2 상담와신=와신상담. 설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견뎌내 비유
- 3 교과를 성미=교과목을 아름답게 익히어 마칩
- 4 발분려정=분발하여 부지런히 행함
- 5 륜력근면=힘을 서로 모아 부지런히 힘씀
- 6 분등개량=뛰어오르다싶이 급진적으로 개량

S01.str id=1882

노 력 하 세

숙월생

반도청년 제군이여
이내 말삼 잠간 들어
생각컨대 우리들은
어느때를 당하였노
우리 선조 여러분이
멀고 멀은 멀은 길람
라인보다 앞서려고
진심갈력 분투하사
실사기호(주해-1) 다대하야
남의 배후 안섰것만
길이 하도 너무 머물고
또 한몸이 괴로하야
당초같은 기력없사
차차 고만 완보로서
세진하기 이르더니
너무 몸이 곤하여서
중도 잠간 휴식코자
로류음하(주해-2) 몸을 의지
부지불식 잠을 이뤄
곤한 몸이 노곤하야
다시 설출 물은 이때
우리 청년 후계자여
아뭇 각오 없을소냐
그새 남은 간단없이(주해-3)
불식활동(주해-4) 하얏는교로
우리 지점 점하고도(주해-5)
우리 보다 전진하야
그의 로정 이제 장차
도달할 날 가까와서
특의양양 하는것을

우리 목격하는배니
 반도청년 제군이여
 우리 책임 중하고도
 지대한줄(주해-6) 능히 아나
 후계자인 우리까지
 의연 잠을 못깨이면
 도시비견활동이야
 불가망이 아닌가
 하고보니 우리들은
 일편 정신 가다듬어
 남의 배후에 있다고
 소호(주해-8)라도 락심말고
 이를 기어 따르기에
 전심노력 하여야만
 소망실현 아니할가
 유차관지(주해-9) 우리 책임
 지중지대 하다 한다
 저기 피는 광명화는
 광채찬란 의기좋게
 우리 어서 오기에만
 밤낮없이 고대하니
 아직까지 피안화(주해-10)를
 관견(주해-11)하는 부패심은
 일제제폐신사조(주해-12)로
 분발하야 노력하세
 노력하세 노력하세
 일편단심 굳게 먹고
 전도유혹(주해-13) 능배하며
 오는 난관 굴치 말고
 일직(주해-14)으로 돌진하야
 광명화를 우리 손에
 들어오게 노력하세
 그리하야 광명화가
 천추만대 소(주해-15)치않고

반도두상 형형하면(주해-16)

이것 아니 경축할가

노력노력 노력하세

반도청년 제군이여

《만주일보》1919. 10. 3.

1 실사기호다대=사실에서 그 보람이 큼

2 로류음하=길가버들 그늘아래

8 간단없이=끊임없이

4 불식활동=쉬지 않고 활동

5 점하다=차지하다.

6 지대=매우 크다.

7 도시비견활동 이야=도무지 동등한 활동이야

8 소호라도=조금이라도

9 유차관지=이로 말미암아 보면

10 피안화=건너기슭의 불

11 관견=바라보다.

12 일제제폐신사조로=한결같이 버리고 새로운 사상조류로

13 전도유혹능배=앞길을 유혹하는것을 배척하다.

14 일직=일향. 곧바로

15 소=사라지다.

16 반도두상형형하면=조선의 머리우에 반짝반짝 빛나면

S01.str id=1883

허 랑 가

홍태양

가네가네 나는 가네

알뜰한 나의 집을

홀로 두고 나는 가네

가기는 간다만은

불원간 또 만나리라

집터도 죠킨쪼와
터닥음도 견고하다
뒤산등 올라서서
집터생김 불작시면
백산으로 주산삼고
태평양으로 앞강삼아
로청룡 지백호에
자좌오향 분명한
나의 집터 생겼고나
이 좋은 집터에서
천대만손 누려왔네
시운이 불행인가
불효자 나를 냐이
호부하던 우리 가산
추풍락엽 되야 졌네
만코만튼 우리 가족
동서로 헤어졌네
간다간다 나는 간다
부모처자 떼어두고
가기는 간다만은
나의 가슴에 품긴 리상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패한 가정
부흥시킬 결심으로
멀리 서로 향해왔네
락심마라 락심마라
집에 패운 들었다고
십년동안 패한 집에
점점흥운 돌아오네
병얕든 나의 동생
걸음도 제법걸고
숨차하던 나의 형은
숨쉬기도 좋아지고
말 못하던 그 입으로

말도 제법 어우르네
운아운아 쾌망운아
네 아모래 칩노한들
오는 흥운 어찌하리
우리 큰놈 만주일은
제법 부르네 그 동모를
못 걷든 조선혼은
제법 뛰네 활무대에
요만할 깎뚝김치야
네 맛이 암만 좋다 해도
먹을 때뿐이로다
종와종와 나는종와
시월달만 되고보면
내장까지 시원케 하난
동침이 먹울나네
락심마소 락심마소
형님동생 락심마소
좋아 좋아 나는 좋아
동침이국 나는 종와

1919. 10. 4.

S01.str id=1884



검무산초인

+ 우리의 집

황해수 돌린 안에
아침날빛 선명히 비치는
저기 저 집이
우리의 집

청구지(주해-1) 널은 들에
거의 문어져가는 3천간
저기 저 집이
우리의 집

무궁화꽃동산에
2천만의 많은 형제들
저기 저 집이
우리의 집

단향목(주해-2) 그늘아래
반만년의 긴 내력 가진
저기 저 집이
우리의 집이라

우리 집 형제자매야
깊이 든잠 빨리 깨여
머리 들고 일어나라
때가 왔다 운이 왔다
파괴한 집 고쳐보자
썩은 기둥 바뀐널고
약한 기초 갈아내어
평장하게 지어보자
우리 사는 우리 집은
우리들의 공물(주해-3)이라
어서 같이 힘을 내어
돈 모으고 글도 읽어
동녘서녘 이웃 곁에
문명코도 더 부강한
남의 집 부럽지 않게
화락으로 살아보자

1919. 12. 19.

1 청구지=조선땅

2 단향목=자단, 백단 등의 향나무의 총칭

3 공물=공동의 물건. 공통소유의 물건

S01.str id=1885

4

가사 (2)

신문가

김교익

초당(주해-1)에 깊이 든 잠
뉘라서 깨랴는고
구천(주해-2)을 바라보니
미인옥루(주해-3) 어데매요
반갑고 장하도다
신문론설 장하도다
자고이래 헌집 목수
하나둘뿐 아니연만
아마도 이 목수는
량공증(주해-4) 제일이라
아모리 풍우라도
삼루전복(주해-5) 없이 하여
인의도덕(주해-6) 도배하고
례악서수(주해-7) 자리 깔면
광명축을 키여놓고

태평연을 배설할 때
 창외에 더댄 날이
 삼간이 높아서라
 우연히 오는 말삼
 우리 조선신문이라
 론설도 많건마는
 헌집 론설 장하도다
 뉘라서 통리하여
 이렇다시 소상한가(주해-8)
 헌연목(주해-9)과 헌 기동을
 그대로나 반듯 세워
 공평렴직(주해-10) 벽을 치고
 효제충신(주해-11) 문을 달며
 이 집도 옥루되어
 우리 인민 높이 앉어
 이 목수와 저 목수며
 억조창생(주해-12) 노닐적에
 초당에 자든 사람
 격양가(주해-13)를 불러보세
 남서(주해-14) 순검 허일이
 부러하세 부러하세
 부국강병 부러하세
 우리 만민 합역(주해-15)하여
 정부를 도와주세
 나라 위해 애쓰는것
 곳곳이 영광일세
 사랑하고 애홀하세(주해-16)
 우리 만민 애홀하세
 자주독립 건설하여
 외국의 대접받세
 빛나도다 빛나도다
 자주독립 빛나도다
 아국인민 일심되기
 자나깨나 축수하세

심상으로 알지 말고
 일심합역 애써보세
 사해지내 개형제(주해-17)라
 일심동체 하여보세
 독립신문 하는 말삼
 저저히(주해-18) 본을 받세
 이 신문을 보는 형제
 아모쪼록 불망(주해-19) 하세
 ...

《독립신문》 1896. 6, 2

- 1 초당=집의 원채 밖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
- 2 구천=높은 하늘
- 3 미인옥루=미인이 있는 옥으로 장식한 루각
- 4 량공중=기술이 좋은 공인중에서
- 5 삼루전복=물이 새거나 뒤집혀 없어짐
- 6 인의도덕=어질고 의로운 도덕
- 7 레약서수=레약과 여러가지 음식을 차림
- 8 소상한가=자세한가
- 9 현 연목=현 서까래
- 10 공평렴직=공평하고 마음이 청렴하며 강직함
- 11 효제충신=효제(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와 충신(나라를 위하여 충절을 다하는 신하)
- 12 억조창생=백성들
- 13 격양가=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부르는 노래
- 14 남서순검=서울 안 5부의 하나인 남부를 관할하던 경찰서의 순검
- 15 합역=협력하여 일함
- 16 애홀=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
- 17 사해지내개형제=천하사람은 다 형제라는뜻
- 18 저저히=날날이 모두
- 19 불망=잊지 않음

+ 소년 조선

크고도 넓고도 영원한 태극
 자유의 소년조선 이런 덕으로
 빛나고 뜨거웁고 강건한 태양
 자유의 소년조선 이런 힘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광채를
 빠지난 구석없이 더져두어서
 깨끗한 기운으로 타게 하라신
 하늘의 부친 직분 힘써 다하네
 바위틈 산골중 나무끝까지
 자유의 큰 소래가 부르짖도록
 소매안 주머니속 가래까지도
 자유의 맑은 기운 푹푹 타도록

우리의 발꿈치가 돌리난곳에
 우리의 가진 기발 향하난곳에
 아프게 알난 소래 즉시 그치고
 무겁게 병든 모양 금시 소생해
 아모나 아모든지 우리를 보면
 두손을 벌리고서 크고 빛난것
 청하야 달라도록 만들것이오
 청하지 아니해도 얼른 주리라

판수야 병어리야 귀먹어리야
 문둥이 절름발이 온갖 병신아
 우리에게 의심 말고 나아오너라
 질겨서 어루만져 낫게 하리라
 우리는 너희 위해 화편 가지고
 신령한 《뺨티쑤(주해-1)》을 베풀양으로
 발감게 짚신으로 일을 해가난

하날이 뽑은 나라 자유조선의
뽑힌바 소년임을 생각하여라

《소년》1908. 제2권

1 뽕티솜=뽕티스마(기독교에서 이르는 세례)인듯

S01.str id=1887

한 탄 세 계

(작자미상)

동서각국 유람할제
어떤 나라 들어가면
문명제도 짜워있고
어떤 국경 지나며는
막막황진(주해-1) 일어나고
어떤 국민 불양이면
문명코저 서두는데
우리 나라 실정보면
비풍암운(주해-2) 드리워서
도처마다 한탄일세

민지발달 한 연후에
국가문명 하겠기로
성심성력 헌신하며
경향각처 왕래하며
청년자제 모집하여
교육사업 일쿠는데
시기급박할뿐(주해-3)더러
방해자가 허다하니
이를 장차 어찌 할고
사회지사 한탄이요

서적구비 된 연후에
교육완전하겠기로
고달픔을 이겨내며
내외력사 참고하여
애국주의 제창하고
민지고동(주해-4) 하려는데
검열 간섭 자심하여
애국내용 억제하니
이를 장차 어찌 할고
저술가의 한탄이요
사회 성립된 연후에
인민 단체하겠기로
타인 비방불계(주해-5) 하고
동지자(주해-6)를 수습하여
민지풍속 개량하고
사회 확장 하려는데
자유구속 자심하고
협잡배도 끼여드니
이를 장차 어찌 할고
사회지사 한탄이요
재원(주해-7) 풍족 된 연후에
인민생활 하겠기로
리해간에 불계하고
각사회를 조직하여
다소 물품무역하며
산업발전 하려는데
흥농키는 고사하고
자본까지 길 막히니
이를 장차 어찌 할고
상업계의 한탄이요
언론자유 된 연후에
권선징악 하겠기로
신문잡지 창설하여
사회발전 연구하고

공연직필(주해-8) 론술하야
 민지(주해-9) 경성 바라는데
 방해한다 탄압하며
 폐간커나 압수하니
 이를 장차 어찌 할고
 각보관(주해-10)의 한탄일세
 한탄마라 한탄마라
 한탄증에 되나니라
 삼십년전 그만두고
 갑신이후부터라도
 이런 한탄하였더면
 오늘날을 당해서도
 회락시절 될것인데
 자취기화(주해-11) 이 아닌가
 한탄을 쉬지 말고
 분발전진 하여보세

1908.

- 1 막막황진=넓은 공간의 누런 먼지
- 2 비풍암운=쓸쓸한 바람과 검은 구름
- 3 시기급박=때가 급하고 긴장함
- 4 민지고동=인민의 뜻을 고무추동함
- 5 불계=관계하지 않음
- 6 동지자=뜻이 같은 사람
- 7 재원풍족=재부, 원료가 풍부한것
- 8 공연직필=사회적언론을 그대로 적는것
- 9 민지경성=인민들을 각성시키는것
- 10 각보관의=여러 보도기관
- 11 자취기화=자기스스로가 얻은 화

S01.str id=3897

5

가사 (3)

부랑자경고가

부랑자(주해-1) 경고가

(작자미상)

어화 우리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오
사천여년 력사있고
오백년래 교화(주해-2) 받아
물극필변천리(주해-3) 로다
문치리약병(주해-4) 이 되야
이십세기 대무대에
문명풍조 점진하니
공상으로 정치법률
구설로는 학문도덕
자라느니 요풍(주해-5) 이오
퍼지느니 박속(주해-6) 이라
경향인물(주해-7) 물론하고

거개여시(주해-8) 하단말가
거룩할사 황천권우(주해-9)
우리 조선 반도민족
남녀동포 몇분이오
례의렴치 숭상하고
충효정렬(주해-10) 근본삼아
주(주해-11) 구박(주해-12) 할 파리(주해-13) 하고
법강해이(주해-14) 고향(주해-15) 되야
해외공기 수입하고
학교교육 받건마는
남자사회 사업진취
여자사회 풍속개량
로성(주해-16) 더러 완고라고
순후(주해-17) 하면 야만이라
악풍교정(주해-18) 뉘 할손가
명교타지(주해-19) 가이 없고
천재일우(주해-20) 호기회를
십삼도를 통계(주해-21) 하고
천오백만 인구로다
미풍선속(주해-22) 유전하니
성신민족(주해-23) 이 아닌가
구사불침(주해-24) 하면서도
십상팔구(주해-25) 순민(주해-26) 이라
순량풍기(주해-27) 측투하고
피상개화(주해-28) 자칭하야
언언필칭(주해-29) 하건마는
일무기실(주해-30) 웬일인가
허영심은 자꾸 늘고
실천궁행(주해-31) 선천사라
정치탁란(주해-32) 그지없고
무가내하지(주해-33) 진두에
광명일월(주해-34) 조요하고
문화 일변 하단말가
일시동인(주해-35) 은택중에

동진동화(주해-36) 장려하니
재산보호 무삼 걱정
근검저축분(주해-37) 내사라
달구 치니 할수 없어
죽도사도 몰아야도
일전이전 노력대은
부모처자 구활(주해-38) 하고
노예천대 면해보고
사람구실 하여볼가
많고적고 조상기업(주해-39)
일조일석 결단내야
세상천하 큰 죄인은
면할수도 바이 없고
제손으로 제손 쳐서
사람마다 환영하니
지식발달 못할손가
경제발전 못할손가
실업(주해-40) 하여 기한하고
자본없어 피곤하야
사람마다 생명구전(주해-41)
큰 욕심에 관계되야
문호보전(주해-42) 할 생각은
빈부귀천 일반이라
주야불망(주해-43) 미친 시름
사람마다 있건마는
오날에는 만석군이
래일에는 상거지라
남의 조소 못 막으며
친척릉멸(주해-44) 더욱 설다
가석할사(주해-45) 좋은 금전
광대우로(주해-46) 함유하니
산무도적도불습유(주해-47)
요순세계강봉하니(주해-48)
할일없이 죽을지경

천신만고 못당할 일
 심지타락(주해-49) 행여 말고
 지체활동(주해-50) 어서 하야
 인도존중 이내 일은
 아무조록 회복하야
 없던 사람 심장보소
 있는 재물 없애려고
 신수 혹시 기박하야
 죄악없이 패망해도
 제 상각도 못생긴눔
 후회불급(주해-51) 할터인데
 도깨비 몰매질하듯
 패가망신하는 자제(주해-52)
 한이 있는 이 재물이
 얼마하야 번적들가
 분명히 이리한줄
 길을 막고 물어보소
 선산화로(주해-53) 그리한지
 정신병로 그리한지
 이런 일이 무삼일가
 백번 생각 천번 연구
 양매창(주해-54) 미균(주해-55) 처럼
 흑사병 전염처럼
 더 모를일 지방작자(주해-56)
 천동에 발가숭이
 빙빙 돌고 빙빙 돌아
 없애느니 금전이라
 이 금전이 융통하면
 경제계가 흥왕할지
 만일 천치갈을지면
 기망할거 없지마는
 경위 알고 형세 알고
 문명 알고 법률 알고
 물퍼쓰듯 흉파쓰듯

이월동풍 얼음녹듯
 시월북풍 락잎지듯
 열이면 열 다 그러하고
 백이면 백 다 그렇건만
 제 재산을 제가 탕패 (주해-57)
 제 생명을 제가 단송 (주해-58)
 불가사 (주해-59) 의 하온 일은
 부랑자의 사업이라
 북촌자제 (주해-60) 남촌자제
 량반자제 부호자제
 끓는 국에 맛 모르고
 잠방잠방 들어간다
 짚신 신고 모은 재물
 만석군혜 (주해-61) 다 없애고
 개인으로 불작시면
 황금산진불부래라 (주해-62)
 회뚝회뚝 걸모양과
 반들반들 약은 체는
 사요나라 (주해-63) 쫓바이도
 제가 모다 알것마는
 함부로 막 없애니
 휘휘뻥뻥 돌아보니
 종로각장이 한가지라
 알고도 그러한지
 모르고 그러한지
 제 가정을 제가 몰락
 제 문호를 제가 복망 (주해-64)
 한두사람 그런것도
 알수 없는 까닭인데
 귀족자제 평민자제
 력력가수 (주해-65) 하는중에
 경성같은 변화지와
 항구같은 대도회에
 개똥줍고 모은 재물

양료리에 다 없앤다
 경제계가 흥왕해도(주해-66)
 다시 성립 못하리라
 알밋기도 천하 없고
 매끄럽기 둘도 없네
 팔삭만에 해산인지
 오장륙부 불구인지
 밤낮으로 하는 과정
 거지될 졸업이오
 부랑자 내신 삼신(주해-67)
 제 집안에 업원(주해-68) 이라
 한번 돌려 생각하니
 만물중에 귀한 인생
 혼전혼전 변화 부귀
 조부형의 모은 재물
 팔자 좋게 자라나니
 단상물림(주해-69) 철부지라
 눈에 띄는 료리점은
 천하옥경(주해-70) 높아있고
 내 인물은 어떠한고
 갑갑증도 절로 날제
 금단방석(주해-71) 높이 앓어
 원숭이 흉내보니
 팔자춘산(주해-72) 다사리고
 료수추파(주해-73) 송정하며
 신선복지(주해-74) 이곳이오
 극락세계 여기로다
 암흑면(주해-75) 하는 행위
 종신징역감이로다
 남의 일도 하분하야
 이처람 꾸짖음도
 뱀뇌병신(주해-76) 부랑자야
 세상에 왜 있으리
 근검성(주해-77) 가 하얏든지

박할취렴(주해-78) 하얏든지
 가정교육 하는처람
 주색잡기(주해-79) 엄금하니
 귀에 듣는 기생방은
 인간(주해-80)요 깊이 쓰니
 화란춘성(주해-81) 만화방창
 때마침 호시절에
 식전방장교자상(주해-82)에
 산진해착(주해-83) 별려있고
 불로초 한노래를
 평생 처음 당해보니
 아마 내가 몽중이지
 래일 또한 이럴른지
 가소롭고 가련하다
 가석(주해-84)하고 가통하다
 인종으로 대우하니
 실례태심(주해-85) 가엽도다
 천금같은 귀동자로
 각색간난(주해-86) 알배 없고
 전곡포목(주해-87) 닥산(주해-88)이오
 의복음식 여사이라
 돈 한푼도 못써보고
 술 한잔을 못먹는다
 그 물색은 어떠한고
 궁금증도 그지없고
 어찌어찌 기회없어
 밝은 달 높은 집속
 전후좌우 절대가인(주해-89)
 기화요초(주해-90) 란만이라
 차생인가(주해-91) 후생인가
 천상인가 인간인가
 한번하고 두번하니
 하울 일은 이뿐이라
 금장안경(주해-92) 중절모(주해-93)에

류행외투 말속하게
 기생보학(주해-94) 절로 늘고
 오입학문(주해-95) 진보되야
 순금패물(주해-96) 나는 싫소
 보석비환(주해-97) 백금반지
 우이스기(주해-98) 백포도라
 구리개 안합호와
 경니골 이태잔에
 삼월(주해-99) 오복지점속에
 미술공장 신행상회(주해-100)
 산보가서 귀중품과
 매화단(주해-101) 이중우직
 첩보화병(주해-102) 비취호를(주해-103)
 오늘날에는 몰강선(주해-104)
 용전여수(주해-105) 기미보고
 교언령색보비위로(주해-106)
 암치벽대불가미라(주해-107)
 교제 차차 넓어지니
 엄지발과 추축(주해-108) 하야
 양류록음청량리(주해-109) 에
 이집 가고 저집 가니
 집집마다 환영이라
 남북촌(주해-110) 은군자를
 누구누구 헤여보니
 데난술은 나난싫소
 새일에는 구미호(주해-111) 라
 삼십륙반미인계(주해-112) 와
 칠십이법덕이관(주해-113) 에
 호테루에 저녁 먹고
 만원내기 오팡(주해-114) 이라
 앵무비취백릉과(주해-115) 와
 매화죽엽동정월(주해-116) 이라
 만이천봉 금강이오
 명사십리 해당홍이라

진고개 구옥상점(주해-117)
 전후진행 팔난봉이
 덜미에 새째기요
 턱아래 곱꼭이라
 룡산철교 달구경은
 의기양양 자동차요
 은안백마도춘풍(주해-118)이라
 어서어서 못쓸망정
 아니 쓰면 막출(주해-119)이라
 말라야 말수 없고
 아니 하든 못할 일은
 아차차차 잊었구나
 선부랑자가 또 있구나
 건달친구 오색(주해-120)이오
 축일상종팔풍(주해-121)이라
 모모야마 신마찌(주해-122)와
 내사주(주해-123)를 내가 보니
 으대호걸 나뿐이라
 증명 위조 전답(주해-124) 팔고
 수형지출(주해-125) 무전대금(주해-126)
 부모가 말려 될 말인가
 돈도 없고 밥도 없고
 집도 없는 저 화상
 일원이원 물으면서
 아빨(주해-127) 먹고 료리 먹고
 하로라도 못가면은
 내돈 두고 못쓰며는
 왕장군지 고자(주해-128)로다
 전래조업(주해-129) 누가 알며
 청전구물(주해-130) 다 무엇가
 잠수합석(주해-131) 물젓듯이
 에라 놓아라 못놓겠다
 나 좋은걸 누가 말려
 천화두창흑함(주해-132)되듯

룡지(주해-133)를 해도 못놓구다
 어깨바람 맨활개에
 나의 춤에 놀아나서
 밤을 새야 손금 보고
 몸이 달아 뜨끈뜨끈
 집이라고 돌아와보니
 사추석골 등 단 집에
 그로 길을 잘못 들어
 어찌하면 회도하(주해-134)가
 시집살이 멀미 나서
 리혼서(주해-135)로 사요나라
 의복음식 별사치로
 돈 없고는 못살겠네
 콩볶구니 잘불노의
 신에 바이 안불건만
 등 만지고 배 만지고
 이도 좇아 저도 좇아
 여의행위(주해-136)를 보니
 심상(주해-137)이 좋지 못하다
 남이 만일 권고하면
 고구독약이 리하건만(주해-138)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홍이황(주해-139)이 웬 일인가
 썼다 버섯다 기린탈(주해-140)
 인류대우 하울손가
 문명진화 장애물을
 일직성이 안풀린다
 별별발명(주해-141) 또 보시오
 유출유기(주해-142) 련화대(주해-143)라
 이리 가고 저리 가니
 이손저손 내 팔자라
 걸리거라 정자 한번
 한밥먹고 말터인대
 조화불은 별기계는

덕국비행기(주해-144) 외딴(주해-145) 이라
 매인열지(주해-146) 하고보니
 밀매춘(주해-147) 이 별호로다
 이 부랑자 저 부랑자
 제 화상을 그려보니
 발연변색(주해-148) 하는 말이
 내 권리를 내 가지고
 아는체로 개두환면(주해-149)
 신문기재 질문하고
 제 아무리 발피(주해-150) 라도
 이런 자유 또 있는가
 어찌하면 종단말가
 향기처자색처량(주해-151) 이라
 여간다 제간다는
 누구누구 떠보살님
 고무거각 माम님(주해-152) 은
 특하면은 갈라서서
 한번두번 잣거붓브니
 봉은 없고 까막까치
 그러나 저러나 이노릇을
 하자하니 술한 교생
 여의사진을 보니
 교잔등이 반반하나
 가엽도다 말로 운명(주해-153)
 암만해도 ○○○○
 내 재물을 내 쓰는걸
 남이 자유 압박하야
 명예박할모칭(주해-154) 하야
 형사소송 제출하니
 풍속화란(주해-155) 이 아니며
 사회타락 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하니
 속이 석은 인물이라
 가엽구료 가엽구료

부랑패악가(주해-156) 엮구료
 사람 한번 출세할제
 음양오행(주해-157) 정기 받아
 한번 얻은 생명이오
 신속한 이 생명이
 위인사업 못할망정
 문호수성(주해-158) 못할손가
 부모훈계 위반하니
 자신의 득죄(주해-159) 이오
 관헌명령 거역하니
 국가에 득죄이오
 오대죄(주해-160)를 다 범하니
 천지간(주해-161)에 난용이라
 인수무과개지위귀(주해-162)
 고치머는 선량인물
 드르면 다행이라
 안들어도 할수 없소
 관세음보살(주해-163) 마가살(주해-164)
 손목 잡고 권고하면
 안들올리 만무하다
 신언서관(주해-165) 저러하고
 상당재산(주해-166) 저러한대
 만물중에 신령하고
 천지간에 삼재(주해-167)로다
 백년광(주해-168)은 일포화(주해-169)로
 한번 가는 생명이라
 여화여옥(주해-170) 저 얼골로
 부랑패가 웬 일이오
 권속생활 결렬(주해-171) 하니
 가족에 득죄이오
 미풍선속 수란(주해-172) 하니
 민속에 득죄로다
 살아도 죽은 목숨
 죽어도 나쁜 귀신

백죄참회(주해-173) 할작시면
 지옥밖의 극락이오
 청여불청재피(주해-174) 하니
 내 직책은 가할다름
 여보시오 부랑자님
 말 한마디 들으시오
 신사숙녀 자격으로
 부랑패가 웬일이오
 귀중한 이 생명이
 전만고에 후만고에
 성인철부(주해-175) 못될망정
 선남선녀야 못될손가
 아스시오 말으시오
 부랑사업 말으시오
 친척친지 타매(주해-176) 하니
 사회에 득죄이오
 다섯죄에 한 죄라도
 범하며는 대죄인대
 침뺨고 손꾸락질
 사람이 차마 할일이오
 개과천선(주해-177) 할양이면
 월식후(주해-178)의 청팡이라

《대한자강회월보》1907. 10.

- 2 교화=이끌어서 감화시킴, 가르쳐서 착하게 됨.
- 8 물극필변천리토다=재물이 궁진하면 필연코 바른 도리가 변하는 법이라는 뜻.
- 4 문치리약=학문과 법령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과정에 기강이 약화됨. 문덕으로 정치를 하는중 약해짐
- 5 요풍=야박한 풍
- 6 박속=박한 풍속
- 7 경향인물=서울과 지방의 인물
- 8 거개여시=모두가 온통 이와 같음
- 9 황천권우=하늘이 돌보아줌
- 10 충효정렬=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성 다하며 남편에게

행실과 지조가 곧고 열렬함

- 11 주구=관청에서 백성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아감
- 12 박할=가죽을 벗기고 살을 베어냄
- 13 파리=울타리
- 14 법강해이=나라의 법과 규률이 풀림
- 15 고향=고자세로 남에게 굽실거리지 않음
- 16 로성=로련하고 성숙함
- 17 순후=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움
- 18 악풍교정=나쁜 풍조를 바로잡음
- 19 명교타지=인륜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은 땅에 굴러떨어짐
- 20 천재일우호기회=천년에 한번 있는 좋은 기회, 절호의 귀중한 기회
- 21 통계=한데 모아쳐서 셈함을 의미함
- 22 미풍선속유전=미풍량속을 후세에 전함
- 23 성신민족=신성한 민족이라는 뜻
- 24 구사불첩=곤난이 극도에 달하여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음
- 25 십상팔구=십중팔구와 같은 뜻
- 26 순민=순박한 백성
- 27 순량풍기측투=순량한 풍기가 맑고 넘쳐나다.
- 28 피상=겉모양. 진상을 추구하지 않고 표면만을 보고 내리는 판단
- 29 언언필칭=말끝마다 일컬음. 말할 때마다 꼭 일컬음
- 30 일무기실=하나도 실속이 없음
- 31 실천궁행선천사=실지로 몸소 실행하는것이 앞서야 할 일
- 32 탁란=흐리고 어지러움. 혼란
- 33 무가내하지진두에=어찌할수 없이 땅이 다 없어진 마당에
- 34 일월조요=해와 달이 빛나다
- 35 일시동인=차별없이 똑같이 사랑함. 일제가 조선사람을 일본 사람과 똑같이 차별없이 사랑한다고 하던 기만정책
- 36 동진동화=함께 나아가 하나로 변화됨. 일제가 조선사람을 동화시키려고 한것을 가리킴
- 37 근검저축분내사=부지런하고 알뜰하게 하여서 재물을 모는것은 제 분수에 마땅한 일이다.
- 38 구활=구원하여 살림
- 39 조상기업=조상이 대대로 이어오는 사업과 재산
- 40 실업하여 기한하고=직업을 잃고 기갈과 추위에 떨고
- 41 구전=구차하게 보전

- 42 문호보전=문벌을 보전함
 48 주야불망=밤이나 낮이나 잊지 않음
 44 친척릉멸=친척들이 업신여기어갈봄
 45 가석=애뜻하게 아깝다. 가엽다.
 46 광대우로함유=비와 이슬이 광대하게 퍼져감. 넓게 전파됨을 뜻함
 47 산무도적도불습유=나라가 태평하고 풍속이 아름다워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주어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
 48 요순세계경봉=우에 현명하고 도덕이 높은 통치자가 있어 화려한 세상을 만남
 49 심지타락=마음과 뜻이 타락함
 50 지체활동=전신의 활동
 51 후회불급=뒤늦게 뉘우쳐도 쓸데없음
 52 자제=남의 아들의 존칭
 53 선산화=조상의 산소를 잘못 쓴데서 왔다고 하는 재앙
 54 양매창=매독
 55 미균=곰팡이균
 56 작자=위인(사람됨)의 낮은 말
 57 탕패=가산을 다 없애여 거덜이 남
 58 단송=보내는것을 끊다. 여기서의 남은 목숨을 끊음을 뜻함
 59 불가사의=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함
 60 북촌자제남촌자제=서울의 북촌과 남촌의 사대부집안 자식들
 61 만석군혜=대지주의 신
 62 황금산진불부래=황금을 다 흘으려 써없애면 다시 얻지 못함
 63 사요나라꿀바이=사요나라는 일본말, 꿀바이는 영어로서 다 헤여질 때 쓰는 안녕히...라는 인사말
 64 복망=망쳐없앰
 65 력력가수=또렷하게 헤아림
 66 홍왕=홍해서 왕성함
 67 삼신=아기를 마련해준다는 세신. 삼신령
 68 업원=저승에서 지은 죄로 이승에서 받는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쓰는 말
 69 단상물림철부지=철부지 어린이
 70 옥경=《하늘나라》옥황상제가 산다는 가상적인 서울
 71 금단방석=비단방석

- 72 팔자춘산다사리고=미인의 고운 눈섭형으로 눈섭을 여덟팔자형으로 다스림
- 73 옥수추파송정=가을의 푸른 파도에 정을 실어보낸다는 말
- 74 신선복지=신선이 사는 복된 땅이라는 뜻
- 75 암흑면하는 행위=암흑으로 향하는 행위
- 76 뇌병신=배안의 병신
- 77 근검성가=부지런하고 검소하여 한집안을 이룸
- 78 박할취렴=남의 가족을 벗기고 살을 끊어내어 락탈함
- 79 주색잡기업금=술과 녀색놀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놀음질을 엄히 금지
- 80 인간요깊이 쓰니=인간의 아름다운 허울을 깊이 쓰니
- 81 화란춘성만화방창=꽃은 봄의 성가에 란만히 피고 화창한 기운은 바야흐로 가득차다.
- 82 식전방장교자상=먹을것을 많이 차려놓은 큰 장방형 교자상
- 83 산진해착=산과 바다에서 나는 물건으로 만든 맛있는 반찬
- 84 가석하고 가통하다=가엾고 아픈 일이다.
- 85 실례태심=실례막심
- 86 가색간난=농사가 매우 힘이 들고 고생이 큼
- 87 전곡포목=돈과 곡식 천류
- 88 닥산=다꾸산이라는 일본말로서 많음을 뜻함
- 89 절대가인=둘도 없는 미인
- 90 기화요초란만=아름답고 기이한 꽃과 풀이 활짝 피고 퍼져 화려함
- 91 차생인가 후생인가=이 세상인가 아니면 래생인가.
- 92 금장안경=금테안경. 금으로 장식한 안경
- 93 중절모=꼭대기의 가운데가 접히고 채양이 둥글게 생긴 모자
- 94 보학=계보에 관한 학문. 여기서는 화류계에 대한 지식을 말함
- 95 오입학문진보되야=오입질하는 부문에 환히 밝음을 말함
- 96 순금폐물=순금으로 만든 장식품. 순금으로 만든 노래개
- 97 보석비환=보석팔가락지
- 98 위스기백포도=위스기와 포도주
- 99 삼월오복지점=일본인이 경영하던 미쯔고시퍼복상점의 분점
- 100 신행상회=몇몇사람이 모여서 경영하는 상업기업체의 명칭
- 101 매화단이중우직=매화단으로 만든 겹하오리(후다에하오리). 하오리는 일본인들의 옷으로 곁에 입는 짧은 옷
- 102 칠보화병=칠보로 만든 꽃병
- 103 비취호=비취색(질은 초록색)병

- 104 물강선=미상
- 105 용전여수기미보고=돈을 물쓰듯 하는 기미를 보고
- 106 교언령색보비위=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좋게 꾸미는 얼굴빛으로 비위를 맞춤
- 107 암치벽대불가미=《암치(소금에 절이여 말린 민어)뼈에 불개미 덤비듯한다》는 속담. 암치벽대는 암치뼈를 말함. 이 속담은 리익을 탐내어 못사람이 덤벼드는것을 의미한다.
- 108 추축=벗사이에 서로 왕래하며 사귄
- 109 양류록음청량리=버들의 록음이 우거진 청량리(서울교외에 있는 지명)
- 110 남북촌은군자=서울 남촌과 북촌의 은군자(부귀공명을 탐내지 않는 숨은 군자)
- 111 구미호=오래 묵어서 꼬리가 아홉개 돌치여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 여우
- 112 삼십륙반미인계=서른여섯가지 미인계
- 113 칠십이법덕이판=미상
- 114 오광=화투에서 스무끗짜리 5개를 통털어 이르는 말로서 제일 높은끗수의 종합을 의미함
- 115 앵무비취백릉과=앵무새와 비취새가 흰과도를 타며 나르다.
- 116 매화죽엽동정월=매화와 대나무가 우거진 동정호의 달밤
- 117 진고개구옥상점=서울 진고개에 있는 일본인의 《가메야》상점
- 118 은안백마도춘풍=은빛안장을 한 흰말을 타고 봄바람을 쏘이며 가다.
- 119 막출=나오지 않음
- 120 오색=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다섯가지 빛갈
- 121 축일상종팔풍=날마다 서로 사귀어 놀면서 아니가는데가 없고 못하는것이 없음
- 122 모모야마신마찌=서울 진고개에 있던 유곽마을을 가리켜 이르는 말
- 123 사주=사람이 난 년, 월, 일, 시의 네 간지. 혼인이나 점치는데 자료로 하였음. 사주팔자
- 124 전답=논밭
- 125 수형지출=어음을 발행함
- 126 무전대금=전당잡히지 않고 돈을 꾸어냄
- 127 아빨=미상
- 128 교자=봉건시기 각 군아에서 물건을 둔 창고를 맡아보던 사람
- 129 전래조업=조상때부터 전해내려오는 가업

- 130 청전구물=푸른 전(짐승의 털로 만든 모직물의 한가지)과 집안에 전해오는 물건
- 131 잠수함석=미상
- 132 천화두창흑함=천연두를 앓다가 마마가 끓을 때 농포속에 출혈이 되어 빛같이 검어지는 현상
- 133 룡지=룡지처참. 머리, 손, 발, 몸통을 토막치던 극형
- 134 회도=배가 돛대를 돌리다. 그런 의미에서 병이 차차 나는것을 비유하기도 함
- 135 리혼서로 사요나라=리혼서를 써가지고 서로 헤어짐. 사요나라는 일본말로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 136 여의=너의
- 137 심상이=마음속의 생각이
- 138 고구독약이 리하건만=입안에서 쓴 약이 병에 리롭건만
- 139 홍이황이=붉고 누렇고
- 140 기린탈=기린모양을 한 탈. 선량한듯이 가면을 씌
- 141 별별발명=죄가 없다고 별별소리를 다하여 변명함
- 142 유출유기=점점 더 기이함
- 143 런화대=극락세계에 있다고 하는 대. 또는 봉건시기 나라 잔치때에 추던 춤의 한가지
- 144 덕국비행기=적국의 비행기
- 145 외딴=따로 떨어져있음. 운동에서 혼자 판을 치다.
- 146 매인열지=매사람을 보다.
- 147 밀매춘=밀매음.
- 148 발연변색=왈카 성을 내어 얼굴빛을 변함.
- 149 개두화면=일의 근본은 고치지 않고 사람만 갈아서 그대로 시킴.
- 150 발괴=정확한 직업이 없이 부랑하는 무리.
- 151 항기처자색처량=항상 굶주린 처자들의 물골이 처량함.
- 152 고무거각마마님=높고 큰 다락집의 존귀한 마님.
- 153 말로운명=인생말로의 운명.
- 154 명예박할모칭=명예를 손상시키고 이름을 거짓 꾸밈
- 155 풍속화란=풍속에 재앙을 주고 어지럽힘.
- 156 악가=화답하는 노래,
- 157 음양오행=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것을 음. 양의 두 원리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을 목, 화, 토, 금, 수의 변전으로부터 설명하는 낡은 시대의 철학.
- 158 문호수성=문벌을 지킴.

- 159 득죄=죄를 지다.
 160 오대죄=다섯가지 큰 죄. 오류를 범한 큰 죄.
 161 천지간에 난용=하늘땅 사이에서 용납될수 없음.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함.
 162 인수무과개지위귀=누구인들 과오가 없으랴만 그 과오를 고치는것이 귀하다.
 163 관세음보살=보살(불교에서 부처 즉 석가모니의 다음 지위에 있는 성인이라고 함).
 164 마가살=마가부인 즉 석가모니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이나 마가살이나 다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인용한 말.
 165 신언서판=사람이 갖추어야 할 네가지 조건 곧 신수, 말씨, 문필, 판단력.
 166 상당재산=어지간히 많은 재산.
 167 삼재=하늘과 땅, 사람.
 168 백년광=백년의 광채.
 169 일포화=하나의 물거품.
 170 여화여옥=꽃과 같고 구슬과 같이 고운.
 171 권속생활결렬=집안의 생활이 궁하여 식구들이 흩어짐.
 172 수란=어지럽힘.
 173 백죄참회=백가지 죄를 깊이 뉘우쳐 고침.
 174 청여불청재피=듣고 안듣는것은 그에게 달려있음.
 175 성인철부=덕망이 높은 사람과 어질고 밝은 부인.
 176 타매=침을 뱉고 욕을 마구 함.
 177 개과천선=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
 178 월식후의 청광=월식을 하여 어두웠던 뒤에 맑게 비치는 광채.

S01.str id=1888

득의천지

득 의 천 지 (주해-1)

(작자미상)

분쟁시대 당코 보니

조선천지 좁다하고
 횡행당세(주해-2) 하는 인물
 저 활개에 못살겠네
 전국국권 양여(주해-3) 하고
 일시세력 도적하여
 자기 지위 높였으니
 배우고 배속 빈다
 앞뒤에 인력거는
 일순보(주해-4) 보호서
 각 대신의 활개짓
 외인에게 응견(주해-5) 되어
 저심장을 환저하고(주해-6)
 일본부에 시행하여(주해-7)
 유공불급(주해-8) 하는구나
 자위단을 성립하여
 동국인종(주해-9) 잔인하니
 일진회의(주해-10) 활개짓
 유개지에 필보할제
 좋은 기회 만났고나
 마아연혈 저사같이
 무소불위(주해-11) 행험한다(주해-12)

1908.

- 2 횡행당세=그 시대 세상에서 제멋대로 행동함
- 8 양여=자기 소유를 남에게 넘겨줌
- 4 일순보 보호서=일본 순경의 보호밑에
- 5 응견=사냥개
- 6 저심장을 환저하고=제 정신을 다 잃음을 뜻함
- 7 일본부에 시행하여=우의 명령을 집행함을 의미함
- 8 유공불급=두려워서 할바가 못됨
- 9 동국인종 잔인하니=같은 조선사람에게 모질게 구니
- 10 일진회=1904년 송병준, 윤시병, 라용구 도당이 조직하여 《한일합방》을 위하여 활동한 매국적정치단체
- 11 무소불위=못할일이 없음
- 12 행험한다=험한짓을 마구 한다.

송 병 준 아

(작자미상)

남산죽(주해-1)을 베어내고
동해수를 기울여서
여연대필(주해-2) 빼어들고
내무대신 송병준의
전후죄악 털거하여
세계만국 공분가(주해-3)에
일치공람 하여볼가
송병준아 말 들어라
무죄배를 주어모아
일진회를 조직할제
광언망설 다 만들어
허다 량민 몰아다가
마굴속에 빠트리니
네의 죄가 한가지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네가 바로 천종(주해-4)이나
한국신민 분명하고
널리 국은(주해-5) 입었거든
일본놈의 종이 되어
선언서를 발표하니
네의 죄가 두가지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기관신문 창설하여
천연공리(주해-6) 위반하고
횡설수설 잡된 말로
조국정신 말살하고
사회정론 배척하니

네의 죄가 세가지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간사배와 체결하여
 7협약(주해-7)을 만들어서
 군대까지 해산하여
 단성고기(주해-8) 삼천리에
 혈우성풍(주해-9) 비참하니
 네의 죄가 네가지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민총신의 가산전토
 불유여지(주해-10) 특탈하며
 교아모택(주해-11) 저 정경은
 초목금수 소리하고
 인신재울(주해-12) 비분하니
 너의 죄가 다섯이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전기견육(주해-13) 장중하여
 위국인을 부동하고
 완도군의 저 산림을
 매도코저 인허(주해-14) 하여
 좌우주시 하였으니
 너의 죄가 여섯이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신문계의 언론자유
 구적같이 질시하여
 치안방해 한다하고
 검열압수 임의대로
 전국이목 엄폐하니
 너의 죄가 일곱이요
 송병준아 말 들어라
 목중무군 너의 심장
 존엄지에 발걸(주해-15) 하여
 모소기단(주해-16) 충돌하고
 내외국에 왕래하여

막중국법 무시하니
 너의 죄가 여덟이라
 대역부(주해-17)도 송병준아
 일대요사 송병준아
 최악원영 송병준아
 사가필봉 삼엄하고
 렬사설부 불등이라
 네 아무리 철신인(주해-18)들
 삼척왕장(주해-19) 면할소냐

1909년

- 1 남산죽=남산의 대나무.
- 2 여연대필=섬세한 큰붓.
- 3 공분가=공적인 일에 분격을 느끼는 사람.
- 4 천종=천한 신분의 종.
- 5 국은=나라의 은덕.
- 6 천연공리=생긴 그대로의 공정한 리치.
- 7 7협약=정미 7조약을 말함.
- 8 단성고기=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양양한 기운.
- 9 혈우성풍=피의 비바람.
- 10 불유여지=있는 땅을 전부.
- 11 교아모택=옛스럽고 아담하여 멋이 있는 집.
- 12 인신재울=신하들이 원한을 품음.
- 13 전기견육=전기간에 육을 봄.
- 14 인허=인정하여 허가함.
- 15 발검=칼을 빼듬.
- 16 모소=남을 업신여겨 비웃음.
- 17 대역부도=큰 반역으로 인도에 어그리짐을 이르는 말.
- 18 철신=쇠로 만든 몸이라는 뜻.
- 19 삼척왕장=엄한 법, 엄한 형벌.

개꼬리 3년

(작자미상)

려항(주해-1) 물론 들어보고
내외신문 살펴보면
일본인의 모든 행위
가통한 일(주해-2) 허다하다
국여국간(주해-3) 교제정책
시비선악하여함(주해-4)은
종후평론(주해-5) 하려니와
남녀간의 개인행위
개명키는 교사하고
야만중의 제일이니
3년목은 개꼬리가
황모되기 극난일세
일본인의 행위보소
삼삼오오 작당하여
경향각처 출몰하며
개명했다 자칭하며
각종교육 있는중에
도덕학교 없으려던
무슨 학문 못배워서
이런 졸업 하였던고
동양일우(주해-6) 교도중에
짐승소행 저러하니
암만해도 야만일세
일본인의 행위보소
계집조차 피상하여
도적질로 일삼다가
경찰서에 피착(주해-7) 하니
녀자이라 하는것은
국민도야공장(주해-8) 인데
어미행실 저럴제야

그 교육을 받은 자식
완전할리 만무하다
문명제도 과장하나
이런 행위 종종하니
암만해도 야만일세

...

일본인의 행위보소
타인상표 위조하여
제가 발명 한채하고
타인물품 병들이며
타인영업 이해(주해-9) 하니
경쟁이라 하는것은
천만사에 연구하여
지력상승(주해-10) 함이어늘
지교심장(주해-11) 못버리고
기인(주해-12)으로 위주하여
도덕심은 박무(주해-13) 하니
암만해도 야만일세

1909년

- 1 려항=백성들의 집이 모여있는곳.
- 2 가통한일=통탄할만한 일.
- 3 국여국간=나라와 나라 사이.
- 4 시비선악하여함은=옳고 그르고 착하고 악함은 여하간에.
- 5 종후평론=박하지 않게 평론. 또는 뒤에 평론.
- 6 동양일우 고도중예=동양의 한구석 외진 섬속에.
- 7 피착=남에게 잡힘.
- 8 국민도야공장=국민을 교육교양하는 사람이라는 뜻.
- 9 이해=남에게 해가 미치게 함.
- 10 지력상승=슬기의 힘을 상승시킴.
- 11 지교심장=지극히 교묘한 생각.
- 12 기인=사람을 속이다.
- 13 박무=두렵지 못함. 보잘것 없음.

병문수작

병 문 수 작 (주해-1)

(작자미상)

모춘(주해-2)2월 장안가에
병문사회 친구들이
명석자리 깔아놓고
3355 둘러앉아
밤웁한판 놓고나서
그중일인 출론(주해-3)키를
오늘날도 심심하니
조정공론(주해-4) 하여볼가
(네 말 좋다 그래보자)
한사람이 나왔으며
여보게들 내 말듣게
량반인지 돈반인지
개를 팔아 두량반가
량반커녕 돈반에도
안살것은 량반인데
씩어지고 값이 없어
량반노릇 못할레라
(씩었으면 냄새날걸)
또 한사람 나왔으며
여보게들 내 말듣게
대신인지 등신인지
신이 커서 대신인가
대신커녕 등신만도
못한것은 대신일세
앞뒤순사 등쌀통에
대신노릇 못할레라

(막말한다 잡혀가리)
 또 한사람 나왔으며
 여보게들 내 말듣게
 정부인지 지옥인지
 매음녀의 정부(주해-5)인가
 정부커녕 지부라도
 권리자재(주해-6) 하건마는
 노예성질 가진자는
 불여무의(주해-7) 악정부라
 (정부 따라 인천갈가)
 또 한사람 나왔으며
 여보게들 내 말듣게
 사회인지 생회(주해-8)인지
 조갑깍질 사회(주해-9)인가
 사회커녕 생회라도
 각기소용 되건마는
 정신단합 못한회는
 불며무의 사사회(주해-10)라
 (산사회나 마중가자)
 또 한사람 나왔으며
 여보게들 내 말듣게
 지사(주해-11)인지 망사(주해-12)인지
 야홍타령 지사인가
 망사려나 홍사려나
 여부지사(주해-13) 없었고나
 헌신보국 못할진대
 제사 무삼 지사려나
 (가지산줄 몰랐더냐)
 또 한사람 나왔으며
 여보게들 내 말듣게
 위생인지 고생인지
 위험위자 위생인가
 고생이냐 망생이냐
 두말없이 희생이지

먹을것도 없는 살림
똥값낼돈 어디 있니
(뉘탓이나 망할놈들)

《가사집》 1985년

- 2 모춘=늦은 봄.
- 3 출론=론의를 시작하다.
- 4 조정공론=조정의 정사를 서로 론함.
- 5 성부=유부녀가 남편 몰래 정을 통하는 남자.
- 6 권리자재=권세를 휘두르는것.
- 7 불여무의=없느니만 못하다는 뜻.
- 8 생회=생생한 회(회음식)
- 9 사회=불기운이 다 죽은 재가루.
- 10 사사회=죽은 사회.
- 11 지사=뜻있는 사람.
- 12 망사=망하는 일.
- 13 여무지사=옳은 지사와 그른 지사.

S01.str id=1892

춘성유람

춘 성 유 램 (주해-1)

(작자미상)

운담풍경(주해-2) 근오천(주해-3)에
방화수류(주해-4) 유람코저
환량처참(주해-5) 란간중에
울음소리 랑자하다
휘장급(주해-6)급 찾아간즉
주인옹(주해-7)은 잠만자고
아동들만 모여앉어
호천호지(주해-8) 통곡하니

그 리유를 물어보자
(차례대로)

이 아희야 말 들어라
무삼일로 통곡이나
기백년래(주해-9) 상전(주해-10) 하던
토지가옥 이내 산업
건너편집 저 주인이
지은 빛도 없었는데
근일동정 살펴보면
아조 제것 만들려고
백반운동 하는모양
그를 슬어 통곡이요
(그렇겠다)

저 아희야 말 들어라
너는 어이 통곡이나
간힘(주해-11)하며 준달제도
곡창에 든 저 전곡과
남북전답 저 토지를
분전립곡(주해-12) 못써보고
사음한개 못냈거던
아조 제것 되고보면
생활방책 없어지니
그를 슬어 통곡이요
(울만하다)

저 아희야 말 들어라
너는 어이 통곡이나
저의것을 만든후는
내방사랑(주해-13) 저의 차지
토지전곡 저의 차지
산정별당(주해-14) 행랑(주해-15)까지
모두 앓아 저의 차지
어느 방에 거쳐하며
어느 전답 경작할가

그를 슬어 통곡이요
(불쌍하다)
저 아희야 말 들어라
너는 어이 통곡이냐
천무이일(주해-16)이라 하고
가무이주(주해-17)이라는데
건너편집 저 주인이
우리 집의 주인되면
우리 형제 교사하고
주장하던 우리 부모
피실곳이 전무하니
그를 슬퍼 통곡이요
(참혹하다)

저 아희야 말 들어라
너는 어이 통곡이냐
건너편집 저 주인이
저럴듯이 운동함은
불법야심 이 시대에
무뢰배의 레사였만
우리 집의 노예배가
저것들과 배가 맞아
통거리채 내주랴니
그를 슬어 통곡이요
(분하겠다)

놀랍고도 슬프도다
네 아모리 통곡한들
통곡으로 면할소냐
너를 위해 계획컨대
일개방침 열너리니
너이끼리 정신차려
일심단합 한 연후에
백절불굴 할량이면
제아모리 포악해도
범할수가 없느니라

- 2 운담풍경=구름은 없고 바람은 가볍다.
- 3 근오천에=한낮 가까운 때에.
- 4 방화수류=향기로운 꽃과 수양버들.
- 5 환량처참=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하고 참혹한것.
- 6 휘장급급=막대질고 급급히.
- 7 주인옹=주인령감.
- 8 호천호지=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치며.
- 9 기백년래=몇백년동안.
- 10 상전=대대로 전해오던.
- 11 간힘=가늌하며.
- 12 분전립곡=아주 작은 돈과 곡식.
- 13 내방사랑=안방과 사랑채.
- 14 산정별당=산의 정각과 별장.
- 15 행량=대문가에 붙어있는 하인방.
- 16 천무이일=작업을 옮기는것.
- 17 가무이주=집을 이사하는것.

S01.str id=1893

필하단평

필 하 단 평 (주해-1)

(작자미상)

참의삼경(주해-2) 세우시(주해-3)에
 왕래무인 적막하다
 무료(주해-4)하여 일어앉어
 신문철을 펼쳐놓고
 이리저리 열람할제
 우슨 일도 많거니와
 통탄할 일 더욱 많다

사람비평 하는것이
 이내 본심 아니건만
 의분지심 못참기로
 모모대신 요새 행동
 붓을 들어 규탄한다
 총리대신 리완용은
 무슨 망발 하였던지
 망발풀이 하느라고
 일대연(주해-5)을 하였다니
 리완용의 꼬락신에
 망발이란 뭐 있으리
 룡담간에 망발함도
 수치될줄 알바에는
 민국사에 망발하여
 전국타마(주해-6) 받는것은
 수치인줄 뭐 모르나
 교약하다 이 당신아
 내무대신 박제순은
 저택과수(주해-7) 개척하고
 새 정자를 짓는다니
 종묘사직(주해-8) 돌아보라
 덤불속에 들어있고
 지방인민 살펴보라
 로변가(주해-9)의 신세로다
 네의 이름 제순이라
 제가 할줄 알바에는
 네의자가(주해-10) 헌평이라
 평천할줄 뭐 모르나
 교약하다 이 당신아
 농상대신 조중응은
 상회소(주해-11)에 전왕(주해-12)하여
 재정류통 저 방침을
 신신설명(주해-13) 하였더니
 능언쟁정(주해-14) 쓸데 있나

첩첩리구(주해-15) 말만 말고
 주관자가 되였거던
 실지진행 할것이지
 무사분주 웬일인고
 지이불행(주해-16) 하는것은
 불여부지(주해-17) 이 아닌가
 답답하다 이 당신아
 보국대부(주해-18) 민영치는
 내외주인 고등관(주해-19) 과
 사회신사 청방(주해-20) 하여
 성연개설(주해-21) 한다하니
 접제보객 좋지마는
 너의 신분 생각하라
 금일지위 여하한가
 쓸데 없는 접보말고
 치문속에 용력하듯
 향응(주해-22) 하는 저 부비(주해-23) 로
 학교에나 기부하지
 답답하다 이 당신아
 구원의장 김윤식은
 관광단원 조직할제
 모모인사 대하여서
 찬성권고 하였더니
 너는 내시(주해-24) 독서사(주해-25) 다
 반대치는 못할망정
 정신조차 잃었던가
 일본국을 유람시에
 일본혼이 들었던가
 팔십당년 로혼하여
 망년증이 생겼는가
 답답하다 이 당신아

1985년

2 참의 삼경=(참의는 미상) 삼경은 밤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사이.

3 세우시에=가랑비 내리는 때.

- 4 무료하여=심심하여.
- 5 일대연=하나의 큰 연회.
- 6 전국타마=온 나라가 타격을 받고 짓밟히는것.
- 7 저택과수=제 집의 과수원.
- 8 종묘사직=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9 로변가=길가.
- 10 자=본이름외에 부르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이름 대신
으로 부름.
- 11 상회소=여러 사람이 함께 장사하는 상업상의 조합.
- 12 전왕=앞으로 감.
- 13 신신설명=거듭거듭 설명함.
- 14 능언쟁정=말은 잘하나 실속이 없음.
- 15 첩첩리구=수다스럽게 말을 잘함.
- 16 지이불행=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음.
- 17 불여부지=모르느니만 같지 못함.
- 18 보국대부=보국승록대부의 준말. 리조때 정일품 문무관의 품
계.
- 19 고등관=일제시기 관리등급의 하나.
- 20 청방=청해부르다.
- 21 성연개설=성대한 연회를 베풀.
- 22 향응=특별히 마음써서 융숭하게 대접함.
- 23 부비=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 24 내시=환관.
- 25 독서사=하나밖에 없는 능한 서도가.

S01.str id=1894

괴 로 세 계

(작자미상)

풍광처처(주해-1) 한반도가
연극장이 되였구나
무도하는 모양
아악소어(주해-2) 하는소리

외면상으로 볼작시면
한인인듯 하지마는
피뢰세계뿐이로다
피뢰장에 들어가서
일일장관 하여볼가
제1장에 들어서니
피뢰대신 회의한다
프로코트 고모자(주해-3)로
허허하는 한소리에
각령부령(주해-4) 떨어지면
팔도인민 죽어나고
조약협약 하고보면
삼천리가 떠나간다
그 피뢰가 장관일세
제2장에 들어서니
피뢰기자 앉았으나
한인신문인체하나
등뒤에서 재리들이(주해-5)
요리조리 놀리는데
붓을 들고 기록하면
원쭉들은 구가하며
제 나라는 장적(주해-6)한다
그 피뢰가 장관일세
제3장에 들어서니
피뢰설객(주해-7) 지껄인다
고구나설(주해-8) 떨벌리고
유세연설(주해-9) 하노라고
조조취취(주해-10) 하는모양
박첨지와 방불하다
주장하는 그 취지는
국민정신 말살한다
그 피뢰가 장관일세
제4장에 들어서니
피뢰회원 모였구나

좌우관을 벌리고서
 무슨수나 있는듯이
 산취하는(주해-11) 그모양
 오작같이(주해-12) 놀아난다
 조국사상 반분(주해-13) 없고
 부위사업(주해-14) 웬일인가
 그 피뢰가 장관일세
 슬프도다 피뢰배야
 회대상(주해-15)에 저 광대가
 제 리익을 위하여서
 등신같은 너희들은
 지금 놀러먹거니와
 리익점유(주해-16) 다한후엔
 네 신세도 가련이다
 조조회오(주해-17) 개과(주해-18) 하야
 남의 피뢰 되지 마라

《대한매일신보》 1909. 9. 8.

- 1 풍광처처=경치가 쓸쓸함.
- 2 아악소어=악기소리. 웃으며 떠드는 소리.
- 3 고모자로=고가 높은 모자.
- 4 각령부령=내각과 부서의 지령.
- 5 재리들이=재상들과 관리들이.
- 6 장적한다=주색에 빠져 몸을 해친다는 뜻. 여기서는 녹아난다는 뜻.
- 7 설객=연설쟁이.
- 8 교구나설=말이 많아 입방아를 심히 찢음.
- 9 유세연설=달콤한 연설.
- 10 조조취취=재잘재잘 지껄이다.
- 11 산취하는=사망으로 돌아치며 얻는다는 뜻.
- 12 오작같이=가막까치같이.
- 13 반분=반쪽각.
- 14 부위사업=대외사업인듯.
- 15 회대상=무대우.
- 16 리익점유=리득을 차지함.
- 17 조조회오=빨리 죄를 뉘우쳐 깨닫다

망량세계

망 량 세 계 (주해-1)

(작자미상)

망량이라 하는 요물 괴중(주해-2)에 제일이라
범벅덩이 탐이 나서 백십위군(주해-3) 떼를 지어
동섬서홀(주해-4) 분주하며 흥요빙괴(주해-5)
조화부려
허다 괴변 양출하니(주해-6) 이 세계가
망량천지되었구나
정부상의 대관들은 권리공고 열이 나서
한면일장(주해-7) 떠받들고 금일 남산 번쩍타가
명일 동경 달아나서 외인지휘 하는대로
별별 정책 꾸며내어 괴뢰장을 화성하니
망국하는 망량이오
정당계의 역귀들은 편시권리(주해-8) 탐이 나서
세세전래 자가산을
타인수중 양과(주해-9) 하고
동등권을 창도하여 무지동포 우롱하니
매국하는 망량이오
유세객(주해-10)에 변사들은 삼삼오오 작단하야
어경어향(주해-11) 출몰하며
린의(주해-12)이니 교분이니
친밀하자 돈목(주해-13)하자 무지우맹(주해-14)
몰아놓고
감언리설 놀리내어 자국정신 말살하니
무민(주해-15)하는 망량일세

...

1909. 11. 18.

- 2 피중에=피상한것들속에서
- 3 백십위군=백명 또는 수십명으로 무리를 이룸
- 4 동섬서홀=동에 번쩍 서에 번쩍
- 5 흥요빙괴=요사한것을 복돋고 피상한것을 초래하여
- 6 양출하니=빛어내니
- 7 한면일장=조선사람의 낮을 가졌으나 속은 왜놈의 심보가 들어참
- 8 편시권리=한때의 권리
- 9 양과=사양하여 넘겨준다.
- 10 유세객=연설생이. 여러곳으로 돌아다니며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정당 등의 주장을 설명하는 사람
- 11 어경어향=서울과 시골에
- 12 린의=이웃지간의 우의
- 13 돈목=친목이 두렵다.
- 14 무지우맹=무지하고 어리석음
- 15 무민=백성을 속이다.

S01.str id=1896

6

가사 (4)

언문풀이노래

편운생

ㄱ ㄴ

1. 기억니은 기억하세 십 삼삭을
니은잡지 신문계는
ㄷ ㄹ
디긋리을 디긋디긋 곤난참아
리을방침 얻었으니
우리들의 행복이라
2. 가가거겨 가고가는 세월따라
걸음걸음 진진함은
교교구구 교명하신 선생들이
구름같이 모임이니
신문계가 장하도다
3. 나나너너 나는 한때 밥끓어도

너를 놓고 못살리라
노노누누 노난 때에 좋은 친구
누을 때에 어진 배필
신문계가 중하도다

4. 다다더더 다스할 때 다스하고
더울 때에 더운 시절
도도두두 도라와서 4월되니
두해첫뚫 되었고나
신문계가 미쁘도다
5. 라라러러 라무네(주해-1)를 사마신듯
러출포도 따먹은듯
로료루류 로곤한 때 편히 씌듯
루추한 몸 목욕한듯
신문계가 쾌하도다
6. 마야머머 마되마되 보배말삼
머리뇌속 깊이 넣어
모묘무묘 모사(주해-2)할 때 내어쓰고
무식한자 가라치니
신문계가 묘하도다
7. 바바버버 바다같이 넓은 학문
버려놓은 조목대로
보보부부 보고읽고 생각함이
부허(주해-3)사상 없어지니
신문계가 진실토다
8. 사샤서서 사람된자 우리들로
서로서로 직분지켜
소쇼수슈 소란한 일 없게 하고
수다량민 양성하기
신문계가 적당토다

9. 아야어여 아해라고 핑계말고
어룬이라 적세 (주해-4) 말소
오요우유 오만한자 겸손하며
우매한자 명철키는
신문계가 필요토다
10. 자자저저 자력없는 청년들은
저희집에 있어서도
조쵸주쵸 조고마한 돈을 들어
주공하기 편리하니
신문계가 보화로다
11. 차차처처 차례차례 내려보아
처음부터 끝에까지
초쵸추쵸 초번재번 돌아보매
추한 마암 정케 되니
신문계가 귀하도다
12. 카카커커 캄캄한 밤 종소래는
커서 녀녀 들니리라
코쿄쿠큐 코를 끌며 잠든자들
구렁구렁 가증하나
신문계가 깨우도다
13. 타타터터 타국학사 내국학사
터득해논 모든 학리
토토투튜 토론하며 설명하야
투철하게 가라치니
신문계가 감사토다
14. 파파퍼퍼 파할것은 파해주고
퍼칠것은 퍼쳐주어
포포푸퓨 포견 (주해-5) 했든 구습병증 (주해-6)
풀어주며 고쳐주니
신문계가 고맙도다

15. 하하허허 하날따에 모든 리치
 허다하게 많것마난
 호호후후 호리(주해-7)라도 남김없이
 후생에게 가라치니
 신문계가 만세로다

《신문계》 1914. 제4호

- 1 라무네=청량음료의 한가지, 레몬즙에 물, 사탕, 시럽이나 탄산을 탄 물.
 2 모사=어떠한 일.
 3 부허=마음이 들떠서 허황함.
 4 적세=가문의 세도.
 5 포견=비단으로 짠.
 6 구습병증=오래 습관되어온 나쁜 버릇을 일컬음.
 7 호리=자나 저울논의 호와 리, 극히 적은 량을 말함

S01.str id=1897

평 화

(작자미상)

(자운)

아아 불평한 강화를 체결한 너희들 겁지말나
 아아 탐욕적야심가의 너희들
 아서오는 그것을 좋아말어라
 불평한 그 몽치가 솟아날 때는
 평화의 그 광채가 없어질지오
 한만은 이 마음이 폭발될시는
 강하든 그네들도 굴복하리라
 화한듯 감한듯이 누어있음은
 을마동안 때움을 기다림이다
 체결하여 내려온 모든 그것을
 결단코 그저두긴 차마 어렵다

한바탕 뒤편들던 우리 새 소래
너희들의 그것슬 고쳐주리라
희망의 기 저곳에 꽃혀있으니
들고들고 또 들면 들날있겠다
갑히 던 잡깨치는 저의 종소래
거의거의 이 강산 모다 올이니
말없던 우리들이 소래응하야
나는듯이 저리로 뛰어나가네

《만주일보》1919. 8. 14.

S01.str id=1898

정 의

(작자미상)

(자운)

우리는 그 의리를 길게 직히어서 참된 형제가 되자
우리들의 사랑하는 고향꽃 한송이를
리화원에 옮겨다가 곱따케 길렀더니
는지도 을마 못된 급한 바람 모진비에
그꽃이 떠러지자 향기조차 스러졌다
의리를 지키자고 꾸게 맺인 우리 맹세
리별없이 같이 있어 그 꽃을 바랐더니
를마가 못되어서 그 무엇에 그것으로
길이길이 저 곳으로 내 아주 가는구나
계전에 심어있던 사랑하는 저 송죽의
직히고 직히는것 그 맘 하날 믿었더니
히아리지 못할것은 그 총렬 두가지라
여러해 믿었듯이 구름같이 해졌도다
서리치고 찬아참에 느끼는 저아회야
참고참고 또 참어서 네 앞길 생각하랴
된다 하다 아니됨을 네 락심 아니하면
형체는 없어져도 그의 일흠 빛이 난다

제아무리 내 앞길을 막고져 애를 써도
가고가고 또 나가면 안될일 없으리라
되겠다든 우리 자각 가삼에 삭여놓고
자든잠 각성한후 활무대로 나가보자 1919. 8. 26.

S01.str id=1899

회 개

(작자미상)

(자운)

야심을 없시함이 사회의 미풍
야심의 있고없음 내가 알거든
심을썩 있고없음 내가 알었다
을마 못됨 그불평 내어더저서
없을하세 힘을 써 성공해보자
시기 잃치 말고서 이러나면은
함락사지(주해-1) 그네들 건져내리라
이해없는 그 야심 열는 바리고
사회에 모든 사업 허여볼가나
회맹(주해-2)하고 나가는 거기 있거니
의리를 돌아보매 눈물 흐르고
미수한것 그하나 내가 못하니
풍우에 빠진동포 서러하노라

1919. 9. 4.

1 함락사지=죽을 땅에 굴러떨어짐.

2 회맹=모여서 서로 맹세함.

S01.str id=1900

우리의 동포

소석생

(자운)

고생중인 이 세상에 불상한 우리들이여
고생중인 이 세상을 락원천지 만드소서
생각하면 분하여서 십년전일 눈에 암암
중인으로 모드였는 구주강화 저곳에서
인도정의 주장하야 모든 민족 자유주네
이상하다 우리 반도 무삼죄를 지였는가
세상에서 모도하는 그 자유를 못웃는가
상사로다 상사로다 이것이야 참말상사
에헤에헤 우리들도 자유민족 되여보세
불상하고 가련하다 집없는 우리들이여
상제의 큰 신덕으로 오날 기히 만나으니
한시바빠 분투하야 좋은 기회 일치말세
우리들도 우리위해 분투노력 힘쓸지니
리치에 당연하거든 어느 누가 말할손가
들어보소 우리들도 일흔집을 찾아보세
이 기회는 한번가면 다시오지 못하나니
여보시오 우리 동포 이 기회를 리용하세

1919. 9.4.

S01.str id=1901

한

(작자미상)

(자운)

내 마음의 한되는것
내가 믿든 저의 친구
마음조차 변하야서

음흉할사 저의 흉계
의리까지 저바리네
한이 된다 한이 된다
되어가는 이 집안을
는지 을마 못되어서
것저놀것 무삼일가

1919. 9. 6.

S01.str id=1902

각 성 하 라

일몽

(자운)

우리들은 무엇인가 조선민족대표일세
우주를 흔들든 바람
오날이야 진정되니
리웃집도 야단이오
건너집도 야단이라
들석들석 하는 광경
보고지고 보고지고
은하수를 리용하여
견우직녀 상봉하니
무삼일로 그리한지
반가와서 야단일세
엇지하면 우리들도
저와 같이 반기일가
인류행복 모다얻고
반기고서 질거할고
가세가세 어서 가세
극락세계 찾아가세
조흔 령광 들고저
분투용진 하여보자
선진하고 맹진하면

어려울것 무엇잇나
민망하다 감언리설
그것들을 믿는이들
족할것이 무엇이나
나는 그를 슬퍼한다
대명천지 밝은날에
잠을 깨고 정신차려
표준의기 구시잠고
어서어서 나아가거라
일코나서 후회함은
소인배의 할일이라
세계각국 다찾는것
누구 무서 못할손나

1919. 9. 6.

S01.str id=1903

지기를 지호, 부지호

지기를 지호, 부지호 (주해-1)

일 몽

(자운)

자신력이 확실하면 타인을 의심치 마소
자고있든 가온대서
꿈을 깨고 일어났어
신무대를 바라보면
너의 마음 상패하리
력력할사 그 꿈이여
영영 잇고 생각마소
이것저것 생각하니
무섭고도 분하도다
확연자각 하난 때에

정신차려 생각하소
실상으로 못하는것
답답하고 가련하다
하고싶고 보고싶어
그 꿈 얼른 없애기를
면려분발 하고보면
없애기가 용이하다
타령잡가 고만두고
일반지식 힘을 쓰게
인생일세 부운이니
한번가면 다시없네
을마동안 꾸든 꿈을
깨고보면 상쾌하다
의지없는 형제자매
달려들어 통곡하네
심하고도 절통하다
오날이나 깨여보소
치하연을 열게 되면
그대마음 질겨우리
마귀에게 잃은 정신
찾고보면 웃더한가
소소한것 좋아 말고
앞에 일을 도라보게

1919. 9. 9.

S01.str id=1904

도화일지 취하기를

일몽

(자운)

우리들의 뜻은 굳고 나의 목적 정당하다
우습고도 우스운것

인생일세 춘몽이니
 리화도화(주해-1) 만발한 때
 나와 같이 화유(주해-2) 가세
 들도 보고 꽃도 보면
 기쁘고도 상쾌하리
 의지없고 수분없는
 도화일지(주해-3) 가련하다
 뜻과 힘을 모도이면
 취하기가 용이하니
 은근하게 비는것을
 잊지 말고 취하여라
 굳이 잡고 놓치말면
 좋은 향기 어디가랴
 고대광실 높은 집에
 도화꽃을 심어놓게
 나와 너와 같이 있어
 도화연(주해-4)을 하고보면
 의지없고 수분없든
 도화꽃에 향내난다
 목단장미 부끄러워
 그의 안색 무광하니
 적년토록(주해-5) 두고두면
 향내 더욱 진동하네
 정처없이 무성하야
 그의 향내 확실하면
 당상당하(주해-6) 모든 가족
 희락하여 무도(주해-7) 한다
 하로라도 지체하면
 그의 향기 스러지며
 다시연기 절망이니
 도화일지 일치마소

1919. 9. 12.

1 리화도화=배꽃 복숭아꽃.

2 화유=꽃놀이.

- 3 도화일지=복숭아꽃 한가지.
- 4 도화연=복숭아꽃놀이잔치.
- 5 적년=여러해.
- 6 당상당하=대청아래와 위. 여기서는 상하 모두를 의미함.
- 7 무도=춤을 춤.

S01.str id=1905

망 향 가

일 몽

(자운)

반가온것 명월이오 무정함은 흑운일세
반갑고도 반가온것
저기 저달 광채이오
가늘고도 약한것은
우리들의 마음일세
온갖 힘과 지혜내어
그 달 잡기 소원이나
것잡을수 없는것은
그의 힘과 지혜로다
명철하고 굳세인것
모다내고 지체말면
월왕구천 누구인가
질겁고도 상패하다
이일저일 생각할 때
추천명월 그 누구냐
오십세기 그동안에
잠만 자고있었고나
무력시대 없어지고
문학시대 도라오니
정의인도 주장하는

함구무언하든 사람
그 달앞에 애원하야
은근하온 동정얻고
동모의게 통정한다
흑인종을 면하고서
백인종과 같이 되게
운소중에 높이 뜬 달
얼른 잡고 놓치말라
일시인들 그의 광명
없고보면 어두운것
세살먹은 아해들도
원망하고 싫어한다

1919. 9. 17.

S01.str id=1906

석 두 면

토 운

(두운(주해-1))
성길사한지명절목진(주해-2)야
성공실패는 영웅호걸의 레상사요
길흉화복(주해-3)은 인간만사의 색옹마(주해-4)라
사고국 애동포(주해-5)하라 반도청년들아
한루(주해-6)의 고통 인내(주해-7)하고 분투하자
지동지서 지남지북에 숙부동정가(주해-8)
명유천추(주해-9)하라면 신공(주해-10)희생이어다
철석같은 백련(주해-11)간장 우리의 대결심
목생화(주해-12) 화생토로 실력만 양성하면
진정한 우리 자유 완전한 우리 생존
야시몽중(주해-13)인가 석두면을 각성하라
(주해-14)

1919. 9. 26.

- 1 두운=글귀의 첫머리음과 같은 음을 글자의 윗머리에 되풀이하여 넣어짓는 글.
- 2 성길사한지명철목진야=칭기스한의 이름은 철목진이다.
- 3 길흥화복=길흥과 화복.
- 4 색옹마=회남자 인간훈에 나오는 고사. 말을 기르는 어떤 늙은이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는것을 면하여 다른 사람처럼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났다 함. 모든것이 돌고돌아 무상하니 인생의 길흥과 화복이란 항시 바뀌어 예측할수 없는것이라는 뜻.
- 5 사고국애동포=고국을 생각하고 동포를 사람함.
- 6 한루=피눈물.
- 7 인내=참아견딤.
- 8 숙부동정가=누가 동정하지 않으랴.
- 9 명유천추=이름을 천추에 남기다.
- 10 신공=몸을 바치다.
- 11 백련=백번 단련하다.
- 12 목생화화생토=오행의 운행에서 나무가 생겨 불이 되고 불이 생겨 흙이 됨을 말함.
- 13 야시몽중인가=이것이 꿈속인가.
- 14 석두면을 각성하라=무지몽매한 꿈에서 깨어나라.

S01.str id=1907

고목의 봉춘

고목의 봉춘 (주해-1)

일몽

(자 운)

동서남북 두루 살펴보니
 그 가운데 신기한것 있네
 동편바다 망망하고
 서방대륙 광활한대
 남산경계 수려하고

북악기상 웅장하다
두터울사 그의 광명
루천년을 누리다가
살살 부는 모진 바람
펴고 올 때 어찌했나
보았나냐 그의 매력
니가 갈녀 말 못하게
그윽하든 슬프음을
가진 네가 아니더냐
온갖 고초 겪었으니
대용기를 펼치어서
신평조의 주는 영화
기리(주해-2) 삼고 찬미하게
한도 차고 때 왔으니
것침이며 상애됨을
있는대로 구축하고
네 소원을 달하여라

1919. 9. 27.

2 기리=뜻하지 않은 리익. 또는 그 리운

S01.str id=1908

제 목 없 이

남 강 생

(자 운)
우리난 전진생
우루우루 천동하고
번개 번적 비 오더니
리화꽃은 떨어지고
박달나무뿐이로다

난데없난 일진광풍
그것조차 뽑으랴네
전에 굳은 그 뿌리가
일조일석 쓰러질가
진애중에 싸인가지
바람무서 못구하랴
생명수를 뿌리랴고
분투용진 하야보세

1919. 9. 30.

S01.str id=1909

교는 락의 종

교는 락의 종 (주해-1)

사 물

(자 운)

지금의 우리 교생 장래의 락이로다
지금의 우리들은
교생중에 싸였네
금음밤에 불없이
혈덕이는 우리들
의위싸고있는것
제일 못된 악말세
우리의 지금 교생
비관말고 힘쓰면
리상저끝 결과가
불원간에 오리라
교생끝에 락이란
예로부터 있는 말
생각하고 깨다라
락심말고 해보소
장차고 무한하든

우리들의 고생이
래두에 끝있을것
자신하고 분발해
의리없는 저 악마
죄 내쫓아바리고
락엽진 오얏남게
꽃구경을 합시다
이제는 그전 고생
다 없애바렸다고
로유남녀 다 모혀
지낸 고생 생각해
다정코 재미있게
기쁜노래 부르세

1919. 10. 1.

S01.str id=1910

비관하는 그대여 !

윤 립 생

(자운)

쓸데업시 울지말고 구계 믿어 기버하자
쓸쓸한 찬바람에
거튼들에도
대가 와서 혼풍이
부는 날이면
업드렸든 금수도
용기 내이고
시들었든 초목도
새엄돋나니
울어서 네의 마암
상하지 말고
지저귀는 소래에

속히 깨여라
말은 가자 울어서
너를 재촉코
고개우에 태양은
석양 알원다
구세인 네 팔다리
어서 뽀옴내라
계림들에 헤매는
가련한 생명
믿을곳이 도모지
네몸뿐이니
어서바삐 일어나
저들과 같이
기쁨으로 뛰놀며
노래부르자
버서버린 네 굴레
그것 위하야
하날로서 반가운
소래 들닌다
자유종의 울리는
희미한 교동

q 1919. 10. 11

S01.str id=1911

청년의 주의

서 탐 황 생

(자운)

청춘소년 허송말고 일시빳비 진취하세

청년네 여보소

이때를 좇자
 춘삼월 도라오면
 초목생화발(주해-1)
 소원성취하여서
 죽백(주해-2)에 일흠내
 년년히 진보하야
 한시노지 마세
 허 우습다 말고
 참고 견디게
 송죽같은 이내몸
 일편단심이
 말리에 비졌으니
 또한 가석타
 고상한 만일보
 세계금불환
 일년 삼백륙십오
 비일날없이
 시각을 지체말고
 경성케 하소
 밧부고 이 시대에
 선진자 뉘오
 비수를 높이 들어
 한번 깨치니
 진명세계 밝은 날
 또 이 아닌가
 취수팀팀 이 세상
 오날이 분명
 하도락서법(주해-3) 그려
 삼륙일기라
 세월조차 여류해
 춘외춘부래(주해-4)

1919. 11. 4.

1 초목생화발=풀과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폼.

2 죽백=력사기록. 력사.

- 3 하도락서법=주역의 리치의 기본이 된다는 55개의 점과 9무더기로 된 45개 점.
 4 춘외춘부래=봄밖의 봄이 다시 온다.

S01.str id=1912

나의 소원

(작자미상)

(자 운)

천리원정 일편신세 설상가상되단말가

천산만수 비낀길로
 리리촌 찾아가니
 원근촌에 계명성(주해-1)은
 정녕 나를 깨우는듯
 일생 나의 강한 마음
 편골분육(주해-2) 될지라도
 신립양명(주해-3) 하재더니
 세궁력진(주해-4) 되단말가
 설한복풍 참담한대
 상등객선 몸을 실어
 가주대양 건너가니
 상강립동 지났도다
 되도록은 학업답아
 단단하고 강한 결심
 말한 목적 성공되면
 가이 귀국 하려니와

1919. 11. 6.

- 1 계명성=새별.
 2 편골분육=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가루가 됨.

3 신립양명=립신양명과 같음.

4 세궁력진=힘이 다 진하여 형세가 궁하여짐.

S01.str id=1913

창가 (1)

대조선 자주독립 애국가

리 필 균

아세아에 대조선이
자주독립 분명하다
합가 애야애야 애국하세
나라 위해 죽어보세

분골하고 쇠신토록
충군하고 애국하세
합가 우리 정부 높여주고
우리 군 면 도와주세

깊은 잠을 어서 깨어
부국강병 진보하세
합가 남의 천대 받게 되니
후회막급 없이 하세

합심하고 일심되야

서세동점(주해-1) 막아보세
합가 사농공상 진력하야
사람마다 자유하세
남녀없이 입학하야
세계학식 배외보자
합가 교육해야 개화되고
개화해야 사람되네

팔괘국기(주해-2) 높이 달아
륙대주에 횡행하세
합가 산이 높고 물이 깊게
우리 마음 맹세하세

《독립신문》 1896. 5. 9.

- 1 서세동점=서쪽의 세력과 동쪽의 침범하는 세력.
- 2 팔괘국기=팔괘가 표시된 당시의 국기.

S01.str id=1914

애 국가

전 경 력

봉축(주해-1) 하세 봉축하세
아국태평 봉축하세
꽃피여라 꽃피여라
우리 명산 꽃피여라
열매 열라 열매 열라
부국강병 열매 열라
진력하세 진력하세
사농공상 진력하세
영화롭다 영화롭다
우리 만민 영화롭다

...

즐겁도다 즐겁도다
독립 자주 즐겁도다
향기롭다 향기롭다
우리 국가 향기롭다
열심하세 열심하세
충군애국 열심하세
빛나도다 빛나도다
우리 국기 빛나도다
높으시다 높으시다
우리 님군 높으시다
장성한 기운으로
세계에 유명하야

1896. 5. 19.

1 봉축=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뜻.

S01.str id=1915

동심가

동 심 가 (주해-1)

리 중 원

잠을 깨세 잠을 깨세
사천년이 꿈속이라
구구세절(주해-2) 다 바리고
상하동심 동덕하세
범을 보고 개 그리고
봉을 보고 닭 그린다
못의 고기 부러 말고

그물 땀아 잡아보세
만국이 회동하야
사회가 일가로다
남의 부강 부러하고
근본없이 회빈(주해-3) 하랴
문명개화 하랴 하면
실상 일이 제일이라
그물땀기 어려우랴
동심결로 땀아보세

1896. 5. 26.

- 2 구구세절=서로 같지 않은 자질구레한 조항.
- 3 회빈=손님을 제쳐놓음.

S01.str id=1916

애 국 가

(작자미상)

즐겁도다 즐겁도다
자주독립 즐겁도다
부국강병 하량이면
영웅렬사 모아다가
사농공상 업을 지어
사시장춘 즐겨보세
남자녀자 교육하여
고등학사 하여보세
생각사록 즐겁도다
동국(주해-1)의 형제들아
동포형제 합심하여
부국강병 하여보세
실상재조(주해-2) 시험하여

동방제일 빛내보세
우리 형제 남녀간에
성덕(주해-3)을 축수하세
이리저리 하여보면
모든 일이 경사로다
부대부대 동심(주해-4)하여
보국애민(주해-5) 하여보세

1896. 7. 18.

- 1 동국=우리 나라를 일컫는 말.
- 2 실상재조=실질적인 재주.
- 3 성덕=임금의 덕. 거룩한 덕.
- 4 동심하여=한 마음이 되어
- 5 보국애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사랑함.

S01.str id=1917

애 국 가

박 기 렬

대조선국 인민들은
독립신문 자세 보오
방자함을 내바리고
꿈들이나 어서 깨오
우리 정부 훼손(주해-1) 말고
마암이나 고쳐보세
아세아중 반도국이
자주독립 분명하니
독립문과 독립원을
일신하게 지어놓고

우리 나라 독립기를
반공중에 높이 달면

독립국도 많건마는
우리 독립 제일이지
...

1896. 8. 1.

1 훼손=남을 비방하는 말.

S01.str id=1918

애 민 가

우리 동국 사람들아
애민가를 들어보오
나라의 부강지업
백성으로 말미암고
어와 우리 백성들아
진충보국 안할소냐
위민부모(주해-1) 어진 덕화
여보적자(주해-2) 하오시며
우리 백성 부요(주해-3) 하면
국가홍왕(주해-4) 절로 되지

1896. 8. 2.

- 1 위민부모=봉건시기 왕은 백성의 《부모》가 되고 각 고을의 원은 고을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으로 쓰이던 말.
- 2 여보적자=백성을 친자식이나 보배와 같이 귀히 여긴다는 말.
- 3 부요=재물이 넉넉함. 부유함.
- 4 홍왕=홍하고 왕성함.

S01.str id=1919

애 국 가

(작자미상)

오천만년 무강지후(주해-1)
 여민동락(주해-2) 하여보세
 천부지재(주해-3) 동포되어
 호생지덕(주해-4) 일반이라
 나라의 독립지권
 백성으로 힘입나니
 불행이 병화기근(주해-5)
 생령도탄(주해-6) 불상하다
 위민자목(주해-7) 밝은 성교
 시민여자(주해-8) 할지어라
 상하일심 개화 힘써
 문명진보 구경코저

1896. 8. 18.

- 1 오천만년무강지후=오천만년의 무궁한 역사를 지닌 나라.
- 2 여민동락=백성과 함께 즐김.
- 3 천부지재=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물.
- 4 호생지덕=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특별히 살려주는 임금의 덕.
- 5 병화기근=전란과 굶주림.
- 6 생령도탄=도탄속에 든 백성.
- 7 위민자목=백성을 돌보아 다스림.
- 8 시민여자=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함.

S01.str id=1920

애국독립가

최영구

대조선국 학도들아
 독립가를 들어보오
 어서 바빠 독립하세
 이때를 잃지 말고
 정부를 보호한후

전국 인민 교육시켜
 합심 두자 잊으며는
 세계상에 쓸대 없네
 깊이 든 잠 어서 깨여
 일심합력 하여보세
 나라 위해 죽거드면
 죽드래도 영광일세
 남의 나라 인민들은
 밤낮으로 교육하네
 사농공상 힘을 써서
 부국강병 되야 보세
 일심으로 독립 위해
 합심 두자 잊지마오
 동포형제 꿈을 깨여
 자주독립 하여보세
 잊지 말세 잊지 말세
 합심 두자 잊지 말세
 독립문을 세운 후에
 나라국기 기운 나리
 사랑사랑 나라사랑
 나라위해 사랑하세
 밤낮으로 공부하여
 충군애민 하여보세
 대조선국 인민들도
 어서 바빠 교육하세
 ...

1896. 9. 8.

S01.str id=1921

애 국 가

김 철 영

잠 깨보세 잠 깨보세

대조선국 인민들아
합심하고 동력(주해-1) 하야
우리 인민 보호하세
정부가 있은후에야
백성들이 의지하고
도와주세 도와주세
우리 정부 도와주세
사랑사랑 사랑이야
백성들은 정부사랑
상하사랑 서로하면
부국강병 자연 되고
정직으로 애국하고
공평으로 애민하야
마자해도 부국되고
안하여도 강병되네
일청국(주해-2)을 압제하고
오대주에 횡행하면

깨칠세라 깨칠세라
독립신문 하온 론설
깊이 든잡 번듯 깨여
자주독립 도와주세
자주독립 하량이면
인민사랑 첫째로다
백성들이 있은후에
정부가 의지되나니
사랑하세 사랑하세
우리 인민 사랑하세
사랑사랑 사랑이야
정부에는 백성사랑
상하의심 없어지면
자주독립 왜 못하리
내외관민 너나없이
애국애민 일심하면

부국강병 된 연후에
우리 국기 높이 달아
독립문이 빛이 나고
독립대에 꽃이 핀다
마대마대 명심하야
사람마다 본을 받세

1896. 9. 15.

- 1 동력=힘을 같이 함.
- 2 일청국=일본과 청국.

S01.str id=1922

운 동 가

(작자미상)

천지추색(주해-1) 가득하니
충의정신(주해-2) 새롭도다
우리 학도 단체되야
자유운동 하여보세
생존경쟁 이 세계에
일보인들 양보할가
물품수취(주해-3) 바빠하니
룰습(주해-4) 경주 민첩하다
량인삼각(주해-5) 일체되야
겸인지용(주해-6) 장하도다
풍우같이 모난 길에
선등기취(주해-7) 뉘 당할가
어두운 길 급히 밝게
제등경주(주해-8) 상패하다
결승천리 일순간에
계산경주 신기하다
몸을 솟구쳐 도약하니

비장군(주해-9)의 용맹이라
 성시같이(주해-10) 빠른 힘은
 일이백보 경주로다
 호령불러 기착(주해-11) 하야
 대오 다시 정제하니
 머리꽂인 국화가지
 개개인의 문명이라
 국기를 높이 들고
 조선독립 만만세라 《황성신문》1906. 1. 30.

- 1 추색=가을풍경, 가을빛.
- 2 충의정신=충성과 절의의 정신.
- 3 수취=받아들이다.
- 4 룰습=밤을 짓다.
- 5 량인삼각일체=두사람이 세다리가 되어 한몸같이 움직임. 두사람이 한쪽다리들을 끈으로 합쳐 묶고 보조를 맞추어 달리는 경주를 가리킴.
- 6 겸인지용=능히 몇사람을 당해낼만한 힘.
- 7 선등기취=먼저 올라가 기발을 뽑음.
- 8 제등경주=등불 켜들고 달리는 경주.
- 9 비장군=행동이 날랜 장군.
- 10 성시같이=쏟살같이.
- 11 기착=《차렷》구령과 같음.

추 도 가

(작자미상)

천지지강지정기(주해-1)가
민충정(주해-2)의 일도(주해-3)로다
피가 흘러 대가 되니
우리 나라 영광이라
거저광(주해-4)은 바빠오니
순절(주해-5)하신 금일이라
전국동포 2천만이
일반추도 하려니와
수간(주해-6)기초 우리 학교
유택상신(주해-7)하시도다
분발할사 학도들아
정녕 유서 잇을손가
충애목적 본을 받아
독립정신 기를세라
년년 이날 이 노래를
기념 삼아 하여보세

1906. 12. 1.

- 1 지강지정기=더없이 굳세고 바른 기개
- 2 민충정=우국지사 민영환을 이르는 말
- 3 일도=한칼.
- 4 거저광=쉬지 않고 가는 세월
- 5 순절=충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
- e 수간=몇몇칸 되는
- 7 유택상신=생전에 남긴 혜택 오히려 새롭다

S01.str id=1924

독립가

(작자미상)

독립혜(주해-1) 독립혜어
대조선 독립이라
2천만 동포형제
독립심을 망치마오(주해-2)
차심만(주해-3) 일망(주해-4) 하면
독립성이 수경(주해-5) 이오
차성만 일경하면(주해-6)
조선인민 장하치오(주해-7)
동해수에 복물(주해-8) 한달
독립심을 기망하며(주해-9)
만리외에 표박한달
독립심을 잇일손가
차심만 물망(주해-10) 하면
풍우상설 교박(주해-11) 하나
필유일일 양춘(주해-12) 이오
차심만 물망하면
도거정확(주해-13) 재전(주해-14) 하되
필유일선 생로(주해-15) 이니
2천만 동포형제
식식(주해-16) 에도 물망하며
2천만 동포형제
전패(주해-17) 에도 물망하오
동포형제 2천만아
독립 이자 물망하오

1907. 2. 16.

1 독립혜 독립혜어=독립, 독립이여 혜는 한문어조사로서 시가의
말끝에 붙여서 음을 메운다.

2 망치마오=잊지마오

3 차심=이 마음

4 일망=한번 잊음

- 5 수경=드디어 기울어지다.
- 6 차성만 일경하면=이 성만 한번 기울어지면
- 7 장하초오=우리 조선백성들이 장차 어디로 가리오.
- 8 복물=한집안이 모두 기울어져 망함. 빠져 없어짐.
- 9 기망하며=어찌 잊으며
- 10 물망=잊지 않음.
- 11 풍우상설교박=바람, 비, 서리, 눈이 엇바꾸어 들이침.
- 12 필유일일양춘=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올것이다.
- 13 도거정확=칼, 톱, 가마솥 즉 필필 끊는 물가마속에 각을 떠서
집어넣으려고 칼과 톱이 그 가마솥앞에 있다해도
- 14 재전=앞에 있음
- 15 필유일선생로=반드시 살아나갈 한줄기 길이 있음.
- 16 식식=밥먹는 짬
- 17 전폐=엎드리치고 자빠짐.

S01.str id=1925

사 상 팔 변 가

(작자미상)

- 제1변 나라하고 상관된
공변(주해-1) 되게 미운놈
한때에 쳐죽여서
이내 분 풀리로다
- 제2변 잘못 처서 못마치면
속절없이 나만 죽네
- 제3변 룩공포(주해-2)로 일른 놓고
빨리 뛰면 일없도다
- 제4변 룩공포를
당장 샀네
- 제5변 남 죽이고 나 살라면
천리에 못되리로다
- 제6변 죽이고서

나도 죽자

제7번 한사람 남 죽이고

한사람 나 죽으면

량인상수(주해-3) 될뿐이라

제8번 한사람 나만 죽어

전국이 감성(주해-4)하면

이 몸이 영화되고 국가에 행복일세

1907. 7. 1.

- 1 공변되게=공평하고 정당하여 사정이나 치우침이 없음.
- 2 룩공포=룩혈포. 탄알을 재우는 구멍이 여섯개 있는 권총.
- 3 량인상수=두사람이 서로 원수가 됨.
- 4 감성=자극 또는 자극의 변화에 대하여 감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

S01.str id=1926

생육사영가

생 육 사 영 가 (주해-1)

(작자미상)

영화로다 영화로다

이내 죽음 영화로다

흙같이 썩은 말도

죽은후엔 금언(주해-2)일세

군사 길러 전쟁보덤

지사(주해-3) 죽음 유력하외

지사 열만 잘 죽으면

잃은 국권 되찾는다

인생 한번 아니 죽나

조만상관(주해-4)뿐이로다

죽지 않고 살라한들
서서 살 따 어대 있나
남의 손에 죽는 날은
희생이 네아니나
나 죽어 영화됨을
보고 어서 따라오게

1907. 7. 1.

- 2 금언=생활의 본보기로 할만한 귀중한 내용을 가진 짧은 어구.
- 3 지사죽음=고매한 뜻을 품은 사람의 죽음
- 4 조만상관=이름과 늦음의 차이관계.

S01.str id=1927

단연동맹가

단 연 동 맹 가 (주해-1)

(작자미상)

어화 우리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소
나라실력 아니며난
한시 반때 견델손가
국민의무 네 글자를
잠이 들면 잊을소나
알뜰하고 절용(주해-2) 하면
거지라도 치부하오
한심하고 절통하다
우리 나라 오날형편
만일 이 빛 못값어서
세상억조 이 창생(주해-3)이
제가 절로 산다 하나
백성 모여 나라되고

나라힘에 백성 사니
 어화 우리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소
 허랑하고 람용하면
 부자라도 패가하오
 사면풍우 해진 집에
 남의 빛은 길이 녀소
 의지없는 우리 동포
 지대(주해-4) 조차 빼앗기면
 풍찬로숙 면할손가
 전호구학(주해-5) 어이할고
 어화 우리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소
 사람마다 알뜰하고
 집집마다 절용하야
 담배 먹난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소
 어한료기(주해-6) 다 못되교
 부질없난 습관일세
 끊어보세 끊어보세
 담바귀를 끊어보세
 부질없난 습관이야
 끊어보지 못할손가
 가로상에 방황하야
 이 생각을 할작시면
 눈속에서 피가 솟네
 오날 우리 국민의무
 무삼일이 제일인고
 티끌 모여 태산되듯
 부강기초 바라보리
 배고플 때 료기되오
 등 치울 때 어한(주해-7) 되나
 부질없난 습관인줄
 깨달어서 짐작이면

몸에 붙은 손발톱도
 불긴(주해-8) 하면 베내거든
 담배 먹난 동포님네
 이내 말삼 들어보소
 담배 하나 끊기로서
 무삼 효험 대단하리
 전국동포 이천만에
 담배 먹난 이 식구를
 하로 먹난 담배값을
 동전두푼 분배하야
 이천만을 합산하면
 칠천이백만원이오
 전국내에 좋은 전지(주해-9)
 오십만두락(주해-10) 이로다
 하로 담배 먹난동안
 매명(주해-11) 반씩 가량하야
 적고적게 셈하야도
 동전두푼 벌것이니
 일만사천사백만원
 중이 빚값 안피들아
 이런 생각 두지 마오
 일천만에 가량하고
 절장보단(주해-12) 타산할제
 일년소비 회계하니
 칠원이 각(주해-13) 되어있소
 매명 일년 담배발을
 반되지기 가량하면
 곡식으로 환종하면
 오십만석 될것이오
 이반시에(주해-14) 사람마다
 놀지 앓고 일을 하면
 담배값과 합계하면
 그 수효가 얼마런고
 사랑흠다 김광제씨

부지중에 얻어있소
 담배 석달 먹지 말고
 나라빛을 갇아보자
 불 당기듯 일어나니
 천의민심(주해-15) 이 아닌가
 이 혈성(주해-16)을 크게 길러
 건건사사(주해-17) 이 같으면
 뉘가 나를 룡모(주해-18) 하며
 뉘가 나를 침범할고
 나라백성 되야나서
 국민의무 못다하면
 비나이다 우리 동포
 단연동맹 길게 지켜
 너고나고 나고너고
 공향태평(주해-19) 하야보세
 가륙하오 서상돈씨
 동맹발기 하든 날에
 전국동포 향응하야
 사랑흡다 우리 동포
 애국열성 가륙하오
 부강도 우리것이오
 문명도 우리것일세
 어화 우리 동포님네
 이내 말삼 잊지 말소
 수족성한 병신이오
 인형탈 쓴 증생이라
 남의 빛을 칭장(주해-20) 한후
 무너진 집 중수하교

《대한자강회월보》 1907. 제10호

- 2 절용=절약하여 씀.
- 3 창생=백성.
- 4 지대=봉지. 여기서서는 우리 령토를 뜻함.
- 5 전호구학=온 집안이 구렁에 빠짐.
- 6 어한료기=추위를 막고 약간의 음식으로 배고픔을 면함.

- 7 어한=추위를 막음.
- 8 불긴=긴요치 않으면
- 9 전지=농토
- 10 오십만두락=50만마지기
- 11 매명반식=매인당 절반씩
- 12 절장보단=긴것을 잘라서 짧은것에 보탠다는 뜻으로 넉넉한 부분에서 부족한것을 보충함을 말함.
- 13 각=1각은 10전에 해당함.
- 14 이반시에=이 번잡한 때에
- 15 천의민심=천심이 민심이라는 뜻.
- 16 혈성=진심에서 나오는 정성.
- 17 건건사사=매사에. 모든 일에.
- 18 룡모=깔보고 업신여김.
- 19 공향태평=태평을 함께 누림.
- 20 청장=빛을 다 갚아서 셈을 밝힘.

S01.str id=1928

제야공송매일보

제야공송매일보 (주해-1)

춘 사 생

광무일월(주해-2) 빛난후에
 룡회건곤(주해-3) 새롭도다
 해외렬강(주해-4) 거동보니
 혈법씨(주해-5)의 공론일네
 오호 조선인사들아
 외국인만 못할소냐
 목수초동(주해-6) 일단심성(주해-7)
 국권회복 기도하네
 탈인○반 무삼걱정
 천봉갱류(주해-8) 녀와씨(주해-9)라

삼동풍설(주해-10) 금일까지
만세룰려 명천부터(주해-11)
동지장야 몽각관(주해-12)에
경세건(주해-13)은 매일신보
흑술세계(주해-14) 한반도에
전기등은 매일신보
매국창귀(주해-15) 미친병에
정문침(주해-16)은 매일신보
차아원원도탄중(주해-17)에
청심환은 매일신보
벽해풍파루선중(주해-18)에
부수초공(주해-19) 매일신보
매화선보춘소식(주해-20)은
호시(주해-21)호시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1907. 12.31

- 2 광무일월=리조 고종시대를 일컬음.
- 3 룡희건곤=리조말 순종시기를 일컬음.
- 4 렬강=여러 강국.
- 5 혈범씨=혈버어트를 가리키는듯. 혈버어트는 미국의 선교사로서 리조말에 조선에 와서 정부의 《교문》으로 있던 정탐.
- 6 목수초동=짐승치는 아이와 나무군아이.
- 7 일단심성=하나로 단결된 뜨거운 정성.
- 8 천봉갱류=하늘이 무너짐이 다시 있음. 즉 큰 변화가 있음을 이르는 말.
- 9 너와씨=전설에서 일러오는 거룩하다는 여자.
- 10 삼동풍설=석달 겨울의 눈바람.
- 11 만세룰려명천부터=래일부터는 만세부르며 음악을 울리다.
- 12 동지장야몽각관=동지달 긴긴밤 《꿈깨는 문》.
- 13 경세건=세상을 깨우치는 《열쇠》.
- 14 흑술세계=흑술나무가 많은 지역을 가리킨 말로 조선을 의미함.
- 15 매국창귀=함부로 날뛰는 매국의 귀신.
- 16 정문침=정수리에 침을 놓음. 《정문일침》 또는 《정상일침》.
- 17 차아원원도탄중=슬프다. 도탄속에 허덕이는 우리 백성들. 도탄속에 든 가련한 우리 백성.
- 18 벽해풍파루선중=풍랑사나운 푸른 바다의 물이 새는 배속에서.

- 19 부수초공=버금위치에 있는 배사공.
20 매화선보춘소식=매화꽃이 먼저 봄소식을 알린다.
21 호시=좋은.

S01.str id=1929

신년 송축가

(작자미상)

독립하게 독립하게
어서어서 독립하게
자유하게 자유하게
어서어서 자유하게
흐르느니 물결이오
바쁜것이 세월이라
눈물코물 씻자마자
룡희 이년 밭씨 왔네
단군시조 자손으로
이 국가를 잇을손가
태조황제 신민으로
이 조정을 잇을손가
새 정신 새 사람에
새 사업만 잘할지면
강의한자 있더라도
제가 어찌 침범하며
무례한자 있더라도
제가 어찌 모욕할가
새해되는 오날날에
새 사람이 어서 되게
어서 되세
어서 되세
어서 독립

어서 자유

...

1908. 1. 1.

S01.str id=1930

심주가

심 주 가 (주해-1)

(작자미상)

어야지야 어서 가자
모든 풍파 무릅쓰고
문명계와 독립계로
어서 빨리 나아가자
멸망과(주해-2)에 뜬자들이
길이 멀다 한탄 말고
희망기를 굳이 쫓고
실행뜻을 높이 달아

부는 바람 자기전에
어야지야 어서 가자

...

어하 조선동포들아
심주가를 화답하세
이 배가 어인 뱃고
조선강토 실은 배라
2천만인 노를 저어
망망대해 바라보니
협약할사 풍랑이오
료원(주해-3) 할사 정도(주해-4) 도다
저 바다를 건너가면
문명세계 있겠마는

동심력(주해-5)을 못하며는
너나없이 침몰한다
도사공(주해-6)이 거누군고
학해선도(주해-7)하는고나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쉬지 말고 어서 가세
이 바다를 건너가면
독립가를 부를세라

《황성신문》 1908. 2. 1

- 2 멸망파=멸망의 파도.
- 8 료원=멀다. 아득히 멀.
- 4 정도=길, 로정.
- 5 동심력=마음과 힘을 함께 함
- 6 도사공=배사공의 우두머리.
- 7 학해선도=《배움의 바다》로 잘 이끌음.

S01.str id=1931

한 양 가

(작자미상)

너 보아라 환한듯 우뚝하게 서
큰 광채를 발하던 저 독립문은
오늘와서 잠시간 빛없을망정
태양같이 환한 날 멀지 않았네

《소년》 1908. 제2권

S01.str id=1932

혈죽가

혈 죽 가 (주해-1)

(작자미상)

협실(주해-2)에 솟은 대는
충정공(주해-3) 혈적(주해-4)이라
우로○ 불식(주해-5)하고
방중(주해-6)의 푸른 뜻은
지금의 위국충심

《황성신문》1908. 8. 8

- 2 협실=결방.
- 3 충정공=충정은 민영환의 시호, 《민충정공》이라 함.
- 4 혈적=피자육.
- 5 불식하고=취지 않고.
- 6 방중의=방속의.

S01.str id=1933

가 곡

(작자미상)

노지마오 노지마오
늪어지면 한되나니
화무십일홍(주해-1)이오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늪기전에
청산아 물어보자
고금사를 네 알리라

홍망성쇠(주해-2)는 지재인이오
부재창천(주해-3)이라 합데
제일을 제가 잘못하고
매양원천(주해-4)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 잡으시오
이 술이 술 아니라
애국으로 비저넣어
일십단체 길러내니
문명발행 자유주라
만일 한잔 잡으시면
충즉진명(주해-5)하오리다
효당갈력(주해-6)하오리다
권권할제 잡으시오

《대한매일신보》1908. 4. 10.

- 1 화무십일홍=열흘간 피는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한것이 얼마 못가서 쇠하여짐을 이르는 말.
- 2 홍망성쇠는 지재인=홍망과 성쇠는 다만 사람에게 달려있음.
- 3 부재창천=하늘에 달려있는것이 아님.
- 4 매양원천=매양 하늘을 원망함.
- 5 충즉진명=충성을 다하자면 목숨을 바쳐야 함. 여기서는 충성 다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오리다라는 뜻.
- 6 효당갈력=부모에게 효성 다하기에 힘씀.

S01.str id=1934

그 무엇이 부족하야

(작자미상)

사요나라(주해-1) 꿈방와는
인인마다(주해-2) 예언되고

바가축쇼(주해-3) 하야꾸(주해-4)는
아동까지 사용하니
4천여년 조국어는
그 무엇이 부족해야
자국인이 상대시에
이종격설(주해-5) 본받느고

1910. 1. 2.

- 1 사요나라 곱방와=일본말로서 인사말.
- 2 인인마다=사람마다.
- 3 바가축쇼=일어로서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하는 욕설. 일제놈들이 조선사람에게 흔히 쓰던 말.
- 4 하야꾸=일어로서 빨리라는 말.
- 5 이종격설=다른 종족의 말.

S01.str id=1935

2

(작자미상)

이천만동포 우리 소년아
국가의 수치 네가 아느냐
천부의 자유권 차가 없거늘
우리 민족 무슨 죄로 욕을 받는가

나라 사랑하는자 적지 않지만
모험맹진하는자 몇이 되느냐
깰지라 소년들아 험한 마당에
조금도 사양 말고 달려나가세 (1910년 전후한 시기
창작보급됨)

S01.str id=1936

아 동 십 진 가

(작자미상)

일-일본에서
이-이등박문이란 자가
삼-삼천리강산을 앗으려다
사-사생결단하고 일어나는바람에
오-오그라질놈들이
륙-륙혈포 감장콩알에 할빈역두에서 쓰러지니
칠-칠십먹은 로인까지
팔-팔다리를 높이 들고
구-구십평생 아깝잖게
십-십년갱생하였더라

《조선문학강독》 1972.

S01.str id=1937

조 선 반 도

(작자미상)

1. 동해에 돌출한
나의 조선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나라이니
나의 사랑함이
오직 너뿐일세
조선반도야
2. 은택이 깊고나
나의 조선반도야
선조들과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의탁하여
생장하였으나
조선반도야

3. 력사가 오래된
나의 조선반도야
선조들의
유적을 볼 때에
너를 사모함이
더욱 깊어진다
조선반도야

4. 일월같이 빛난
나의 조선반도야
둥근 달이
반공에 밝을 때
너를 생각함이
더욱 간절하다
조선반도야

5. 산천이 수려한
나의 조선반도야
물은 맑고
산은 웅장한데
너를 향한 충성
더욱 높아진다
조선반도야

6. 아름답고 귀한
나의 조선반도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바니
나의 피를 뿌려
너를 빛내고저
조선반도야

《조선문학강독》 1972.

8

창가 (2)

서우사범학교 학도가

(작자미상)

서우사범학교 청년학도들
벽상의 패종(주해-1)을 들어보시오
일점 이점 잠간 가난중
인생백년이 여주마(주해-2)로세
동원춘산의 방초록음(주해-3)도
서풍추천(주해-4)의 황엽소림(주해-5)을
청춘소년을 자랑 마시오
명경백발(주해-6)이 가석하도다
후진교육을 담착하랴면
소년강장시가 마땅하깃네
그러므로 대우난(주해-7) 석음(주해-8)하시고
고인이 말하기를 《일각직천금(주해-9)》
이 말을 보감(주해-10) 삼아 복용(주해-11)하시고
잠시라도 태타(주해-12) 말고 면려(주해-13)해보세
생존경쟁 당차시대(주해-14)에

국가홍망이 내게 달냈네
 렬강의 대우를 생각할사록
 노예희생의 치욕뿐일세
 이천만동포 우리 형제야
 차시(주해-15)가 하시(주해-16)며 차일하일코
 (주해-17)
 룩대주대륙의 형편 살피니
 약육강식과 우승렬패(주해-18)라
 국권을 보전하고 동포구제난
 우리들 량견상(주해-19)에 담임의무라
 혈루를 휘쇄(주해-20)하고 분발심으로
 실지상 학문을 연구합세다
 일신이 영귀하고 일국 흥함은
 학문일사박에난 다시 없겠네
 당당한 삼천리 우리 조선이
 세계만국과 동등돼보세
 부모님께 효도하여 영화 드리고
 나라님께 충성하여 공업(주해-21)세우세
 대훈위일등장동상기념(주해-22)은
 천추만세에 죽백류방명(주해-23)
 충신렬사가 비별인이니(주해-24)
 위공(주해-25)을 사모하여 만일 효칙(주해-26)을
 일편정신 우리 조선혼
 학도 학도 사범학도야
 충군애국 혈성심(주해-27)을 잊지 마시오

《서우》1903. 제4호

- 1 벽상의 패종=벽우에 걸린 패종시계.
- 2 여주마=말이 달리는것 같음.
- 3 방초록음=꽃다운 풀과 나무가 우거진 그늘.
- 4 서풍추천=서풍이 불어오는 가을.
- 5 황엽소림=누런잎의 나무가 들성들성 서있는 숲.
- 6 명경백발=맑은 거울에 비친 흰 머리털.
- 7 대우=중국 고대의 어진 왕이라고 일컬어는 우왕의 존칭.
- 8 석음=시간을 아낌.

- 9 일각직천금=한 시각이 곧 천금같이 귀중하다는 뜻.
- 10 보감=모범이 될만한 일이나 물건.
- 11 복용=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음.
- 12 태타=게으름.
- 13 면려=힘써 격려함.
- 14 당차시대=당면한 이 시대.
- 15 차시=이때.
- 16 하시=어떠한 때.
- 17 차일하일고=이날이 어떠한 날인가.
- 18 우승렬패=강한자는 번성하고 약한자는 소멸됨.
- 19 량견상에=량어깨우에.
- 20 휘쇄=물에 흔들어서 깨끗이 빨다.
- 21 공업=공적이 현저한 사업. 큰공로.
- 22 대훈위일등장동상기념=가장 높은 위훈으로 하여 세워 기념함.
- 23 죽백류방명=력사에 기록된 꽃다운 이름.
- 24 비별인이니=별다른 사람이 아님.
- 25 위공=위대한 공로.
- 26 효칙=본받아서 법을 삼음.
- 27 혈성심=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심.

S01.str id=1939

각 학교 운동가

(작자미상)

우리 조선 광무일월(주해-1) 부강안태(주해-2)는
 국민교육 보급함에 전재(주해-3) 함일세
 우리들은 덕을 닦고 지능발하여
 문명개화 선도자가 되어봄세다
 사회상의 많은 사업 감당하라면
 내부외체 강건함이 일대청복(주해-4) 응
 공부할 때 공부하여 학문 연습코
 운동할 때 운동하여 혈류통케(주해-5)

용장(주해-6) 한 정신으로 교문나서서
 친목학우(주해-7) 작대(주해-8) 하여 행보정제
 (주해-9) 라
 천기청량(주해-10) 평원광야 가애(주해-11) 오날날
 국기아래 우리 학교 유쾌운동 응
 인십기백(주해-12) 하는 경쟁심으로
 활발히 경주하야 진보해보세
 적당한 명예는 내게 있나니
 규률을 교수하고 위월(주해-13) 마시오
 앞선 사람 거 누구야 잠시 섰거라
 만인찬양 일등상은 내 물건일세
 이기기를 좋아하고 지기 싫임은
 일국이나 일신이나 일반이로세

《황성신문》1907. 4. 26.

- 1 광무일월=광무(리조 고종의 년호—1897년~1907년)년간. 광무 시대
- 2 부강안태=부강하고 태평함
- 3 전재=전적으로 달려있음
- 4 일대청복=복중에 가장 깨끗하고 큰 복
- 5 혈류통케=혈액순환이 잘 되게
- 6 용장=날래고 씩씩함
- 7 친목학우=서로 친하여 화목한 배움의 벗
- 8 작대=대렬을 지어
- 9 행보정제=걸음이 한결같이 가지런함
- 10 천기청량=날씨가 맑고 명량하다
- 11 가애=사랑할만한, 사랑스러운
- 12 인십기백=열사람으로 백사람을 감당함
- 13 위월=위반

권 면 가

(작자미상)

어화 우리 학도들아
어서 가세 빨리 가세
록새동풍(주해-1) 세다 말고
일심단체 노를 저어
문명계와 독립계로
어기엿차 빨리 가세
시 잃다 한을 말고
저 건너 대어보세
못 건너면 중류도물(주해-2)
건너가면 동락태평(주해-3)
태평건곤(주해-4) 어대매노
자유회복 이 아닌가
자유권이 어대매노
신학문이 여기 있다
대호(주해-5) 조선동포들아
신학발행 열심하세

《대한매일신보》 1908. 3. 18.

- 1 록새동풍=늑새바람(북동풍)
- 2 중류도물=흐르는 물 한복판에 빠져 없어짐.
- 3 동락태평=태평함을 같이 즐김.
- 4 태평건곤=태평세계. 태평한 천지.
- 5 대호=목소리를 크게 하여 부름.

S01.str id=1941

권 학 가

(작자미상)

대동학교 학도들아
 이내 말삼 들어보소
 태평성대 교육들은
 시부표책(주해-1) 공부로세
 청년문장저 사업은
 진사급제 소옥(주해-2) 일세
 백전풍진(주해-3) ○장후에
 삼일유(주해-4)가 영요(주해-5)로다
 불학무식(주해-6) 호탕자(주해-7)는
 차우차필(주해-8) 룡사로세
 포식난(주해-9)의 일거하고
 신구학문(주해-10) 전매로세
 감시(주해-11)증광 폐지(주해-12)되니
 아자주사 극난(주해-13)일세
 국가급업(주해-14) 슬프도다
 부문승상(주해-15) 쓸데 없내
 문명시대 지식 없어
 군수(주해-16) 관찰 양두하내
 여차하고 공곤한들
 수원숙우(주해-17) 하잘소냐

 부패구습 불변하면(주해-18)
 국가전도 어이할고
 어화 우리 학도들아
 일심쓰세 일심쓰세
 삼천강도(주해-19) 오백종사
 우리 견상담착(주해-20)일세
 충군애국(주해-21) 목적 삼아
 어서 바빠 진보하세

1908. 3. 28.

- 1 시부표책=시. 부(한시체의 한가지). 표(생각되는바를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책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글).
- 2 진사급제소옥=진사에 급제하기 위한것.
- 3 백전풍진=여러 싸움의 티끌속.

- 4 삼일유가=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동안 선배와 친척 등을 방문하는 일.
- 5 영요=영광.
- 6 불학무식=배우지 않아 무식한 사람.
- 7 호탕자=호걸스럽고 방탕한 사람.
- 8 차우차필릉사로세=남의 힘을 빌리기를 능사로 여긴다.
- 9 포식난의 일거=따뜻한 옷에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삼
- 10 신구학문전매=새 학문이나 구학문에 갇깜함.
- 11 감시=국자감시. 리조때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 12 증광폐지=증가하고 넓히는것을 폐지.
- 13 아자주사극난=내가 주사님 자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뜻.
- 14 국가급업=나라가 위태로운 상태.
- 15 부문승상=헛된 걸치레만의 경박한 문장을 숭상함.
- 16 군수관찰양두=군과 도의 관장들이 겸손히 자리를 내놓음.
- 17 수원숙우=누구를 원망하고 닳할수가 없음.
- 18 부패구습불변하면=부패한 옛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 19 삼천강토오백종사=삼천리강토 오백년 사직. 즉 삼천리강토에 오백년(리조 오백년을 의미함)지속하여온 나라.
- 20 견상담착=어깨우에 담당. 어깨에 지어짐.
- 21 충군애국=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함.

S01.str id=1942

청년학우회가

(작자미상)

무실력행(주해-1) 등불 밝고 기빨 날리는곳에
 우리들이 나갈 길이 숫돌 갈도다
 영화로운 우리 력사 복스러운 국토를
 비치게 활양으로 힘을 합했네
 용장(주해-2) 하던 조상의 피 우리 속에 흐르니
 아모러한 일이라도 겁이 없도다
 지선(주해-3)으로 일으랴고 노력하는 정신은

자강(주해-4) 충실 권면(주해-5) 정제(주해-6)
용감이로세

《소년》 1910. 제4권

- 1 무실력행=실속있도록 힘써 실행함
- 2 용장=날래고 씩씩함.
- 3 지신=지극히 착함.
- 4 자강=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음.
- 5 권면=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 6 정제=한결같이 가지런하다.

S01.str id=1943

청년학우회 행보가

(작자미상)

우리들은 굳센 힘과 순전(주해-1)한 마암
청년학우 회를 위해 함께 하도다
새 세상의 때바퀴가 우리앞에 와
보기 좋게 돌려주기 기다리는데
오랜동안 길러나온 중정(주해-2)튼튼코
잡겨있던 끊난 피에 맥이 출추네
쇠와 같은 손과 발이 이려하거니
나아가서 구할터라 차례옴이라
천재일우(주해-3) 좋은 때에 좋은 땅에 나
좋은 직분 좋게 다해 좋음 만들랴
무실력행 기를 세워 우리 모이니
우리 포부 원대하고 앞길 밝도다
돌려라 돌려라 두루 돌려라
큰것을 이루도록 힘껏 돌려라
우리들은 굳센 힘과 순전한 마암
청년학우 회를 향해 상납하도다
광영에 찬 긴 력사와 행복의 국토

이를 가진 우리들은 자중(주해-4)이 굳고
환호하고 력작해야 장한길 갔던
조상의 피 받은지라 자신이 큰데
때와 곳의 밝은 자각 경해가지고
어나때나 아모때나 무엇이어나
나은것은 생각하고 배호고 해야
지금보담 영화롭게 앞을 꾸미게
무실력행 기를 세워 우리 모이니
우리 기개 왕성하고 힘은 찻도다
하여라 하여라 세계 하여라
좋음을 이루도록 힘껏 하여라

1910. 제5권

- 1 순전=순수하고 온전함.
- 2 중정=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생각.
- 3 천재일우=천년에 한번 만나는 기회. 아주 좋은 기회.
- 4 자중=스스로가 자기 몸을 소중히 함.

S01.str id=1944

6

(작자미상)

청산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네
락락장송 큰나무도
깎아야만 동량(주해-1) 되네

공부하는 청년들아
너의 직분 잊지마라
새벽달은 넘어가고
동천조일(주해-2) 비쳐온다

유신문화(주해-3) 벽두초에
선도자의 책임 중코
사회진보 기(주해-4)대앞에
개량자된 의무 크다

농상공업 왕성하면
국태민안(주해-5) 여기 있네
가급인족(주해-6) 하교보면
국가부영(주해-7) 이 아닌가

문명기초 어대 있노
학리연구(주해-8) 응용일세
실업(주해-9)과학 학습함이
금일시대 급선무라

애(주해-10)흡도다 우리 부형
엄하도다 우리 선생
부사(주해-11)교육 엄하온대
학문불성 할가보나

《창가집》 1910

- 1 동량=기둥과 들보.
- 2 동천조일=동쪽하늘의 아침해.
- 3 유신=낡은 제도의 폐습을 고치여 혁신함.
- 4 기=기발
- 5 국태민안=나라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다.
- 6 가급인족=어느집 사람이나 의식주에 걱정없이 풍요하게 지냄.
- 7 부영=부유해지다.
- 8 학리연구=학문연구.
- 9 실업=농업, 공업 같은 생산경제에 관한 사업
- 10 애=사랑.
- 11 부사=부모와 스승.

2

(작자미상)

언덕우에 솔을 심어
십년배양(주해-1) 다 자랐네
곧은것은 재목되고
굽은것은 화목되니
재목 화목 저 등분이
저 되기에 달렸도다

사람본성 착하건만
학불학(주해-2)에 달렸나니
잘 배호면 현인되고
안배호면 우민이라
현인우인(주해-3) 저 등분을
생각하소 청년학도

- 1 십년배양=십년을 길러냄.
- 2 학불학=배우는가 배우지 않는가.
- 3 현인우인=현철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S01.str id=1946

공 부

(작자미상)

공연히 허송말세 오날날을
금일은 다시 두번 오지를 앓네
무단히 랑유말세(주해-1) 이 세월을
금년은 다시 두번 오지를 앓네
부지런히 공부하세 학도들아

하우씨 석촌읍(주해-2)을 우리들도

1910.

1 무단히 량유말세=함부로 허탕하게 놀지 마세.

2 하우씨석촌읍=하나라의 우왕(고대중국의 성왕으로 일러움)이
시간을 아껴썼다는데서 온 말.

S01.str id=1947

2

(작자미상)

나아가 나아가 발 빠르게 나아가
그쳐라 그쳐라 한꺼번에 그쳐라
그치기나 가거나 가라치는 그대로
웃음 웃는 꽃 우름 우는 새
재미있도다 저 화원으로
나아가 나아가 발 빠르게 나아가

배워라 배워라 힘을 써서 배워라
익혀라 익혀라 부지런히 익혀라
외오기나 읽기나 가라치는 그대로
그리거나 쓰거나 가라치는 그대로
읽는 글이나 쓰는 글씨나
재미있도다 그 학문이어
배워라 배워라 힘을 써서 배워라

1910.

S01.str id=1948

학 문 가

(작자미상)

금강석이라도 갈지 않으면
윤택한 광채는 날수 없도다
사람도 학문을 닦은후에야
성실한 덕행이 나타나리라
시계의 바늘이 간단이 없이
도라감과 같이 쉬지 말지라
촌음(주해-1)을 아끼여 성근히 하면
아모 업이라도 성공하리라

1910.

1 촌음=짧은 시간을 말함.

S01.str id=1949

4

(작자미상)

촌색(주해-1)을 자랑하는 좋은 회원(주해-2)도
재식(주해-3) 곧 아니하면 볼것 없도다
춘화(주해-4)와 같은 부귀 사정없도다
학문을 배양코야 가히 얻으리

하야(주해-5)는 훈후(주해-6)하고 등화(주해-7)
밝은데

어찌타 화충(주해-8)들은 와서 빠지나
불같은 불의영리(주해-9) 감히 탐할가
화패(주해-10)를 자취함은 어리석도다

추곡(주해-11)을 거두기는 무삼 공이뇨
알패라 춘하부터 근고(주해-12)함이라
어려서 공부하기 행혀 실서라
자라서 사업하기 어려우니라

동절(주해-13)을 안과(주해-14)하는 밀봉 보시오
로고(주해-15)를 부탄(주해-16)하고 예비함이지
원려(주해-17)가 없고보면 근우(주해-18) 있나니
청년을 허송코야 늙어 어찌리

1910.

- 1 춘색=봄의 아름다운 빛.
- 2 화원=꽃동산.
- 3 재식=초목이나 농작물을 심다.
- 4 춘화=봄꽃.
- 5 하야=여름밤.
- 6 훈후=해가 지고 어둑어둑함.
- 7 등화=등불.
- 8 화충=불벌레.
- 9 불의영리=의롭지 못한짓을 하여 리익을 도모함
- 10 화폐-재앙과 실패.
- 11 추곡=가을곡식.
- 12 근교=근로와 신고.
- 13 동절=추운 겨울.
- 14 안과=편안히 지냄.
- 15 로고=힘들여 애쓰는 수고.
- 16 부탄=두렵지 않다. 꺼리지 않다.
- 17 원려=앞으로 올 일을 헤아리는 깊은 생각.
- 18 근우=눈앞의 걱정.

S01.str id=1950

4

(작자미상)

우리 다린 무쇠다리 내어드디면
험한길 어려운곳 앞에 없도다
바람맞춰 활개치고 돌아다닐 때
산악은 엽다리고 하해떠노나

질겁도다 여름되니 이를 시험해
호장한(주해-1) 남아기운 발양하리라
감발한다 나서노라 사양안노라
대자연의 고대함 내가 아노라

화산(주해-2) 니고 열사(주해-3) 밟아 땅을 벗하야
남아니간(주해-4) 경역도 탐험할지오
앞에 고래 뒤에 상어 적수삼아서
해천을 삼키면서 험도하리라

마음쾌쾌 기력튼튼 정성겸하니
간대족족 지식을 발견할지라
몸과 배움 전진 위해 애쓰난 우리
웃지 차마 이 기회 허송하리오 《소년》 1910. 제6권

- 1 호장한=호협하고 씩씩한
- 2 화산=불우산이라는 형상구로서 여기서는 태양을 의미함
- 3 열사=뜨거운 모래
- 4 남아니간=남이 가지 않은

S01.str id=1951

4

(작자미상)

동원(주해-1)에 화발(주해-2)하고
남맥(주해-3)에 초록하니
봉접의 세계로다
일시변화는 너의가 먼저

강남에 우혈(주해-4)하고
수북(주해-5)에 사명(주해-6)하니
구로(주해-7)의 생애로다

청류목욕은 우리와 같이

풍청코(주해-8) 월명(주해-9) 한대
홍안(주해-10)이 고비(주해-11)하니
기창의 향사(주해-12)로다
장야(주해-13)감회는 고금이 일반

만산에 설백(주해-14)한대
송백이 독청(주해-15)하니
장부의 심사로다
천고특절(주해-16)은 누구가 제일

1910.

- 1 동원=동쪽에 있는 화원.
- 2 화발=꽃이 피다.
- 3 남백=남쪽 발돋움.
- 4 우혈=비가 그침.
- 5 수북=강 북쪽.
- 6 사명=모래가 빛나다.
- 7 구로=갈매기와 해오라기
- 8 풍청=바람이 맑음.
- 9 월명=달이 밝다
- 10 홍안=큰기러기
- 11 고비=높이 날다
- 12 기창의 향사=나그네길에서의 교향생각
- 13 장야=긴밤
- 14 만산에 설백=많은 산에 흰눈
- 15 송백이 독청=소나무들만 홀로 푸르다
- 16 특절=특이한 계절

S01.str id=1952

3

춘 조 (주해-1)

지새는 달그림자
놀빛에 사라지네
종달새 우는 소리
사야(주해-2)에 떠오른다
이제야 좋은 아참
촌가의 바쁜 모양
설을 파는 이해며
꽃을 파는 늙은이

정치 못한 봄바람
나뭇꿈을 깨이네
령롱한 새벽이슬
방초(주해-3)에 무르녹아
이제야 좋은시절
산가(주해-4)의 바쁜모양
나물캐는 소부(주해-5)며
별목하는 초부(주해-6)들

돌아오는 붉은 날
꽃속에 비쳐있네
세류(주해-7)의 아참연기
계변(주해-8)에 들렀도다
이제야 좋은 봄빛
농가의 바쁜모양
상평전에 밭갈며
하평전에 씨뿌려

1910.

- 1 춘조=봄아침.
- 2 사야=사망의 별.
- 8 방초=꽃다운 풀. 싱싱한 풀.
- 4 산가=산에 있는 집.
- 5 소부=젊은 부녀.
- 6 초부=나무하는 사나이.
- 7 세류=늘어진 버드나무가지.

4

(작자미상)

소년은 이로(주해-1)하고 학난성(주해-2)하니
일촌(주해-3)의 광음(주해-4)인들 불가경(주해-5)
이라
지당(주해-6)의 춘초몽(주해-7)을 미각(주해-8)
하야서
계전(주해-9)에 오잎(주해-10)들이 기추성
(주해-11)이라

성년은 한번가고 부중래(주해-12)하며
일일(주해-13)은 한번지고 난재신(주해-14)이라
급시곳(주해-15)하야서는 당면려(주해-16)이니
세월이 덧없어서 부대인(주해-17)이라

대우(주해-18)는 성인이되 석춘음(주해-19)이니
아등(주해-20)은 범인이라 석분음(주해-21)이니
하물며 청년후생 학도들이야
초음(주해-22)을 불석(주해-23)하면 어이밋츠랴

학문의 정한 파녀 어대 있는고
립신교(주해-24)사업성취 이것아닌가
배흘 때 당하야서 아니배호고
마참내 후회한들 무엇하리오

1910.

1 이로=늡기 쉬움.

2 학난성=학문이 이룩되기 어려움

- 3 일촌=한치.
- 4 광음=시간, 시각.
- 5 불가경=가벼이 할수 없다.
- 6 지당=못.
- 7 춘초몽=춘몽.
- 8 미각=깨닫지 못함, 깨지 못함.
- 9 계전=계단앞, 섬돌앞.
- 10 오잎=오동나무잎.
- 11 기추성=이미 가을을 알리다.
- 12 부중래=다시 오지 않음.
- 13 일일=하루.
- 14 난재신=새벽이 다시 오지 않음.
- 15 급시=때에 미쳐서, 그때가 되어.
- 16 당면려=마땅히 힘써 격려하다.
- 17 부대인=사람을 기다리지 않음.
- 18 대우=중국 하나라의 《성왕》이라고 하는 우왕의 존칭.
- 19 석촌음=한치의 순간도 아낌.
- 20 아등=우리들.
- 21 석분음=분초를 아끼다.
- 22 초음=시간을 빼앗김.
- 23 불석=아끼지 아니하다.
- 24 립신=출세하다.

S01.str id=1954

4

(작자미상)

왔도다 왔도다 봄이 왔도다
 농부야 깊이 든 잠 어서 깨여라
 포곡포곡(주해-1) 포곡새 우는 저 소래
 발갈고 심으기를 재촉함일세

일년에 재봉춘(주해-2)은 결코 없나니

행어나 일을서라 농부 힘쓸 때
이때를 당하여서 경작 못하면
가을에 수확하기 어찌 바라리

경종(주해-3)의 고금방법 우렐(주해-4) 있으며
농구의 동서제도 리둔(주해-5) 있으니
좋은것 가리여서 개량하여야
농업에 유익함이 다대하리라

부경코(주해-6) 부직하야 의식족(주해-7) 하니
양사코(주해-8) 부육하야 안락하오세
강구(주해-9)가 어대런고 연월(주해-10) 밝은데
격양가(주해-11) 두어곡조 성세(주해-12) 질기세

1910.

- 1 포곡=베꾸기.
- 2 재봉춘=다시 봄을 맞는다.
- 3 경종=밭갈고 씨뿌리다.
- 4 우렐=나음과 못함.
- 5 리둔=날카로운것과 둔한것.
- 6 부경코 부직=남자는 밭을 갈고 너자는 천을 짠다
- 7 의식족=먹고 입는다는 뜻.
- 8 양사코 부육=어버이를 섬기고 처자를 기름.
- 9 강구=큰 길거리.
- 10 연월=연기에 어린 달빛, 세상이 태평하다는 뜻.
- 11 격양가=태평세월을 즐기는 노래.
- 12 성세=평화로운 시대.

S01.str id=1955

2

(작자미상)

조일(주해-1)이 선명한데 행장을 정돈

경풍(주해-2)이 취의(주해-3)하야 전로(주해-4)를
인도

동문(주해-5)을 일출하니 흥금이 상패
우리를 반기는듯 인산과 지수(주해-6)
일보일보 진일보 학업이 여차
일리오리 부십리(주해-7) 전진이 무궁

박언채(주해-8) 박언취는 화훼(주해-9)와 광물
선생님 가라치신 리과(주해-10)의 실험
가이화 가이기(주해-11)는 승지(주해-12)와 고적
선생님 가라치신 지력의 재료
저 산천 저 풍물의 무한한 취미
모도다 자익일세 수학의 려행

1910.

- 1 조일=아침해.
- 2 경풍=가벼운 바람.
- 3 취의=바람이 옷을 스쳐지나가다.
- 4 전로=앞길.
- 5 동문을 일출=동구밖으로 썩 나가다.
- 6 인산과 지수=어진 산과 지혜로운 물이라는 뜻. 산수를 지식과 덕에 비유.
- 7 부십리=또 십리.
- 8 박언채 박언취=채취하겠다고 말하다.
- 9 화훼=꽃과 풀.
- 10 리과=《생물, 광물, 물리, 화학 등의 자연과학》을 통털어 이르는 말.
- 11 가이화 가이기=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쓸수 있다.
- 12 승지=경치 좋기로 이름난 땅.

S01.str id=1956

5

공 덕 가 (주해-1)

공덕이라 하는것은 그 무엇인가
공—덕과 인—도를 위함이니라
사람되고 마—스당히 힘쓸지로다
쉬운 절례(주해-2) 말할지니 들어보시오
사—나 나무 꺾지 말고 벽서(주해-3) 마시오
더욱 우리 학교물품 사랑하시오

남의 물건 비러온것 속히 보내고
시간약조 하얏거든 꼭 잘 지키고
사람에게 성가신 일 이루마시오
들어가서 불가한곳 드지 마시며
취하야서 불가한것 취치 마시며
말하야서 불가한 일 말삼 말지며

길바닥에 귀실물을 혹시 얻거든
잃은 사람 찾아주라 순사 말기면
누가 아니 감동하리 그런 품행은
가로상에 유리조각 집어버리지
왕래인의 발 상할가 넘어되나니
음덕(주해-4) 많이 쌓아두면 양보 있으리

문호(주해-5)에나 선차에서 출입할 때에
옆에 사람 밀치면서 쟁선(주해-6)마시게
거—동도 가증(주해-7)하고 례양(주해-8)아닐세
오예물(주해-9)을 포기하면 니웃부정코
전염병을 음위하면 남끄 | 올무오
심—술도 부정하고 위생아니오

외국인을 미워하고 조롱마시오
사해형제 넷말삼을 들어보시오
언충신과 행동경(주해-10)을 힘쓸것이오
나도 사람 저도 사람 가련 노복들
나도 생물 저도 생물 가련 육축들

마르시오 마르시오 천대학사(주해-11)를

1910.

- 1 공덕=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위하는 도덕과 의리.
- 2 절례=례절의 실례.
- 3 벽서=락서.
- 4 음덕=보이지 않는 덕.
- 5 문호에나 선차에서=문간이나 배 또는 수레에서.
- 6 쟁선=앞을 다투다.
- 7 가증=밋고 알밋다.
- 8 례양=례를 지키어 사양함.
- 9 오예물=더러운 물건.
- 10 언충신과 행동경=충성과 믿음을 장려하고 행실을 두렵고 공경스럽게 함.
- 11 천대학사=천하게 대우하고 마구 혹사함.

S01.str id=1957

4

(작자미상)

+운 동 가

만위근본(주해-1) 이내몸은
필요할사 건강일세
앞에 오는 허다사업
건강코야 감당할세
류록화홍 염양천(주해-2)에
활발운동 하여보세

청년사회 이내 몸은
학업종사 이아닌가
덕육지육 량건사(주해-3)도

체육안코 어이 할가
연비어약 자재지(주해-4)에
활발운동 아니갈가

학도대신 이내 몸은
일심공부 심쓰리니
설창형안(주해-5) 신지(주해-6)로대
춘복(주해-7) 한번 뜯치지니
우풍기류(주해-8) 모춘자(주해-9)에
활발운동 조홀거니

국민분자(주해-10) 이내 몸은
체건코야 심건(주해-11)이라
근로주의 실행함에
최선근본 이것이라
천량기침(주해-12) 시일야에
활발운동 조홀세라

1910.

- 1 만위근본=만가지에서 근본이 됨.
- 2 류룩화홍 염양천에=푸른 버들, 붉은 꽃, 고운 하늘에.
- 3 덕육지육 량건사=덕과 지혜를 키우는 두가지 일.
- 4 연비어약자재지=소리개가 날고 고기가 뛰어도 땅에 있다.
- 5 설창형안=창가의 눈과 책상우에 반디볼로 공부를 했다는 옛이야기.
- 6 신지=목적지.
- 7 춘복=봄옷.
- 8 우풍기류=춤추는 바람과 흐르는 물.
- 9 모춘=저문 봄, 늦은 봄.
- 10 국민분자=국민을 이룬 한 분자의 자기 몸.
- 11 체건코야 심건이라=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전하다.
- 12 천량기침=맑은 하늘에 푸른 기운.

3

(작자미상)

+ 줄 업 식

동창에 공부하던 우리 학우들
 세월이 지루하야 오날 당했네
 보내는자 가는자 피차 나뉘니
 석별하는 회포는 가이 없도다

금일에 상별하는 우리 학우들
 한 말삼 권하노니 명심하시오
 업을 맡고 가는자 사업 힘쓰고
 업을 닦고있는자 권고하시오

금란같이 친밀한 우리 학우들
 성심으로 비노니 보충하시오
 선진자 후진자의 우리 무리는
 스승의 교훈하심 굳게 지키세

《창가집》 1910.

S01.str id=1959

2

(작자미상)

+ 갈 지 라 도

갈지라도 갈지라도 바다 또 한바다
 하늘끝에 다은 물결 망망—하도다
 바다라도 건너랴면 능히 건너리라
 저어가세 저어가세 일심을 모아서

배화가고 배화가도 깊고도 깊도다

깊더라도 나중에는 열흘날 있나니
쉬지 않고 배화가면 능히 배호리라
배화가세 배화가세 일심을 모아서

1910.

S01.str id=1960

2

친의 은 (주해-1)

(작자미상)

주산보다 높으신 아버님은혜
하해보다 깊으신 어머님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기르신 부모은혜 망극하도다

반포(주해-2)의 저 가마귀 효도 지극코
삼지(주해-3)의 저 비둘기 레절있도다
심상한(주해-4) 미물들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새만 못하리

1910.

- 1 친의은=아버이의 은혜
- 2 반포=어미까마귀가 늙은 연후에 새끼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까마귀에게 먹임.
- 3 삼지=한대에서 뻗은 세가지
- 4 심상=보통이어서 레사롭다

S01.str id=1961

4

사의 은 (주해-1)

(작자미상)

철없고 어린 동서불변(주해-2) 우리들
힘써 가라친 우리우리 선생님
잊을소냐 그 은혜 아참이나 저녁이나

지식 넓히고 재능도덕 닦기는
누구 힘인지 동모(주해-3)들아 아나냐
옳다 우리 선생님 구전심수(주해-4) 이 아닌가

이 몸 낳기는 부모님의 은혜오
사람되기는 선생님의 은혜라
잊을소냐 선생님 부모님과 일반이라

높고 또 깊은 선생님의 큰 은혜
어찌 잊으며 어니때나 갚을가
우리 몸을 세우고 우리 일흠 날니여서

1910.

- 1 사의은=스승의 은혜.
- 2 동서불변=동쪽과 서쪽을 분별하지 못한다
- 3 동모=동무.
- 4 구전심수=구두로 전하여 속을 줌.

S01.str id=1962

2

선 우 (주해-1)

(작자미상)

물은 담는 그릇빛을 따라서
이리도 변하며 저리 변하고

사람은 사피는 벗을 따라서
선하게도 되며 악하게 되오

날보담 몇배나 우성한 벗을
택하고 구하야 때때 상종코
과실을 고치고 선행 본받아
이내 몸도 현인 군자 됩시다

1910.

1 선우=착한 벗

S01.str id=1963

4

표 의 (주해-1)

(작자미상)

산곡간에 흐르는 맑은 물가에
저기 앉은 저 표모(주해-2) 방망이 들고
이 옷 저 옷 빨적에 하도 바쁘다
해난 어이 짚나서 서산을 넘네

물에 잠가 두드려 얼른 헤우고
다시한번 쥐어짜 널어말릴제
나모가지에 걸고 풀밭에 편다
별은 어이 엷어서 더디 마르네

멀리 뵈는 산언덕 회기도 희다
종일토록 뵈 옷이 다 말났으니
주섬주섬 걷어서 가지고 간다
애는 어이 철없어 배꼽아우네

서리오고 바람찬 장장추야(주해-3)에
옷 다듬는 저 소래 이집저집서
장단맞쳐 응하니 듣기도 좋다
달은 어이 다정히 창에 비취네

1910.

- 1 표의=옷을 빨다.
- 2 표모=빨래하는 아낙네.
- 3 장장추야=긴긴 가을밤.

S01.str id=1964

2

(작자미상)

+ 달

달아달아 밝은달아○○○○ 노든 달아
저기저기 저 달속에 계수나무 백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량친부모 피서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량친부모 피서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1910

S01.str id=1965

2

지연(주해-1)과 팽이

(작자미상)

올러라 연아연아 활신탈신탈 올러라
공중에 나라가는 저 소리개보담도
올러라 연아연아 좀더좀더 높직이

돌어라 팽이팽이 얼는얼는 돌어라
바람에 팽팽 도는 바람같이보담도
돌어라 팽이팽이 좀더좀더 빠르게

1910.

1 지연=종이로 만든 연.

S01.str id=1966

4

(작자미상)

+ 시 계

시계가 땡땡 친다
어서어서 닐어나세 밤이 밧서 새였네
의복을 갈어넉게 아참밥이 되었네

시계가 땡땡 친다
어서어서 문을 나세 지체말고 학교에
책싸서 옆에 끼게 몬져 가세 남보다

시계가 땡땡 친다
공부하세 공부하세 상학시간 되었네
읽고 쓰고 외일제 두지 말게 잡념을

시계가 땡땡 친다

돌아가세 돌아가세 하학시간 되였네
집으로 얼른 가세 쾌락하게 노으세

1910.

S01.str id=1967

4

토와 구(주해-1)

(작자미상)

여보 여보 거북님 내 말 들어보
천지간동물중에 네발 가지고
저같이 느린 걸음 처음보와라
이상타 그대걸음 어찌 그런가

여보 여보 토끼님 무삼말인가
그리하면 나하고 경주하려나
여기서 바로 떠나 저 산까지에
누구라 먼저 가나 내기해보세

아모리 저 거북이 속히 걸어도
밤까지 걸릴지니 잠깐 잠자고
천천히 가드래도 저 못미출가
쿄르 쿡르 또 푹푹 토끼 쿡곤다

아찻차 너머잖다 어서 가보자
깡동깡동 또 깡동 토끼 달는다
거북은 쉬지 안코 먼저 갔도다
자랑하든 토끼는 어이 늦었나

1910.

1 토와구=토끼와 거북.

S01.str id=1968

2

접(주해-1)

(작자미상)

저 나비야 저 나비 이리와서 놀어라
화계우에 좋은 꽃 웃는다시(주해-2) 피었다
향기내도 맑거든 꿀맛조차 달구나
저 나비야 저 나비 꽃속에서 잠자나

저 꽃속에 잠자고 이 꽃속에 또 잠자
봄 다간다 잠깨라 무삼꿈을 꾸었나
저 나비야 저 나비 잎밑으로 숨어라
모진바람 불닐라 급한 비에 젖을라

1 접=나비.

2 웃는다시=웃는듯이.

S01.str id=1969

2

(작자미상)

+ 이 앙

어제오날 연하야 비가 오더니
논이던지 개천에 물이 넘치네
베모 읊겨 심기난 때가 알맞다
소를 끌어내여서 장기메이고

여기서는 소몰아 급히 논갈고

저기서는 벼모를 바삐 심는다
강구연월(주해-1) 격양가 서로 부르며
순식간에 눈빛은 청청하얏네

1910.

1 강구연월 격양가=태평한 세월에 풍년이 들어 즐겨 노래부름.

S01.str id=1970

9

신체시

6

최 남 선

+ 해에게서 소년에게

치...근씩 치...근씩 척 썩...아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태산같은 높은 뒀 집채같은 바위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치...근씩 치...근씩 투르릉 확

치...근씩 치...근씩 척 썩...아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없이
륙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자들도
내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에게는 애세하지 못하네
내에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치…근씩 치…근씩 투르릉 콧

치…근씩 치…근씩 콧…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자가
지금까지 없거던, 통지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룬 너의들이나
누구누구 누구냐 너의 역시 내에게는 굽히도다
나허구 겨르리 있진 오느라
치…근씩 치…근씩 투르릉 콧

치…근씩 치…근씩 콧…아
조고만 잔모를 의지하거나
좁쌀같은 적은 섬, 손벽만한 땅을 가지고
고속에 있어서 영악한데를
부리면서 나혼자 거룩하다 하는자 이리 좀 오느라
나를 보아라
치…근씩 치…근씩 콧 투르릉 콧

치…근씩 치…근씩 콧 콧…아
나의 짝될이는 하나 있도다
크고 길게 넓으게 뒤덜흔바 저 푸른 하날
적은 시비 적은 싹 온갖 모든 더러운것 없도다
저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치…근씩 치…근씩 콧 투르릉 콧

치…근씩, 치…근씩 콧 콧…아
저 세상 저 사람 모다 미우나
그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크고 순정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느라 소년배 입맞쳐주마
치…근씩 치…근씩 콧 투르릉 콧

《소년》 1918.

+ 우리의 운동장

우리로 하여곰 《풋뿔(주해-1)》도 차고
 우리로 하여곰 경주도 하여
 생하여 나오난 날쌔 기운을
 내뿔게 하여라 퍼게 하여라
 아직도 제 주인 만나지 못한
 태동의 저 대륙 넓은 벌판에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하여곰 혜염도 하고
 우리로 하여곰 경주도 하여
 서방님 수족과 도령님몸은
 거슬게 하여라 굳게 하여라
 우리의 운동터 되기 바란다
 태평의 저 태양 크나큰 물에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뿔어진 짚신에 발감게 하고
 씨베랴 찬바람 거슬이면서
 다름질 할이가 그 누구리냐
 나막신(주해-2) 같은배 좌우로 저어
 별발이 곧 쏘난 적도아래서
 배싸흙 할이가 그 누구리냐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우리 삼면환해국(주해-3) 소년들아 너의는
 잠시라도 꿈속에서라 도 너의 천회편후(주해-4) 한
 세계적처지를 잊지 말디어다
 목금(주해-5) 세계문운(주해-6) 대중심은
 태평대양과 태동대륙(주해-7)에 있난데 우리
 조선은 좌우로 이 량치를 공제함을 생각하라

1908. 제2권

- 1 꽃뿔=축구.
- 2 나막신=나무를 파서 만든 신.
- 3 삼면환해국=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
- 4 천회편후=특별히 두터운 하늘의 혜택.
- 5 목금=바야흐로.
- 6 세계문운=세계문화운동.
- 7 태동대륙=아세아대륙.

S01.str id=1972

벌

(작자미상)

곳은 날 마른 날 가리지 않고
 높은데 낮은데 헤이디 않고
 머나 가까우나 찾아다니며
 부지런 바지런 움직이는건
 어여쁜 꽃모양 탐함 아니오
 복욕한(주해-1) 향내를 구함 아니라
 애쓰고 힘들여 바라는것은
 맛있는 좋은 꿀 얻으렴이라
 공든것 드러나 꿈을 꾸었으면
 우리는 뉘꿈도 관계안하고
 곱다케 모아서 사람을 듀어
 긴하게 쓰도록 바랄뿐이니

맛없난것에는 맛나게 하고
 맛있난것에는 더 있게 해야
 아모나 도흔건 꿀갈다 하게
 우리가 만든걸 칭찬케 되다
 사람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
 귀속여 우리 말 들어를 보게
 더즘게 고초를 무릅쓰고서
 정성을 다해야 공이룬것이
 리되나 해되나 생각하건댄
 송영과 칭예 (주해-2) 의 리뿐이로다
 초당에 편한잠 탐하얏드면
 너같이 무용진 되엿겠구려
 옛사람 말 삼은 그른것 없어
 한마디 한구절 한땀이라도
 가로대 쓴뿌리 단열매 맺고
 수고로운곳에는 락 온다더니
 수고한 뒤에는 좋은 갓음이
 오지를 말래도 억지로 오네
 사람과 벌레가 무엇 다르랴
 게어름 부리린 갓음 받을 때

1908. 제2권

- 1 복옥한=매우 향기로움.
- 2 송영과 칭예=영광과 명예를 칭송함.

S01.str id=1973

농 부 가

(작자미상)

왔도다 왔도다 봄이 왔도다
 지나갔든 봄철이 다시 왔도다

띄높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
 지나갔든 봄철이 다시 왔도다
 압내와 뒤개에 어름풀리고
 먼산 가까운 산 눈이 녹는다
 풀꼭이 폭이마다 속잎 나오고
 나무가지 가지마다 엄이 돋는다
 어화 우리 농부들아 정신차려라
 아래들 옷들에 때늦어간다
 날 선 장기 있다 믿지 말고
 살진 소 있다고 자랑말지라
 날선 장기와 살진 소라도
 이때가 지나가면 쓸대 없도다
 일하기 어렵다고 계르지 말고
 놀기가 조타고 쉬지 말어라
 아래들 옷들의 좋은 논발을
 우리의 조상이 니루우셨네
 어렵고 수고로움 많이 참으며
 한이랑 두어이랑 니루우셨네
 수고로울 때에는 땀을 흘리고
 어려울 때에는 눈물 흘렸네
 눈물은 즐기즐기 눈물 보태고
 땀발은 방울방울 흠에 쉬겼네
 조상이 주신것을 지켜가려면
 내 몸이 게르고는 할수 없도다

1908. 제6권

S01.str id=1974

4

+ 신조선 소년

검붉게 검은 저의 얼굴 보아라
 역세계 덕근 저의 손발 보아라

나는 놀고 먹지 아니한다는
표적 아니냐
그들의 힘줄은 툭 불거지고
그들의 뼈대는 딱 벌어졌다
나는 힘드리난 일이 있다는
유력한 증거아니냐
옳다 옳다 과연 그렇다
신조선의 소년은
이러하니라

전부의 성심 다 들여 힘 기르고
전부의 정신 다 써 지식늘여서
우리는 장차 누를 위해 무삼일 하라 하나나
약한놈 어린놈을 도울양으로
강한놈 넘어떠려 최후승첩은 정의로 들어간다
밝은 리치를 보이려 함이 아니냐
옳다 옳다 과연 그렇다
신조선의 소년은
이러하니라

그에게 저의 권속(주해-1)이나 재산의
사유한것은 아모것도 없이
사해팔방 제 몸이 가난대가
저의 집이오
일천하 억만성이(주해-2) 모다 형제오
따우에 생식하난 온갖 품물이
저의 재산 아닌것이 없난듯
지극히 공평하더라
옳다 옳다 과연 그렇다
신조선의 소년은
이러하니라

앞으로 나갈 용은 넉넉하야도
뒤흐로 물릴 힘은 조곰도 없어
뻗뻗한 그 다리는 아모때던지

내여드르였고
하날을 올려봄엔 그 눈 밝어도
나려다보난것은 아주 어두어
밤낮 위로 올라가난 빠른 길
힘써 찾을뿐이러라
옳다 옳다 과연 그렇다
신조선의 소년은
이러하니라

1909. 제1권

- 1 권속=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
- 2 일천하억만성이=온 세상 백성이.

S01.str id=1975

제 목 없 이

공 룩 식

우리는 아모것도 가진것 없소
칼이나 룩혈포(주해-1)나
그러나 무서움 없네
철장(주해-2)같은 형세라도
우리는 웃찌(주해-3) 못하네
우리는 옳은것 짐을 지고
큰길을 걸어가난자일세
우리는 아모것도 지닌것 없소
비수나 화약이나
그러나 두려움없네
면류관(주해-4)의 힘이라도
우리는 웃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것 광이 삼아
큰길을 다사리난자일세

우리는 아모것도 든 물건 없소
 돌이나 몽둥이나
 그러나 겁 아니나네
 세사같은 재물로도
 우리는 웃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것 칼해 짚고
 큰길을 지켜보난자일세

1909. 제4권

- 1 룩혈포=총알을 재는 구멍이 여섯개가 있는 구식권총.
- 2 철장=쇠붙이로 만든 몽둥이.
- 3 웃찌못하네=어찌하지 못함.
- 4 면류관=봉건사회에서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는 관, 여기서는 왕을 가리킴.

S01.str id=1976

꽃 두 고

공 룩

나는 꽃을 질겨 맞노라
 그러나 그의 아리따운 태도를 보고 눈이 어리며
 그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코가 반하야
 정신없이 그를 질겨 맞임아니라
 다만 칼날같은 북풍을 더운 기운으로써
 인정없는 살기(주해-1)를 깊은 사랑으로써
 대신하야 바꾸어
 뼈가 저린 얼음밑에 눕니고 피도 어릴 눈구덩에
 파묻혀있던
 억만목숨을 건지고 집어내어 다시 살리란
 봄바람을 표창(주해-2)하므로
 나는 그를 질겨 맞노라
 나는 꽃을 질겨보노라

그러나 그의 평화기운 머금은 옷은 얼골 흘러며
 그의 부귀기상 나타낸 성한 모양 탐하야
 주작없이(주해-3) 그를 질겨 봄이 아니라
 다만 곁모양의 고은것 매양 실상(주해-4)이 적고
 처음 서슬(주해-5) 장한것 대개 뒤 곧 없난중
 오즉 혼자 특별히
 약간 영화 구안(주해-6)치도 아니코 허다마장
 (주해-7) 겪으면도 굽히지않고
 억만목숨을 만들고 느려내여 길이 전할바
 씨열매를 보육하므로
 나는 그를 질겨보노라

1909. 제5권

- 1 살기=독살스러운 기운.
- 2 표창=알리다. 공로를 널리 세상에 칭찬하여 알림.
- 3 주작없이=주대없이.
- 4 실상=실제의 상태나 내용.
- 5 서슬=기세.
- 6 구안=한때 겨우 편안하다.
- 7 허다마장=많은 일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생각지 않았던 방해나 가탈을 말한다.

S01.str id=1977



(작자미상)

한 말 하는 일 조금도 틀림 없도록
 몽매(주해-1)에라도 마음두고 힘쓰게
 말이 좋으면 함박꽃과 같으나
 일은 흉내도 흰쌀알과 같더라
 눈비움(주해-2)도 좋으나
 배불은것 더 좋으니

자유로 제곳에서 날고 뺨은
옳은이 옳은일의 거룩한 힘
깊고 큰 저 연못에 거침없이
넓고 긴 저 공중에 마음대로
그와 같이 다니고
뛰노도록 합시다

1909. 제4권

1 몽매에라도=꿈속에서라도

2 눈비움=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길을 꾸밈

S01.str id=1978

맑은 물

공 룻

밤이나 낮이나 조리졸졸
한시도 한각도 쉬지 않고
한 없난 바다에 가기까지
근한줄 모르고 흘러가네
가다가 종로에 사람들이
고이게 한다고 조약돌로
흐르지 못하게 막었으나
제 자유 조금도 잃지 않네
돌틈을 뚫어서 나가든지
모래로 심어서 들어가든지
별밭에 끌어서 피우든지
어떻게 무삼 법 써서라도
가운데 끓임이 련할 때에
땅속에 숨은 물 합할 때에
공중에 각방울 영길 때에
내되고 샘되고 비되어서

전같이 꾸준히 쉬임없이
그대로 바다로 향해가니
막더니 수고는 헛일되고
흐르난 자유는 상함없이
영원히 마음대로 갈곳 가네
밤에나 낮에나 쉬지 않고

1909. 제6권

S01.str id=1979

조선소년행

조선소년행(주해-1)

(작자미상)

따디따닷따! 두당둥당둥!
대천세계(주해-2) 덮고 남는 우리 기운을
한번 한껏 못뿜어서 무궁한인데(주해-3)
수미산(주해-4)을 바루뚫는 우리 용맹을
아직 조금 못써보아 독자고(주해-5)로다
이런 기운 이런 용맹 한데 모아서
이 세상에 도량(주해-6)하난 부정불의를
토벌코자 의용대(주해-7)를 굳게 단성해(주해-8)
조선소년 당당보무(주해-9) 나아가노나
따디따닷따! 두당둥당둥!
번듯번듯 장공(주해-10) 덮은 적고 큰 기발엔
발(주해-11) 발마다 정의자가 신면목(주해-12)이오
번쩍번쩍 일광 가린 길고짜른 칼
끝끝마다 정의신이 전승무(주해-13) 추네
말 바르고 리치맞아 형세 장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군앞에
안끼이는 군사란게 누구 있으리
안눌리는 형세란게 어대 있나뇨

따디따닷따! 두당둥당둥!
 조기조기(주해-14) 반짝반짝 보이는것이
 무엇인지 너의들이 알아보나나
 다만 앞만 보고 가서 얼른 취하라
 용사에게 돌아갈바 승첩등(주해-15)이라
 급하게나 완하게나 쉬지만 말고
 처음 정한 우리 목적 굳게 지켜서
 끈기있게 용맹있게 가기만 하면
 빼앗을자 다시 없다 우뢰것일세

1909. 제7권

- 2 대천세계=불교에서 말하는 삼천세계의 셋째. 곧 중천세계의 천감절이 되는 세계. 삼천대천세계.
- 3 무궁한인데=끝없이 한스려운데.
- 4 수미산=불교의 세계설에서 세계의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다는 산.
- 5 독자고=홀로 고통스러워 함.
- 6 도량=꺼리낌없이 함부로 날뛰여다님.
- 7 의용대=국가나 사회의 위급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일어나 조직된 군대.
- 8 단성=거짓이 없는 참된 정성.
- 9 당당보무=걸음걸이가 씩씩하고 버젓함. 보무당당.
- 10 장공=끝없이 길고도 먼 하늘.
- 11 발=《죽죽 내뺨는 줄, 내뺨는듯한 기세》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 례; 해발. 빛발.
- 12 신면목=새로운 면목.
- 13 전승무=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의 춤
- 14 조기조기=저기저기.
- 15 승첩등=승리하였을 때 켜는 등불.

S01.str id=1980

우리 님

공 룩

털관 머리에 쓰고
몸에 금수옷 입고
가삼에는 훈장 차고
이상하게 점잖은
행세하는 그 사람
우리 님이 아니오
코에 지혜를 걸고
입에 아는것 발라
눈을 멍멍히 뜨고
남다르게 높은체
하려 하는 그 사람
우리 님이 아니오
돈있기로 유식코
재물있어 의젓코
넉넉으로 푼푼해
제가 잘나 그런듯
하게 아는 그 사람
우리님이 아니오
우리님아 우리님
네모양은 어떠뇨
나는 맨몸 맨머리
입고 가린것 없어
약한 취를 놀래려
아니 쓰오 피가죽
우리님아 우리님
네 자랑은 무어뇨
나는 근본을 알고
아는대로 하나니
분 바르고 흰빛갈
자랑하지 아니하오
우리님아 우리님
네 가진것 무어뇨
흠이 없든 내 마음
수정같이 맑으니

여럿의것 거두어
나날 때에 빛 안내오

1909. 제7권

S01.str id=1981

3

삼면환해지국(주해-1)

(작자미상)

부글부글 끓는듯한 동녘하늘 보아라
상서(주해-2)기운 룡조(주해-3)하야 뻑뻑히 찬
안에서

온갖세력 근원되신 태양이 오르네
하늘은 붉은빛에 휩싸인바 되었고
바다는 더운힘에 항복하야 있도다
어두움에 갇혀있던 억천만의 사람이
눈을 뜨고 살펴보난 자유연으며
몸을 일어 움작이난 기운 생기네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참인사소리는
어느말이 태양공덕 송축함이 아니냐
이러하게 만중(주해-4)이 다 우리보난 태양은
벽해수(주해-5)를 사이하야 먼저 우리 비취네
그렇다 우리 나라는
동방도 바다이니라

부쩍부쩍 빛발나는 남녘하늘 보아라
광명구름 천정되어 가로퍼진 면에는
온갖 세력 주재(주해-6)이신 태양이 떠있네
인축(주해-7)은 밝은빛에 부지런을 다투고
초목은 빛는 힘에 자라기를 힘쓰네
게으름에 붙들렸던 억천만의 품물(주해-8)이

손발놀려 일을 하난 활기있으며
 조화빌어 열매맺는 생의(주해-9) 보이네
 가다듬고 힘써하난 한나절일 모양은
 어느것이 태양정기 표현함이 아니냐
 이리하게 만물이 다 힘을 입난 태양은
 령해수(주해-10)를 사이하야 마주 우리 쪼이네
 그렇다 우리 나라는
 남방도 바다이니라

우걱우걱 찌는듯한 서녘하늘 보아라
 채색노을 장막이튀 둘러쳐논 속으로
 온갖세력 작성하신 태양이 드시네
 산악은 남은빛에 공손하게 목락(주해-11)코
 하하는 걷는 힘에 질서있게 밀리네
 어려움에 빠져있는 삼천세계 중생(주해-12)이
 차별없이 베풀어준 운광입으며
 한량없이 헤쳐놓은 덕 퍼져졌네
 질거움과 편안함의 저녁때의 광영이
 어니것이 태양택화(주해-13) 점피(주해-14)함이
 아니냐
 이리하게 만계가다 복을 만난 태양은
 황해수를 사이하야 끝내 우리 쓰시네
 그렇다 우리 나라는
 서방도 바다이니라

1909. 제8권

- 1 삼면환해국=세면이 바다에 싸인 나라.
- 2 상서=복되고 길한 일이 있을 기미.
- 3 룡조=싸고돌다.
- 4 만중=대중.
- 5 벽해수=푸른 바다물.
- 6 주재=어떤 일을 책임지고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 7 인축=사람과 가축
- 8 품물=형체를 갖춘 온갖 물건의 총칭.
- 9 생의=살아있는 뜻.
- 10 령해수=한 나라의 통치권에 속하는 바다물.

- 11 목락=떨어지는 물에 목욕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지는
 해빛을 받는다는 뜻이다.
 12 중생=사람과 모든 동물을 통털어 이르는 말.
 13 태화=은덕.
 14 점피=옷이 젖어들듯이 어떤 힘을 입다.

S01.str id=1982

태백산부

(작자미상)

지구의 산—산의 태백이나?
 태백의 산—산의 지구냐?
 시인아 이를 묻지 말라
 그것이 긴하게(주해-1) 찬송할것 아니다
 하늘면은 휘둥그렇고 땅바닥은 평퍼짐한데
 우리님—태백이는 옷뚝!
 독립—자립—특립
 송곳? 화저(주해-2)? 필통의 붓?
 영광의 첩탐(주해-3)!
 피뢰침? 기발대? 전주목?
 온갖 아름다운 용맹이 한데로 몽치여 된
 조선남아의 지정대순(주해-4)의 큰 팔뚝!
 천주는 부러지고 지축은 꺾어져도
 까딱없다 이 첩탐!
 삼손(주해-5)이 쳐도, 항우(주해-6)가
 달녀도—구정(주해-7)을 녹여서 몽치를
 만들어가지고 땡땡땡 따려도
 까닥없다 이 팔뚝!

지구면의 물이 다 마르기까지
 정의의 기록은 오직 리리(주해-8)라

그리하야 어두운 세상의 등탑이 되야 사람의
 자식의 큰 길을 비초여주리라
 태양이 재덩어리 되기까지
 정의의 주인은 반다시 이리라
 그리하야 어미닭의 날개가 되야 발발 떠난
 병아리를 덮여주리라
 아아 세계의 대주권은 영원히 이 첩탐—이 팔뚝에
 걸린 노리개로다
 하늘면은 휘둥그렇고 땅바닥은 평퍼짐한데
 우리님—태백이는 옷뚝
 지구의 산—산의 태백이나?
 태백의 산-산의 지구나?
 시인아 이를 묻지 말라
 그것이 긴하게 찬송할것 아니다

1910. 제2권

- 1 긴하게=요긴하게.
- 2 화저=불저가락.
- 3 첩탐=뽕족한 탐.
- 4 지정대순=극히 정하고 아주 순결함
- 5 삼손=옛적 유태국 용사의 이름.
- 6 항우=중국의 옛장수이름.
- 7 구정=아홉개의 가마솔.
- 8 리리=여럿의 구별이 또렷한 모양.

S01.str id=1983

4

공 룩

더러운 물이 마음대로 이 세상에 흐르고
 못된 냄새가 막힘없이 이 인간에 퍼져서
 옳은 사람이 큰무리와 한번 씻기 바랄 때

꽤한 불결을 뽐어내어 빠지 않고 불세례
머리위에서 더하려고 맨먼저 애썼노니
언제까지든 성취하잔 우리 뜻이 이로다

하날앞문이 열리면서 밝은 해가 나옴에
먼저 그 빛과 그 더움에 목욕하긴 내로다
찬바람으로 밤 새고난 넓은 뒤뜰 사람과
눅은안개에 싸여있는 적은앞섬백성이
다같이 고개 번쩍 들고 나를 우러러보니
문명한 기운 온화한빛 그의 바람이로다

들가운데에 바람 불고 사나운 비 올 때엔
행여 무궁화 건더릴가 가로우뚝 막도다
이리한새에 길러싸은 힘을 시험할차로
조선소년이 일어나매 좌우로 길 내도다
떨쳐일어나 나아가라 장케하마 가난빛
너의 앞을 잘 가렸던 내 너의 뒤도 잘 보마

내앞에 놓인 꽃반도는 윈큰것의 점이니
모든 빛나고 고은일이 네게로서 시초라
네 한나라를 위해서나 윈 세계를 위해서나
제일하기엔 용감하고 남 위하얀 자비해
적고 큰 너의 모든 소망 내앞에서 이루라
장하고 대하고 부하라 진코선코 미하라

1910. 제2권

S01.str id=1984

청년학우하기휴학가

(작자미상)

겨울봄 정성으로 배왔던것을
등에 지고 향리로 돌아와보니
주유의 무식함이 눈 새롭구나

한동안 그를 위해 수고하리라
알므로 리익받는 우리 행복을
난화서 같이함은 기쁜일이라
얕고 적은 지식도 힘써 널니면
일반문화 향상에 큰공있도다
이리하야 떼떼이 할일 한뒤엔
승적(주해-1)에 널리 놀아 사상기르고
식물경 광물분포 관찰도 하야
새론 지식 얻기에 정신쓰리라
이런일에 전능을 다 들이면서
악한 유혹 물리쳐 몸과 정신을
더욱더욱 건전히 붓도도다가
기꺼움은 학창에 도라옴일세

1910. 제6권

1 승적=명승고적

S01.str id=1985

여름의 자연

(작자미상)

천동소리 앞뒤산에 들들 울리고
일순천리 번개불이 눈에 지나며
큰소내기 한줄기가 쏟아져오면
산에는 사태나고 물은 넘쳐서
모든것이 약하게도 패해 쓰러져
간곳마다 자연력의 위세표로다
오래 기른 조선소년 정력 쏟으면
그의 앞에 이 세계가 저러리로다
온 하늘에 흑운 덮여 칙칙하움도
힘의 바람 한번 부니 씻은듯 걸혀

그림같은 무지개가 우뚝 서면서
달빛이 선려하야 밝음 나노나
천군(주해-1)으로 머리위를 누르던 암흑
이제서야 그림자나 얻어서볼가
많이 쌓은 조선남아 예기(주해-2) 노니면
그의 앞에 이 세계가 저러리로다

1910. 제7권

- 1 천군=무거운 무게를 의미함. 일군은 30근임.
- 2 예기=완강하여 굽히지 아니하는 날카로운 기백이나 기세.

S01.str id=1986

4

소 석 생

+ 비 야

비야 비 내려오라 뒤편 들우에
산 타고 들 마르는 이 모진 가물
묘한 비 너소래에 새 천지되게
오나라 뒤편 들에 반가운 비야

비야 비 내려오라 우리들집에
근심과 모든 번민 씻어내이고
패락코 화목함이 영원하도록
오나라 우리 집에 아름다운 비

비야 비 내려오라 우리 반도에
약기(주해-1)와 모든 질원(주해-2) 씻어내이고
삼천리 화려강산 날로 새롭게
오나라 이 반도에 새로운 비야

비야 비 내려오라 우리 민족에
악마다 모든 악한 씻어내이고
반만년 우리 력사 새 빛 나도록
오나라 이 민족에 쾌활한 비야

《만주일보》 1919. 9. 7.

- 1 악기=악한 기운.
- 2 질원=질병의 근원

S01.str id=1987

5

권 은 상

+ 피와 땀

나의 가삼 끊는 피는
슬픈 회포는
더운 눈물 뿌리기는
우리 고통이로세

끊는 피와 더운 눈물
아낌이 없이
악풍폭우 심하여도
활동하라 청년아

천재일우(주해-1) 좋은 기회
이때 아닌가
자유행복 있기까지
힘쓸지라 청년아

청년들아 일심으로
전진전진 나아가

백절불굴 우리 정신
장하도다 앞으로

금수강산 백만용사
피와 땀으로
개척하세 험한 길을
우리의 청년들아

1919. 9. 26.

1 천재일우=천년에 한번 있는 좋은 기회.

S01.str id=1988

사람의 운명

(작자미상)

일찌기 부모잃고 우는 이 아해
가삼 썩고 한 깊은 누가 알거나
서리찬 아침날에 문을 의지해
배고파 부르짖음 몇번이였고
치운날 담밑에서 거적 두루고
발발 떨고 느낌은 몇번이였나
그러하나 그중에 기쁨있었다
원세상 모든 자유 혼자 가지고
모든 일을 제가 해 독립하였네
제것 두고 남에게 굴복한자와
자만자족 못된맘 품은 저놈들
이 어린 아해님이 목숨으로서
너희들의 그 악행 대속하리라

1919. 10.

S01.str id=1989

Editorial Note

- This reconstructed edition was assembled from the book-level record 'S01.str:16784' and its embedded table-of-contents link table.
- OpenAI Codex handled the local reverse-engineering workflow, extraction scripts, link-table parsing, LaTeX generation, and compilation checks, with assistance from a GPT-5-series language model.
- The original link relationships are preserved in the JSON and Markdown files written beside this TeX file.
- Some low-level typography and control codes from the source application are still only partially interpreted, so this edition should be treated as a practical structural reconstruction.